# 하늘나래

FEB,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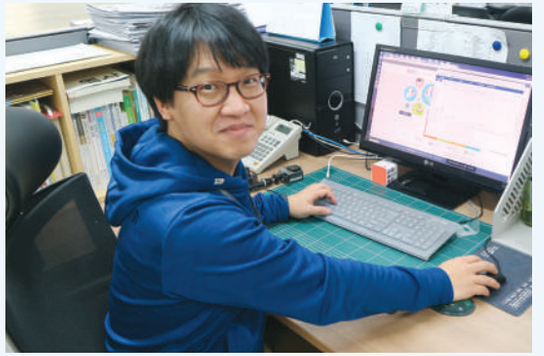
## 하늘인, 365일간의 기록

Vol.5

# : Contents


8 인사말
12 특별프로그램
22 동아리
27 선진화 교육과정
34 HANEUL PICK
36 체육대회
40 수학여행
46 꽃동네
50 영자신문
52 학술제
58 영자신문
60 기숙사 특집
67 선생님 과거사진전
68 학생회 특집
73 HANEUL PICK
74 영자신문

# : Contents



학생회 선거 생방송 76
영자신문 78
귀가의 날 특집 80
주인공 특집 84
영자신문 90
하늘고의 시험기간 92
추천 필기템 95
나 혼자 산다 98
알쓸하잡 선배가 간다 102
HANEUL PICK 110
영자신문 111
대입성공기 112
하늘고의 GO BACK 122
담임 사용 설명서 124
교사 앙케이트 130
반별 한마디 146
STAFF 194

교장 **김일형**

해바(김일형) 교장의 생각

- 우리 한번 해(도전) 봅시다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도 결코 성공할수 없습니다.
- 언제나 긍정(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며 살아 갑시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 늘 웃는 얼굴로 남에게 행복한 (해외) 아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해서 웃는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학생회장 김지수**

재작년 이맘때쯤, 하늘나래 3호를 보며 하늘고에서의 삶을 그리던 제가 떠오릅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기엔, 얻은 것들이 훨씬 많은 2년이었습니다. 하늘나래는 누군가에겐 기억의 상자이며, 누군가에겐 하늘고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작년 교지편집장 선배님의 말씀을 빌려 잠시 제가 얻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학생회 임원을 거치면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 줄 친구를 얻었습니다. 실수로 꾸중을 들을 때도 진심 가득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꼈고, 고민을 거듭할수록 성장했습니다. 라크로스가 끝난 뒤 먹었던 매점 라면은 참 맛있었고, 오랜만에 집에 갈 때마다 반겨주던 가족들은 따뜻했습니다. 성장기의 통증 또한 사랑하는 모교,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겪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입학 때 꿈꾸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것들이 값진 것임을 알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함께한 하늘인들의 2017년 기록, 하늘나래 5호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힘 써주신 김민희 선생님과 교지편집장 은비, 유선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흩날리는 추억의 조각들을 다섯 번째 하늘나래에 담았으니,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며 함께 추억합시다. 우리의 발자취를 기꺼이 읽어줄 후배님들에게도 사랑의 온기와 뜨거운 열정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지편집장 고은비**

어느덧 하늘고등학교에서의 세 번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쓰면서도, 벌써 하늘고에서 마지막 봄을 맞이한다는 사실과 하늘나래를 재밌게 읽기만 하던 제가 교지편집장으로 인사를 드리는 지금의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고에 입학하면서 하늘나래를 처음 접하고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학창시절 추억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하늘나래라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때 '교지 제작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런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하늘나래를 제작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상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욕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의 수고로 지금의 하늘나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하늘나래의 완성 단계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하신 김민희 선생님과 제 옆에서 똑 부러지게 도와준 교지편집차장 유선이, 그리고 하늘나래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시간'이 그리워질 때, 다시 한 번 열어볼 수 있는 추억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너는 충분히 기뻐하라
네 길의 끝에 너를 반겨줄 바다 있으니

그는 너로 하여금
넘실거리는 시원한 파도 전할 수 있을 테니

이율민, '푸르른 편지' 중

# 세계시민교육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태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일명 '세시')을 수강하였습니다. 총 10차시에 걸쳐 국제개발협력기구, KOICA, UN협회 세계연맹 등에서 오신 여러 강사님들께서 '세계시민'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빈곤', '인권' 등의 키워드로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Preparing for a career at the UN' 그리고 '희망 운동화 만들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강의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행된 MDGs, 이를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하고자 맺은 SDGs까지. 이 모든 것들을 처음 접하고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이것들이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SDGs 17개의 큰 목표 중 몇 가지를 골라 조별로 '우리만의 SDGs 만들기'활동을 진행했었기 때문인데, 저희 조는 기존의 SDGs에서 큰 목표를 정하고, '면학실 다른 친구의 책상에 불이 켜져 있을 때 대신 소등하기'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SDGs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노력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강의는 'Preparing for a career at the UN'입니다. 이 강의는 UN협회세계연맹에 계신 강사님께서 오셔서 UN의 정의와 역사, UN의 구성과 UN 입사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지만, 평소 국제기구 및 단체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8기 친구들 중에도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세계시민교육 적극 추천합니다! 수업 계획만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직접 디자인하여 남수단 아이들에게 전해준 '희망 운동화 만들기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그려야 남수단 아이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펜을 드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하니, 그림을 그리는 과정 전체가 의미 있게 느껴져 즐거웠습니다.

모든 수업들이 다 감동적이고 좋았기에 여기 다 적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빈곤과 인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인천하늘고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

**글** · 박신애

# 생각하기 표현하기

영화 〈택시 운전사〉의 노란 택시가 갑자기 〈트랜스포머〉 속 범블비로 변신한다면? 당신이 만약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되어 빨간약과 파란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면? 인간은 영화 〈A.I.〉 속 로봇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흔히 '생표'라고 줄여 부르곤 하는 '생각하기 표현하기'는 인천하늘고등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참여형 인문학 강의입니다. 창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고민을 조원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죠. 매주 수업이 진행되기 전 주어지는 사전 과제들을 수행하며 그 주의 주제를 미리 '생각'해보고, 수업시간에는 조원들과 함께 '표현'하며 생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수업이었습니다. 사전 과제로 비과학 영화를 과학영화로 바꾸어 본 후 본 수업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후 각자가 변형한 영화들을 모두 모아 조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저희 조에서는 〈택시 운전사〉와 〈트랜스포머〉를 결합시켜 새로운 SF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택시 운전사〉 속 만섭의 택시는 6 · 25 전쟁 당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파견된 범블비였던 것이죠. 조원 모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모여 만들어 낸 이야기는 마냥 황당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과학성을 갖추고 있었

고, 범인류적인 따뜻한 인간미를 품고도 있었죠. 이러한 저희 조의 창의성과 인류애는 다른 주제의 수업에서도 빛났습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수업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세 장의 사진을 엮어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고,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기' 수업에서는 장애를 가진 태아의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논제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해보았으며, '토론하기' 수업에서는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현실과 가상현실에서의 삶, 진짜 삶과 가짜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죠.

제게 있어서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은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생님께 듣는 좋은 강의에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작품을 매 순간마다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글** · 이다영

# 연구방법론

2017년 여름방학의 끝자락, 학생들 모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연신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입니다. 문 · 이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주목하는 탓에 총 50명의 인원으로 제한된 이 수업은 사이트가 열린 지 10초 만에 마감되고 맙니다.
앞서 설명한 수업은 올 2017년에 처음 개설된 흔히 '연방'이라고 불린, '연구방법론'수업입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연구방법론'수업을 통해 실제 대학에서 작성되고 있는 학위 논문의 방법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조를 편성해 논문 작성의 기회까지 얻고 있습니다.

하늘고에서 지내다 보면 학술제나 보고서작성대회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소위 '논문'이라는 것을 작성하곤 하지만, 실상 그 내용과 수준은 논문이 아닌 보고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NOVA나 t-test 등의 통계분석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과 무료 통계분석 프로그램 KESS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충실한 논문 작성법을 익혀, 향후 대학에 진학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제로 작성해온 논문을 선생님께 제출하고 평가받는 순간은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작성해온 연구계획서를 하나하나 세세히 읽어주시고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에 관해 설명해주실 때면, 지금까지 자신이 작성해온 논문과 보고서들이 모두 안 좋게 보이는 마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 있었던 재미있는 내용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특히 통계분석방법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시들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재미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시 중 하나는 주류 광고에서 소주와 맥주의 종류에 따라 모델의 성별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주 광고에는 여성 모델이 주로 등장하지만, 맥주 광고에는 남성 모델이 주로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설문조사를 통계 분석해 소주의 주 소비자는 남성이고 맥주의 주 소비자는 여성이라는 점에 따라 모델들을 선정한 결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전문적인 분석 방법을 실생활의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뿐 아니라, 같은 관심분야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의견을 나누고 논문 작성에 도전해보는 과정은 저의 생각과 관심사를 확장해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늘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 이외에도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법을 비롯하여 논문 작성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방법론'을 여러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글** · 유진우

# 통일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측과 '대립과 화합'이라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오랜 민족의 숙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분단국가의 현실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교육받아 왔지만, 언젠가부터 점차 통일을 '절실하게' 바라기보다는 '이루어야 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통일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국가로 분리된 채,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북핵 문제까지 더해져 남북 간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통일 과제의 실천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관이 필수이고, 이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확립, 전수될 수 있다. 그 말은, 통일교육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하늘고의 통일교육은 강의식과 모둠토의 방식을 적절히 병행한 모범적 사례라고 느껴졌다. 특히 모둠토의는 자신의 생각을 남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바람직한 통일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친구들과의 의견 교류가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은 '편견 떨치기' 였다. 특히 새터민에 관해 토론할 때, 나와 다른 친구들이 새터민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 그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모두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는 통일 후에 요구되는 사회정책까지도 구상해 볼 수 있었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수업 내용은 대북관계와 외교문제였다.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동물로 비유해 북한을 둘러싼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새로웠다. 교수님께서는 한편으론 우리나라가 북한 외교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숙연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분할안을 배웠을 때다. 북한 분할안은 중국이 제안한 통일안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4개국이 북한을 분할 점령하고 평양을 공동 통치하자는 것이다.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며 나 역시도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동안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외교 문제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도 결정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 간의 입장을 견주고 살피는 외교문제가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느껴져 따분하게 생각됐었는데, 수업을 듣다보니 외교와 정치의 막중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통일교육을 들을수록 남과 북의 경계가 한없이 높다는 것을 깨달아 서글펐다. 세계지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한반도에 그어진 또렷한 남북의 경계선 하나는 단순한 선이 아닌 민족을 나누어 버린 선이었음을 절감했다. 한반도에 가로놓인 선을 지우는 것,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 이라는 지우개를 마련하고 싶은 모든 학생에게 통일교육을 추천하고 싶다.

**글** · 황인건

# 항공교육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방과후 수강 신청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기 강좌, 이과 지망생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하늘고의 대표 특색교육이 있으니, 바로 '항공교육'이야. 강당에 서식하는 졸음 요정을 온몸으로 영접하는 수업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재미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반년 간의 항공교육을 소개해줄게!

항공교육을 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항공교육이라고 해서 항공과 관련된 진로를 가진 친구들만 수강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항공교육 과정은 모두 1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매 차시마다 돌아가며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야.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전문가 분들을 모셨으니 그때그때마다 주제와 구성이 천차만별이지. 문과 친구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세계화 시대의 물류, 교통에 관한 강의부터 이십여 년 경력의 스튜어디스분의 수업, 심화된 공학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항공 공학강의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항공과 연관이 없다고 섣부르게 항공교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만 하더라도 진로는 항공과 관련이 없지만, 수업 과정 중 몇몇 강의에서 내 진로와 관련된 심화지식을 쌓을 수 있었어.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비행체'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신소재공학과를 마음에 둔 친구는 '드론에 적합한 카본 프레임'에 관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지. 또, 함께 항공교육을 수강한 내 친구는 명확한 진로 목표가 없었는데, 항공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항공공학에 꿈을 갖게 됐어.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이과 지망생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할게.

항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 두 가지는 전문성 있는 강연자분들과 항공보고서 대회라고 생각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매 차시마다 다른 교수님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와주시는데,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을 학생인 우리가 만나 뵙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 수업도 수업이지만, 이후에 따로 찾아가서 수업 내용이나 진로와 관련된 심화 내용을 여쭤볼 수 있으니까 (모든 강연자 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 진짜 꿀이지! 혹시 논문이나 책을 읽다가 교수님들에게 이메일로 연락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
두 번째로, 항공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항공논문 대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 혹시 논문대회라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하늘고에 들어오면 논문과 관련된 대회가 엄청 많은데, 모두 고등학교 수준에서 창의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대회거든. 항공 논문에 도전하면서 지식도 익혀 나가고, 자유주제인 만큼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스펙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이상 항공교육 소개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모든 하늘고 친구들에게 항공교육 추천해주고 싶어. 다양한 하늘고만의 특색 프로그램들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하늘고 생활하기를 바랄게!

**글** · 조미성

## Volunteacher

- 니들이 교육을 알아?
- 들어와, 교육진로 희망자
- 지리고 오지는 하늘고 교육봉사 동아리
- 두드림 캠프의 출발지
- 내 꿈을 실현하는 시범강의
-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교육잡지
- 어때, 최고 동아리 인정하는 각?

## 카리타스

- 사랑이 넘치는 봉사동아리
- 하늘고에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 초록우산과 함께 엄청난 캠페인을 진행함
- 가내 수작업 동아리라 카더라.. (실팔찌 장인이 될 수 있음)
- 진로가 뭐든 연관 지을 수 있는 '봉사'
- 하늘고에서 제일 귀여운 선생님이 담당
- 2차 모집 때 사람이 터졌다는...

## S.O.C

- 미술실 발코니는 우리꺼
- 파워블로거의 꿈을 키울 수 있음.
- Source Of Creativity
- 앙 에또띠!
- 사회간접자본 아님
- 동아리 친목은 우리가 짱인 듯
- 입학설명회

## 하늘유네스코

- 국제외교, 교육, 인권, 과학, 기술, 예술
- 예산만 70, 넘치는 자본
- 민사고, 대원외고, 인천 국제고와 협력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 참석 우선 선발권
-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 동아리 시간 외출 가능
- 선후배간 돈독한 우정..♡

## Alchemist

- 하늘고 유일의 화학 동아리 (자칭 이과 최강 동아리)
- 자율적인 화학 관련 실험활동과 보고서 작성
- 많은 과학 자재들이 존재하는 화학실을 사용할 수 있다!
- #알케_드루와 #화학 #이과 #의대 #공대 #모두환영
- #워너비_생기부 #좋은_선배들#



## Archi

- 애들아 견학가자!
- 모형충들...모형제작소...모형부심
-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하는 곳_Archi!
- 자습 안 한다. 예비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_Archi!
- 문과? 이과? 그냥 상관없음.
- Sketch Up부터 3D프린트까지
- 알~~~키모티♡

## COSMOS

- "다른 동아리 다 별 볼 일 없어요." 하늘고 유일 별 볼 일 있는 동아리
- 하늘고 최강 장비(천체망원경 3대+ 쌍안경 5개+현미경) 소유
- 행성부터 은하까지 즐거운 천체관측
- 사이좋은 선후배 관계
- 춘천으로 떠나는 천체관측캠프
- 8기 코스모스는 너야 너!

## Bio Farm

- #하늘고 생물동아리 #아.. 그래요
- 오빠랑 해부하러 갈래?
- 2차로 텃밭 고? (찡긋)
- 하늘고 핫플
- 비싼 현미경 체험기회 dream
- 동아리에서 떠나는 바다&갯벌 여행

## CiPiE

- 용두용미(龍頭龍尾)
- 기장&부기장이 이과인 문과 최강 동아리
- 스타트업 기업 방문/잡지 제작/강연/ 하늘 MBA 캠프 진행/ 판매 활동
- 든든한 기성쌤의 지원
- 선배들의 화려한 진학 (샤샤샤샤샤)
- 소수 정예! 집중 활동!
- 매경TEST / TESAT 수상

## Cielo

- 교내 오케스트라 / 학술제 오프닝 공연
- 교외 음악 봉사 (병원..etc)
- 교양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 음악실 사용 무제한
- 귀여운 음악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생활
- 정복+악기=간zi★

## GLON

- 수학탐구
- 이공계통합연계
- 진로 불확실한 학생 환영
- 교구제작
- 탐구 보고서 작성
- 수학축전 참가
- 선후배간 최고의 친목

## ISHA

- 융합_과학 동아리
- 들어는 봤나_우주먼지프로젝트
- 실험X논문X프로젝트
- 재미 빼면 시체
- 2학년_이과층은_우리꺼
- 신입생은_몰카를_조심하세요
- 8리 들어와 8기_7기가 7력이 좋아

## HIM

- 급식실 옆 물리실
- “왜 저래?” “뭐라는고야~” “갖다 버려!” 유행어의 주인공 정아미 쌤
- 아미쌤을 만나는 성스러운 공간
- 여자 선배 있음
- 지.덕.체를 고루 갖춘 기장 부기장+ 키트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 기회 제공
- 하늘고 미남, 미녀 있음!!

## Psycholic

- 진로가 가지각색
- 실험맨이 되고 싶니?
- 여초 현상
- 셜록홈즈로 빙의될 수 있음
- 거짓말탐지기(라고 쓰고 전기충격기로 읽음) 100% 활용
- 하늘고_점술가가_되고_싶니?_ 타로로_미래를_보자_!

## I-COM

- 다각도 연구로 다져진 문 · 이과 융합 인재
- 하나의 주제를 수학, 생명, 카메팅 등 다양한 관점으로!
- 짝선후배와 함께하는 즐(거운)동(아리)+ 잡지로 기록하는 동아리의 1년
- 다 잘 하는 네가 갈 곳은 여기!, 다 하고 싶은 네가 갈 곳도 여기!
- 수상 실적? 대입 실적? ok! 드루와
- I-COM is coming to town-♬

## 루미난트

- 하늘고 축제의 꽃, 루미난트
- 1층 구석에 있지만 존재감은 미침
- 동아리원들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소수동아리
- 6기 기장의 개혁으로 문, 이과 생기부도 걱정 ㄴㄴ!
- 악기 연주로 스트레스 해소!
- 하늘고 학술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루미난트!!

## HAM

- 하늘고 유일 컴퓨터 동아리
- 4차 산업 시대엔 컴퓨터 관련 직업이 대세
- 아두이노와 지그비를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구현
- C언어, 자바,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 리눅스 (칼리 리눅스, 우분투 등등)를 이용한 서버 구축 혹은 모의해킹
- 여자 선배 있음



## HAPEC

- 하늘고의 유일한 영자신문 동아리
- 요즘은 융합이 대세! 문이과 융합 동아리!
- 관심 있는 분야에서 쓰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는 동아리
- 기사만 쓰는 따분한 동아리 X, 영어 관련 모든 활동을 다루는 동아리
- 영어 못하는 친구들도 부담 X
- 정확한 진로가 없는 친구들, 진로가 다양한 친구들을 위한 맞춤 동아리

## SCHOLAR

- 2017 신설에 지원자 1위 전설의 인기 동아리
- 진정한 21세기 인재상 #창의성 #리더십 #융합형
- 창의탐구세션, 주제탐구세션, 융합탐구세션 + 발표, 토론, 연합컨퍼런스
- 글 잘쓰고 말 잘하는 사기캐가 되고 싶다면 #Welcome to SCHOLAR
- 왜 각종 교내대회 대상의 절반은 스콜라인가 #전체조회킬러
- 학술제 대상, 금상 포함 5개 수상, KSCY, ICR(국제창의탐구학술대회) 최우수 학자상
- 일명 〈논문공장〉... (하지만 논문만 쓰지는 않는다는 _ 최강잼有

## LAWgics

- #문과_최강 #융합적_인재 #법학 #교육 #마케팅 #단체_논문_ALL_수상_100%
- 너의 진로에 맞춘 활동. DON'T WORRY!
- 열정적인 짝선배 짝후배 활동, 친구 같은 선후배!
- 외부대회_물에서도_놀아보자 #KSCY #모의재판 경연대회
-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지는_인생동아리 #세심한 touch!
-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보자 _이곳에서 배워보자
-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최강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음

## Air

- 문이과 고민 없이 들어 올 수 있는 동아리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미를 보장할 수 있음
- 남다른 선배들과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
- 항공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
- 드론, 러더기, 글라이더, RC헬기 등을 비행할 수 있음
- 항공 관련 영화 시청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항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 SCREEN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 그냥 영화 보는 동아리 아니야? : 응 아니야^^
- 영화 감상보다는 학문적 토론, 연구
- 응, 영화관이나 시사회 견학도 연구야
-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영화를 통해 다룰 수 있음
- 영화를 빨대로 모든 분야 탐구 (문이과 상관x)
- 촬영, 편집, 비평 이론도
- 응, 에로 영화도 영화야

## P.I.P

- 융합적 탐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동아리
- 자유로운 의견 제시, 폭넓은 지식 함양
- 선후배 사이 친목 → 꿀잼♡
- 김소현 닮은 7기 기장 + 얼굴천재, 훈훈보스 부기장
- 진로 유목민 대환영 V//^^//V
- 2017 활동 : 2인 1조 주제탐구, 팀별 논문 작성, 영화 분석, 정책 개발 프로젝트

## ON AIR

- 7대 학생회 후보자 토론회 유튜브 스트리밍 (LIVE)
- 선배를 위한 수능 응원 영상 제작 #Facebook_Upload
- 방송국 견학, 영화제 예정
- 장비 제일 고급짐 3억 #Real
- 방송실은 방송부만 (아무나 못 들어옴)
- 무전기로 SIGNAL 보내~♪ #이 무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 VANK

- 하늘고 최강 갓흥동아리(feat. 7기 기장)
- 정치외교러들의 집합소
- VANK 박기태 단장이 칭찬한 그 동아리
- 독도, 한글, 위안부, 사회 이슈,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까지
-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한 선배들
- 존엄한 6기 기장과 개꿀잼 7기 기장 그리고 VANK랑 딱 맞는 성태쌤♥♥
- 많은 캠페인과 매월 발간하는 반크 신문, 외부 활동 및 자유로운 활동

수사노트

# 명탐정 하늘, 비거의 진실을 찾아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다. 의뢰는 정평구의 '비거(飛車)'의 진실을 밝히는 것.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활약을 했다고 전해지며, '하늘을 나는 수레'라는 뜻을 갖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최초의 비행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더군. 우리 의뢰인이 비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머나먼 영종도를 찾아 왔으니, 각 팀별로 비거의 진실을 밝힐 열쇠들을 찾아오도록 하자!

**Team S**

우린 '과연 진주성에서 비거가 날 수 있었을까?'라는 비거의 이륙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진주성 주변의 기상 데이터와 지형 조건을 수집, 분석했어. 분석 결과 진주성 인근은 비거가 이륙할 만큼의 풍속은 물론, 적정 길이의 활주로가 갖추어진 곳이 없어서 비행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찾았지.

**Team T**

우리와 E팀은 '비거가 어떤 비행체였을까'에 의문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어. 비거가 인력 비행체라는 가설을 수립, 인력 비행체 비거의 비행 가능성을 고민했지. 인력 비행체는 말 그대로 인력, 사람의 힘으로 나는 비행체를 뜻해. 과거에는 비행체의 무게가 상당했을 뿐더러 비거를 비행시킬 만큼의 동력을 사람의 힘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인력 비행체는 비행체의 무게가 가벼워진 19세기에야 겨우 성공했거든.

Team E

우리는 T팀과 달리 글라이더 비행체라는 가설을 갖고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대해 연구했어. 과천과학관의 비거 모형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비거는 특히 돌림힘의 평형이 맞지 않아 비행 시 작은 움직임에도 불안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어.

Team A

우린 비거가 실제 비행체가 아닌, 적들을 교란시키려고 만든 플라잉 더미(Flying Dummy)라는 이론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파라더미를 분석하여 임진왜란 당시 만들어졌을 비행체를 개발해봤어. 조선의 기술로도 가능한 비행체를 만들어야 했기에 까다로웠지만 대나무, 명주 등을 이용해 제작이 가능했어.

Team A

우리 팀은 비행체가 발사할 때 필요한 사출 장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 연구해봤어. 양력, 중력, 마찰력 등이 어떤 작용을 통해 비거를 사출했는지, 비거를 사출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방정식으로 논증했지.

Team H

우린 비거 발명가로 알려진 정평구의 평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사료를 통해 살펴봤어. 과거엔 거짓말과 사기에 능한 인물로 평가되다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적 영웅으로 급부상한 것을 통해, 우리는 정평구와 비거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허구화, 영웅화 되었다고 결론 내렸어.

Team L

정평구 이야기의 텍스트 구조와 비거의 기록이 담긴 「오주연문장전산고」, 그리고 정평구의 정평구의 민담을 분석한 결과, 자료의 신뢰성과 비거의 존재성을 의심할 수 있었어. 그리고 역사를 주제로 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연구했어.

Team B

「오주연문장전산고」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해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했어. 그 결과, 내용의 타당성 및 구조상의 응집성, 연결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 부족 등 완성도가 떨어지기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

우리 명탐정 하늘은 각 팀의 내용을 종합해, 비거가 '최초의 비행기'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며 적을 기만하기 위한 무인 비행체로써 사용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의뢰인 또한 정평구와 비거에 대한 의문이 모두 풀렸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2017.○○.○○. 수사노트 작성 끝

**글** · 소가현

# 무한상상과정

Infinite Image Program

I.I.P.(무한상상과정)는 사회에서 문제를 인식한 학생들이 이공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분야를 탐구하여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사회적 기업 'FUNMOVE'의 도움으로 우리학교는 작년부터 전자의수 제작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심화과정(드론 또는 자율주행)을 이수하고 학습동아리 활동도 병행하여 의수 제작 외에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 무한상상과정 전자의수반

전자의수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기초적인 코딩 방법과 123D DESIGN프로그램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디자인하고 3D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자 의수 제작이기 때문에, FUNMOVE에서 디자인한 전자 의수를 직접 조립해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좀 더 심화된 과정에 도전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두이노에 관심이 있어 이와 관련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무한상상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물론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다른 활동이나 지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 2017년 10월 14일~15일에는 인천 지역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무한상상과정 캠프도 진행했는데, 딱딱하기만 했던 이론들을 실습으로 알려주는 과정이 참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글** · 박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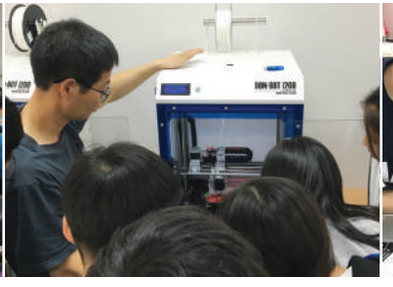
## 무한상상과정 드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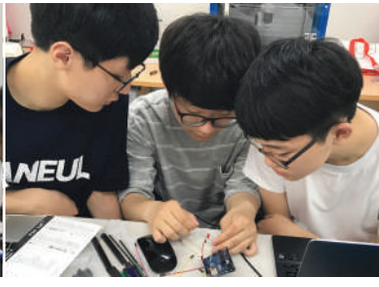
중국의 유명 법률/안보 전문가 니콜라스 그로프만은 2018년에 드론의 사용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 '드론 대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 여름방학 무한상상과정 드론 수업에서 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피치, 롤 등 드론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배터리 용량, 모터의 초당 회전수 등 실제 드론 제작 시 고려해야 할 부품들의 스펙에 대해서 배우고, calibration 과정을 거쳐 직접 만든 드론을 학교 운동장에서 시험 비행하였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드론의 판과 판 사이 빈 공간 때문에 상공에서 흔들리는 점을 막기 위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얇은 판을 삽입하여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던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항공 이론와 드론의 무궁무진한 응용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나는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조종하는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무한상상과정 드론 수업을 추천합니다.

**글** · 김보근





## 무한상상과정 자율주행반

무한상상과정 자율주행반은 작년 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센서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탑재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는 그 중 LIDAR(laser radar)센서를 활용한 turtlebot 키트를 조립하고, 주행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먼저 Ubuntu와 ROS를 컴퓨터에 설치한 후 컴퓨터와 turtlebot을 연결하고, LIDAR센서 시각화 프로그램과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키트를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초과정이나, 준비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자잘한 컴퓨터 오류나 사소한 명령어 실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류 때문에 설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프로그래밍에 매달린 덕분에 2일 차 교육 때 드디어 turtlebot 조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글** · 이정빈

# 인천하늘고 미디어 스피치 연구

정보화 시대가 새롭게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미래 사회의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규정하고, 미디어 스피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스피치 연구'는 SBS와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미디어 융합연구 중점학교 지원 MOU를 체결하여, 기본 소양교육과 심화된 R&E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진행된 미디어 기본 소양교육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뿌리 깊은 나무'를 제작한 박수진 PD의 드라마 기획 강연, '런닝맨' 담당 이환진 PD의 예능 프로그램 기획 강연, 수의사 출신 방송기자인 한세현 기자님의 방송 뉴스 구조 강연 등은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단연 SBS 방송국 견학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라디오 센터, 뉴스 센터, TV 조종실, 드라마 세트장을 방문하며 보통의 방송국 투어와는 차원이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견학은 살아 숨 쉬는 방송국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본 소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총 8개의 팀으로 나뉘어 R&E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학년은 News, Documentary, Education팀, 1학년은 Newspaper, Drama, Radio팀, 그리고 1 · 2학년 팀은 Sports, Entertainment팀입니다. 이렇게 나뉜 여덟 개의 팀은 각자 맡은 매체의 미디어 몰입 기제를 연구합니다. 이처럼 미디어 스피치 활동은 특색 있는 활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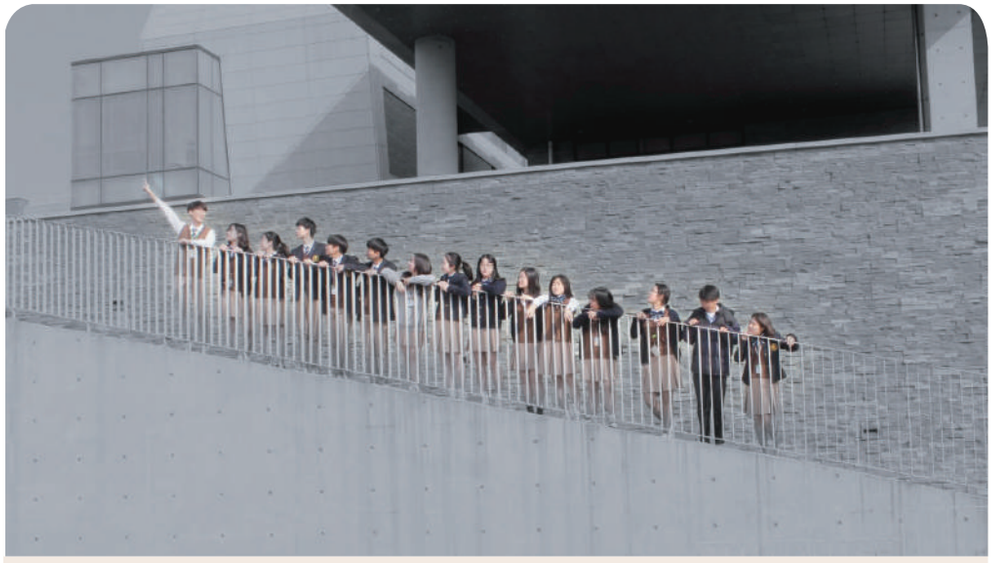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싶은 학생이라면, 방송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학생이라면, 미디어 스피치 연구에 한 번쯤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글** · 황유진

# HANEUL PICK

**학동 PICK!** 일요일 오전, 동아리실에서 드릴 소리가 들려온다면, 〈PRo.Passional〉이 움직이는 것이다. PRo.Passional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3D디자인까지 모두 직접 설계, 개발하는 로봇동아리이다. 막내둥이 1학년들이 뭉친 동아리지만, 현재까지 계단을 오르는 로봇, 미션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로봇, 인형뽑기기계 등 그들의 작품에는 과학적 역량과 창의성, 그리고 열정이 돋보인다. 요즘엔 FTC(FIRST Tech Challenge)라는 세계로봇대회 준비를 목표로 방학도 반납하고 '미션 해결 로봇'제작에 한창이다. 우리에겐 최근 축제에서 인형뽑기기계로 눈도장을 찍은 PRo.Passional! 그날 많은 적자를 보고도,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괜찮다는 막둥이들. 사랑이야♥

**전반기 하태하태** 유난히 SNS 활동이 활발한 하늘고에서, 2017년 가장 핫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는 바로 (지금은 사라진) 〈하늘고 대나무숲〉이다. 학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였을 뿐 아니라 졸업생까지도 추억팔이나 해묵은 사랑고백을 해, 훈훈함을 주기도 했으나, '익명성'에 기대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일부 사용자들의 태도와, 끊임없이 제기되는 운영자에 대한 궁금증에 지쳐 운영자가 직접 대나무숲을 폐쇄하면서 지금은 사라지게 되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하늘고 대나무숲★ 그리울 거야



소리도 않던 별들이
유독 밝아서 먹먹해지는 날

눈 꼭 감아도 좋다

그래서
조금은 이르게
밤을 피하여도 괜찮다

그 하루
이미 충분히
외로웠던 것 아니냐

박동주, '어느 하루'

# 그 시절, 우리가 마음껏 뛰었던 마지막 체육대회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한 체육대회 날이 밝자,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것은 얄밉게도 무더운 햇살이었다. 그와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궁금하기라도 한지 하늘에는 구름 몇 점이 군데군데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각반의 개성이 담긴 반티를 입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걸어 나오면서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힘찬 박수소리를 맞이하며 입장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설렘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다들 포토존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며, 각 반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동안 어느덧 우리 반 입장이 다가왔다. 우리는 상큼한 핑크색 바탕에 꽃들이 박혀있는 반티를 입었는데, 처음엔 반티가 우리들의 험상궂은 인상과 너무 대조적이라 어울릴 것 같지 않다고 여겨졌지만, 갈수록 우리 반의 반전 매력을 잘 표현한다고 느껴졌다. 반별 입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시작되었고, 언제나 그렇듯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훈화 말씀에 집중하는 바람에 운동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오늘 하루 안전하고 신나게 놀아보자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끝나면서 2017년 제7회 인천하늘가족 체육한마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청소년 체조를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 청소년 체조는 중요하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학생들은 햇살을 피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다.

체육관에서는 곧바로 농구경기가 진행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고 하늘고의 높은 농구 실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멋진 장면들이 속출했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농구경기가 끝나자마자 2학년 여학생들의 피구 경기가 시작되었다. 피구공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꿀잼이었다. 그 다음이 바로 농구 올스타전 이었다. 2학년 남학생들과 인천 전자랜드 선수들의 농구 경기는 이번 체육대회의 가장 큰 이

벤트 중 하나인 만큼, '드림팀'과 '패션팀'으로 나뉘어 반 대항으로 치러졌던 농구 경기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처참했지만 과정은 더 처참했다. 그래도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꿀잼이었다. 농구 경기를 했던 친구들은 행복해보였다. 살면서 현역 프로 선수에게 같은 코트 위에서 참된 교육을 받는 것은 절대로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2학년들이 체육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 운동장에서는 1학년 남학생들의 축구가 끝나고 발야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모두 즐거워보였다.

운동장 집합 후, 1학년 응원전이 시작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응원전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육대회의 열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귀여운 아이돌 춤부터 멋진 칼군무 춤에 힙합까지 가세해 다들 각 반마다의 끼를 보여주는 데 열심이었다. 모두들 즐기면서 다른 반의 무대를 감상했겠지만 마음 속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다가오는 자신들의 공연 순서에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야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반의 공연을 볼 수 있었고 그 중 한 조도 빠짐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경희대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시범 공연이 있었다. 공연 무대를 보니 새삼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드림팀과 패션팀의 줄다리기와 씨름 경기가 시작되었고, 각 종목마다의 결과가 하나둘 나오면서 체육대회는 점차 마무리되었다. 2학년의 응원전도 뜨거웠다. 다양한 분야의 무대가 끊임없이 볼거리를 선사했다. 모두 후회 없는 하늘고 마지막 공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덕이다.
대망의 계주 차례가 왔다. 누가 뭐라 해도 역시 체육대회의 꽃은 계주였다. 학급별 대항전 계주 경기도 있었고 팀 대항전 계주 경기도 있었다. 작년에 일어났던 대 역전극이 올해에도 일어날까 다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학급별 대항전 계주 경기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이제는 체육대회의 마지막 경기인 팀 대항전 계주 경기. 출발선에는 선생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다. 시작! 모두가 안간힘을 다해가며 달렸고 주자들 사이에서 바통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계주 경기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던 중 어느덧 마지막 주자간의 대결이 펼쳐졌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패션팀 승리! 간발의 차로 승패가 결정됐기에 그 승리가 더 짜릿하지 않았나 싶다.
계주가 끝난 후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뒷정리를 도왔다. 다시없을 오늘을 추억하며 반별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드림'과 '패션'이란 이름으로 팀이 나뉘어 운동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아무도 어떤 팀이 이겼는지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들 웃고 즐기느라 오늘만큼은 경쟁이 즐거웠다. 승패가 갈렸지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기에 한데 어울려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고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응원하고 운동하는 날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체육대회가 끝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쉬워할 수 없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니까. 밴드부의 드럼소리와 삼겹살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나를 계단 위로 유혹한다. 올라가봐야지.

**글** · 박기철, 권혁진

수학여행 1

#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 제주

신기하게도 내게는 학교에서 놀러가는 날마다 비가 온다는 징크스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과 하늘고에서 맞이한 두 번의 롯데월드 체험활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소풍은 항상 비를 동반하거나 축축한 흐린 날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수학여행도 그랬다. 아니길 바랐지만 제주도에는 어김없이 비 소식이 있었고, 심지어 내가 가는 곳이 아닌 부산마저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을 이렇게 날려버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같이 가는 2,5,6,7반 친구들은 물론, 부산으로 가는 1,3,4,8반에게도 괜히 나의 징크스가 생각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학여행 전날 들뜬 마음으로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같이 밤을 샜더니 벌써 집에서 출발할 시간이 되어 있었다. 새벽 5시, 나는 친구들과 달리 부산에서 출발했고 먼저 도착한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휴대폰 전광판 어플을 이용해 반갑게 맞았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부터 기뻤던 첫 만남은 안 그래도 들뜬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다.

제일 처음 우리는 산굼부리를 갔는데 노랗게 핀 유채꽃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푹 파인 산굼부리 또한 아름다웠지만 노오란 유채꽃은 정말 포토존이 따로 없었다. 그 후 카트는 우리를 다오, 배찌, 우니가 되게 했고, 승마는 우리를 백마 탄 왕자, 공주로 만들어주었다. 메이즈 랜드 입장 전 우리는 맛있는 비빔밥으로 배를 채웠고, 예쁘게 꾸며진 미로를 돌아다녔다. 그 후 정상을 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진을 찍은 성산일출봉이 있었고,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었던 아쿠아리움, 친구와 내가 먹은 밥 그릇 개수만 세도 12개가 넘어갈 정도로 맛있는 흑돼지 불백, 유러피안 스타일과 한국 정서를 녹여낸 아름다운 숙소에서의 잊을 수 없는 치킨까지! 첫째 날은 걱정했던 비도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정말 완벽했다.

하지만 둘째 날이 걱정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둘째 날, 태어나서 술과 가까워 본 적이 없던 나는 오메기술을 만드는 공장 내부의 냄새로 인해 헤롱헤롱한 상태가 되었다. 날씨가 우중충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었고, 카밀리아 힐의 꽃과 정원의 빛깔은 그런 날씨 앞에서도 스스로를 자랑하듯 밝고 화사했다. 어떻게 찍어도 인생샷이 되는 곳에서 친구들과 많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다. 멋진 녹차밭이 있는 오설록에서 강한 바람 맞으며 찍은 사진 또한 아름다웠고, 약간은 값비싸게 느껴졌던 녹차 아이스크림도 지금은 추억으로 기억된다. 제주도 바다를 마음껏 보며

기분 좋은 산책을 할 수 있었던 올레길과 오대규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범섬을 바라보며 했던 기숙학원 이야기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야시장의 별미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시장. 거기서 먹은 국수가 아직도 입에서 맴돌고, 친구들과 함께 쳤던 볼링도 재밌었다. 마지막 후식은 역시 아이스크림!
셋째 날 일어나보니 출발시간보다 10분 늦은 9시... 머리도 못 감고 가방만 얼른 챙겨 나온 탓에 세면도구와 작은 가방 등 많은 물건들을 숙소에 기증하고 와버리는 일도 있었다. 달덩이가 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닌 셋째 날은 부끄러웠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걸었던 날이었다. 주상절리에서 사진도 찍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드립을 쳐보기도 했다. 카우카우에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배부를 만큼 못 먹은 것과 너무 한정된 메뉴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탁 트인 전망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 맛이 두 배가 된 기분이었다.

공항으로 돌아와서 나보다 일찍 출발할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가 먼저 가는 상황이 된 것이 웃기기는 했다(사실 나만 웃긴 듯). 학창시절의 마지막 수학여행에서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간의 아쉬웠던 기분을 다 털어내고 올 수 있어서 후회 없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수학여행. 누군가 내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마도 '2017년 5월 8일 새벽 5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있던 그때'라고 대답하고 싶다. 함께 수학여행을 준비했던 수학여행 준비위원회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함께 해준 모든 6기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글** · 배경민

수학여행 2

# 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기분 좋은 기억 부산 수학여행

2017년 5월 7일, 한 줄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캐리어 열어!" 이 소리가 마치 100m 달리기를 시작하는 총소리라도 되는 듯이 모두가 캐리어에 달려들었다. 하늘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은 칙칙하기만 교복을 벗어 던지고 화사한 사복을 자랑하며 서로의 옷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어느 것이 누구의 옷인지도 모른 채 서로의 코디를 비교하고 옷을 바꿔가며 완성한 최종 코디는 다음 날 아침 꼭두새벽부터 각자의 방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발보다 손을 더 분주히 움직이며 버스를 타기 위해 정문에 집합했다. 사복 패션이 낯선 단짝 친구와 함께 KTX에 오르는 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고등학교 부산 수학여행이 시작되었다.

수학여행 추진위원회가 준비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잠을 자기도 하며 정신없이 기차여행을 즐기고 나니, 우리는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부산에 도착해 있었다. 처음 보지만 친근한 가이드 삼촌을 만나고 처음 도착한 장소는 감천문화마을이었다. '남는 것은 사진'이라는 구호와 함께 감천 문화마을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니며 인생샷을 찍기 위해 날뛰는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아 해매는 하이에나 같았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어린 왕자는 잠시나마 연예인의 기분을 만끽하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자유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 시장이었다. 우리는 시장 깊숙이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 떠났다. 맛집을 찾아가는 도중에도 손에서 먹을 것을 놓지 않는 센스도 한껏 발휘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나서 우리는 비축한 체력을 방출할 수 있는 트릭아트 뮤지엄에 도착했다. 예쁜 사진부터 웃긴 사진까지 추억을 담는 셔터 소리가 온 사방에 가득했다. 인어공주에서부터 스파이더맨까지 주석 쌤의 다양한 변신은 2학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만화 속에서 사진을 찍었으니 이번엔 로맨스 영화 속에서 사진을 찍을 차례. 우리는 노을이 지는 완벽한 타이밍에 미포 철길을 찾아갔다. 가느다란 기찻길에 올라 중심을 잡으며 예쁜 사진을 남기고 친구와 장난을 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기찻길에서 사진 찍던 우리를 보시던 주석 쌤은 한편에 마련된 기차 포토존을 발견하셨고 '우리 반의 특성을 살려볼까?'라는 주석 쌤의 장난기 가득한 한 마디로 우리 반의 본격적인 포토타임이 시작되었다. 점심 먹고 한 거라곤 사진 찍기 밖에 없지만 벌써 배가 고파진 우리는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돼지국밥집을 찾아갔다.
한 그릇 두 그릇 밥그릇이 쌓이고 한 마디 두 마디 이야기가 쌓이며 수학여행의 첫째 날이 마무리되어 갔다. 하지만 수학여행의 밤은 두 번 밖에 없었기에 소중한 이 시간을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우리는 단체로 노래방을 습격했다. 지현 쌤의 감미로운 생방송 무대는 부산을 넘어 제주도까지 적셨고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분 좋은 핑계와 함께 엽떡과 치킨을 흡입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외도로 떠났다. 하지만 '수학여행만 가면 비가 온다'는 하늘고의 징크스를 우리 역시 피해갈 수 없었고, 하늘에선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좌절도 잠시 우리는 새하얀 우비를 챙겨 입고 외도를 돌아다니며 홀린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우비를 이용하여 마법사도 되어보고 상대방의 모자도 잡아보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아갔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우리는 우비소년, 우비소녀에서 벗어나 탐정에 빙의되었다. 하나 둘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누군가는 꿈꾸는 다락방에, 누군가는 인육 만둣집에 들어가 오랜만에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옆방 친구의 비명에 내가 더 놀라며 한 시간이 지나고 탈출에 성공한 친구들과 실패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머리를 쓰니 금방 배가 고파진 우리들은 일명 '낙곱새'를 먹으러 갔다. 쫀득쫀득한 낙지와 사라진 곱창, 탱탱한 새우는 우리의 뱃속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아침에 인생샷 찍기에 실패한 친구를 위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어둑어둑해진 밤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더 베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빛나는 추억을 만들었다.

고된 스케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도착하니 우리를 기다리는 건 수학여행 마지막 밤. 이 밤을 그냥 보내면 바보지. Let's party! 소중한 복층 숙소에서 진행된 4반의 파티의 시작은 역시 야식이었다. 주석 쌤의 통 큰 한 상은 떡볶이부터 시작해 순대, 튀김, 치킨, 만두, 족발까지 완벽했다. 그러나 우리의 위는 더 위대했다. 5분 만에 사라져버린 한 상은 우리가 마피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생각보다 빨리 잡힌 의사 주석 쌤은 말없이 마피아에 빠져들었고 곧 잠에도 빠져들었다. 똑똑한 마피아 보근이와 그 옆을 지키는 성덕 건민이의 서포트는 빛을 발했고 결국 마피아의 승리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재밌었던 마피아는 다음 게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주석 쌤의 동공지진을 일으킨 '당연하지'는 학생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실체를 드러냈다. 주석 쌤의 고민은 또 하나 늘어났고 우리의 밤은 새벽 3시에 저물었다.
셋째 날 아침이 밝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산의 꽃 해운대에 도착했다. 푸르른 바다를 뒤로 하고 우리는 비몽사몽 사진을 찍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시간. 우리는 추억의 바다 속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아쿠아리움에 갔다. 느낌 있게 유리 바닥에 발을 모으고 사진을 찍으며 상어 친구도 보고 재미있는 바다 여행을 했다.

사실상 수학여행의 꽃! 우리는 그랜드 애플을 찾았다. 이 시간만을 위해 준비한 잘 늘어나는 옷. 한정된 시간 최대한의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는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위에 주문을 걸며 후식까지 마치고 우리는 기분 좋게 수학여행을 마무리했다...

**글** · 강지혜, 김수연, 윤예은

# 내 인생의 꽃들을 발견한 2박 3일의 시간

## – 꽃동네 봉사활동 –

'꽃동네 봉사활동'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복지시설에 도착하기 전, 학교에서 받는 사전연수부터가 그 시작이었다. 걱정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수련회도 아닌 봉사활동에 '들뜸'이라는 감정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겠지만, '꽃동네'라는 이름은 화사하고 예쁜 꽃들로 둘러싸여 있는 봉사활동 장소를 연상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봉사활동을 마치 즐거운 여행처럼 설레고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주변에 울긋불긋한 꽃들은 없었지만 나는 2박 3일의 봉사활동 시간을 통해 꽃동네의 이름이 왜 '꽃동네'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꽃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맨 처음 내가 발견한 꽃은 '행복'이라는 꽃이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오성현 군의 강의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 합니다."라는 그의 일성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불행' 해야 할 오성현 군이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그리고 행복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응원해주고 봉사해주기 때문이라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내가 가져갈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처럼만 행복하고 밝게 살라'며 축복해주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의 파고를 겪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중압감에 시달리며 쪽잠을 자면서 공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인해 나 자신을 미워했고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성현 군이 자신을 도와주는 우리의 진심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내게는 나의 '패배감'을 누구보다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울고 있는 나를 토닥여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며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었다. 오성현 군을 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왜 행복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작게는 나의 행복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깊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꽃동네에서 경험한 꽃은 '삶에 대한 경건함'이었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입관 체험'이 있었다.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17살의 나는 관 뚜껑이 닫히고 깜깜해진 짧은 순간 '내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내게 다시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 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내게 있지만 '내일하면 되겠지'하고 미뤄 둔 일들이 실은 너무 많았다. 오늘 하기로 계획했던 공부나 책읽기 등을 습관처럼 아무 느낌 없이 미뤘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도 나중에 마음을 표현해야지 하고 지나친 적도 많았으며, 상처를 주고도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지나친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내일이 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두렵고 미안하고 서러워졌다. 입관 체험 이후 나는 아주 '열심히'살기로 결심했다. 내게 주어지는 '내일'이 헛되이 사라져 나중에 진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후회만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모두를 마치 '오늘'만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낼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찾아낸 꽃은 '공감'이었다. 장애 체험을 통해서였다. 내가 언어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가정 하에 생활해 보았는데 불편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중학교 시절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찾아내 구청에 신고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직접 내가 눈을 감고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걸 하고 후회가 되었다. 눈이 안 보이니 한 걸음조차 내딛기가 힘들었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니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장애를 갖고 생활해보니 그 분들의 불편함이 피부로 느껴지며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내가 체득하게 된 '공감'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장애인은 물론이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갖게 된 꽃은 '사랑'이었다. '애덕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직접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나는 내게 봉사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신 이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성함이 우리 할머니와 같은 '순애'라는 것을 알고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내 맘과 다르게 이모님께서는 내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으셨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꺼려하셨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진심을 다해 이모님께 종알거리며 말을 걸기도 하고 이모님께서 열심히 색칠하신 그림이 예쁘다고 칭찬해 드리기도 하면서 마음을 여시기를 기다렸다. 끝나갈 때쯤 이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학생과 함께 한 시간이 참 즐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내 진심이 통한 것도 기뻤고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면서 다시 내게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모님이 감사했다. 짧은 하루 동안 이모님들과 생활하면서 내가 배운 것은 '사랑'이었다. 이모님을 도와드리면서 나 역시 이모님께 사랑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은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과는 또 다른 소중한 느낌이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을 드린 데 대해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 주시고 내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꽃동네 봉사활동은 그곳에서 넘쳐나게 자라나고 있는 많은 '꽃'들을 직접 대하고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생생한 배움의 장이었다. 여기서 배운 '행복', '공감', '사랑'에 대한 가치를 절대 잊지 않고 늘 실천해 나가며 내 삶에 대한 진지함과 경건함도 놓치지 않고 싶다.

**글** · 조예은

# Cheer For 3rd Grades

Our 3rd grade students took the CSAT on November 16th. CSAT is a very important test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t decides university they will go. All of them studied hard to achieve their dreams, so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had prepared something to encourage them.

First, we did flash mob. A lot of students practiced “Dream High” and “붉은 노을” for several weeks. In school play field, they showed what they had prepared and it was succeed. The field was full of students and they enjoyed it by singing  together. Teachers also said that they were touched.

Second, we made two types of UCC. One is cheering massages by every club in Haneul Academy. Some of them were dancing, singing, and even doing parody a movie. They were all witty and everyone could not stop laughing while they saw that. Another UCC is music video of “I Luv It”. Students did parody a song and rewrote the lyrics. Some students showed great performances. In addition, HAFS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sent a meassage that cheered Haneul students for CSAT.

3rd grade students made good results with these cheers. After graduation, we hope you will have a happy day with good memories at Haneul High School!

글 · 김혜은, 송다혜

# 6 can do it!.
# 7 up!

▶▷1일차

2017년 12월 27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Haneul Academy Festival의 막이 올랐다. 전통처럼 내려오는 해당 기수의 숫자를 활용한 festival의 제목 만들기는 올해도 진행되었는데, '6개장 7면조'를 필두로 한 센스 넘치는 제목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6(You) can do it! 7(Cheer) up!'이 전교생 투표를 통해 제목으로 선정되었다. 교장선생님의 'you can do it, seven up'이라는 굉장히 신박한(?) 제목 변화로 시작한 이번 축제!



언제나처럼 오케스트라 cielo가 첫 무대를 맡았다. 드럼까지도 함께 한 이번 무대에서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역동적이고 신나는 곡으로 학생들의 기대를 고조시켰다. 이후 이어진 최우수 논문 발표는, 급식이 삶의 낙인 하늘인들에게는 최적의 주제인 'DERAM과 PEATHMAX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율적인 급식실 자리 배치를 위한 공간분석'으로 충분한 호기심과 자극을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엄청난 수학기호와 전문용어의 등장으로 인해 1학년들과 인문계 학생들은 서서히 정신을 잃어 갔다... 이후 이어진 TEDx는 Haneul Academy Festival에서는 처음 소개된 코너로, TEDx 학습동아리가 TED 본사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고 한다. '비상'을 주제로 세 명의 학생들과 Cowie 선생님께서 멋진 강연을 해주셨다. 특히 Cowie 선생님의 한국 입성기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세 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로도 서로 다른 반성과 깨달음을 찾아내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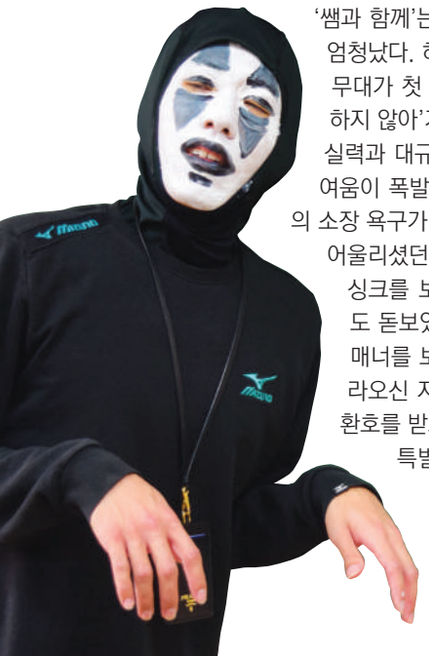
이제 진정한 축제의 시작, 일 년에 두 번만 찾아오신다는 그분! 고기님과의 영접의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가 체육관에 있는 동안 여사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고기를 맛깔나게 구워주신 덕분에 급식실뿐 아니라 복도에서부터 고기님의 향기가 풍겨왔다ㅠㅠ 다 같이 성난 코뿔소들 마냥 지정된 반 테이블로 달려가 맛있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자 2학년 1반의 요란한 건배사를 시작으로 이곳저곳에서 회식자리 저리가라가 부럽지 않은 건배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든든하게 먹고 난 후, 동아리 부스가 시작되었다. 이번 동아리 부스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각 부스들의 작명 센스였다. S.O.C부터 Cipie, GLON과 Archi, P.I.P와 BioFarm 등 많은 동아리들이 센스 있는 부스 이름과 함께 꿀잼 보장 활동들을 진행했다. 동아리 부스 진행이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학술제 오프닝 영상에 잠깐 출연한 그분이 진짜 도둑으로 등장하셨다!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주호쌤의 달리기가 너무 빠른 나머지 도둑을 본 사람은 손에 꼽으며 포상자에게는 두둑한 상품이 전달되었다고... 소문만 전해진다...

▶▷2일차

Haneul Academy Festival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학술제'의 의미를 갖는 오전의 논문 발표가 각각 강당과 체육관, 201호와 309호에서 진행되었다. 모두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하늘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후, 개인 부스가 진행되어 라면부터 디저트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었다. 점심식사와 개인 부스로 배를 가득 채웠으니 이제 소화시킬 시간! 스포아츠 공연을 시작으로 체육관에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보컬과 작곡, 난타와 가야금 그리고 피아노까지 1년 동안 스포아츠 시간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다.



'쌤과 함께'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코너로, 학생들의 환호성과 열기가 엄청났다. 하늘고 간판급 가수 김경훈 선생님과 1학년 김민지 학생의 무대가 첫 시작을 열었고, 최해인 학생과 오대규 선생님의 '널 사랑하지 않아'가 뒤를 이었다. 어반자카파가 찬조공연을 온 듯한 엄청난 실력과 대규쌤의 스위트한 멘트가 모두의 심장을 심쿵하게 했다. 귀여움이 폭발했던 정아미 선생님의 무대에서는 아미쌤을 향한 학생들의 소장 욕구가 솟구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찰떡 같이 교복이 잘 어울리셨던 재홍쌤은 빙글빙글 귀여운 춤과 아이유 뺨치던 기타 손 싱크를 보여주셨으며, 철우쌤의 홍~호옹~ 콧소리는 노래 속에서도 돋보였고, 승호쌤은 'I love SH' 옷을 입고 가장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주셨다. 또한, 자칭 '홍대 버스킹 컨셉'으로 무대에 올라오신 지현쌤은 언제나처럼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폭발적인 환호를 받으셨고, '예일리'김예인 학생과 최강매력 최상규 선생님은 특별히 2년 연속으로 무대를 함께 해 주목을 받았다. 이 팀은

듀엣곡의 교과서라는 'All For You'를 선곡했는데, 상규쌤에게는 쵸큼 무리였는지 김예인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기시며 립싱크로 열창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ㅋㅋ 연극배우라는 화려한 과거가 있으신 이재선 선생님은 이현우 학생과 함께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김창재 선생님과 김하연 학생은 만인의 18번 '사랑비'로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떼창을 이끌어내며 멋진 엔딩을 장식해주었다.

이어진 코너는 'gender gender change' 바로 남장여장 대회! 내 눈 썩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본 대회의 시작은 다행스럽게도 '검정고무신'을 그대로 재현한 1학년들 덕에 상큼한 무대로 시작됐다. 옛날 교복과 빨간 네모가방 등 고퀄리티의 소품과 개다리춤은 엄마 미소를 짓게 했으며, 도깨비 무대에서는 귀여운 김신과 좀 많이 큰 은탁이가 등장해 일품의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남장여장 무대에서도 역시나 슈퍼스타가 탄생했는데, 바로 이율민 학생이었다. "오빠 좀 괜찮다" 한 마디에 수많은 2학년 누나들은 여심(?)을 저격당해 버렸다...

2학년들은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공이 쌓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2학년 1반은 '너의 이름은'을 패러디했는데, 심심해서 스모를 배우고 난 후 좀 마아아아않이 바뀐 미츠하가 등장해 무대 밑에까지 내려와 객석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다. 6기의 댄싱머신 김민지 학생은 마이클 잭슨으로 환생해, 문워크를 멋지게 재현하며 오늘도 수많은 여성 팬들을 확보했고, 그녀와 함께 등장한 주토피아의 '가젤'최해인 학생은 현란한 앞머리와 함께 댄스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번 학술제로 최해인 양이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는 곽 모 학생의 예언이 적중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여기가 하늘고인지 하늘예고인지 헷갈릴 만큼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들이 끼를 발산했다. 〈주작스타 K〉에서는 기타 연주를 위해 부산에서부터 인천까지 올라왔다는 배경민 학생과 권종현 학생이 기타 이중

주로 사계절 메들리를 연주해 분위기를 띄웠다. 이민수 학생과 조병교 학생은 과연 인간의 입으로 내는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다채로운 비트박스 무대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등장한 래퍼들은 절로 어깨가 들썩여질 만큼 스웨그 넘치는 랩을 들려주었다. 특히 이들과 함께 나온 매력적인 하이톤의 보컬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하늘고의 자랑, 주작의 아들, 세기의 바이올리니스트 뱅쿡(a.k.a 이병국)님의 바이올린 무대도 빠질 수 없었다. 변정환 학생의 표정 변화와 반응도 재밌었지만 더욱 웃겼던 것은, 그의 손목 투혼이 만들어낸 광경은 흡사 집단 숭배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던 무대는 바로 피아노 배틀이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신들린 연주는 그들의 손가락이 정말 열 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다. 마지막 무대는 바로 자칭 '하늘고 최강 여신들'의 댄스 무대였다. 눈과 귀가 모두 열리는, 정말 흥이 돋는 무대였다.

그리고 Haneul Academy Festival의 꽃, 댄동&힙동&밴드부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댄스부 공연의 열기는 대단했다. 1,2학년 댄스부원들의 다양하고 화려한 무대에 모두가 열광했고, 여기저기서 댄스부원들의 이름을 구호처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이번 댄스부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5기 댄스부의 투톱 한동훈, 정재훈 선배님의 등장이었다. 깜짝 등장한 그들의 모습에 6기들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7기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곧 그들의 춤선에 매료되어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곡이 나올 때쯤에는 모두... 목소리를 잃었다...

댄스부 무대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힙합 동아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모두가 약속한 듯이 무대 앞으로 달려 나갔다. 랩을 알든 모르든, 모두 Put Your Hands up! 함께 분위기를 즐겼다. 특히, 하늘고의 첫 여성 래퍼인 1학년 김지인 학생의 찰떡같은 랩이 매우 인상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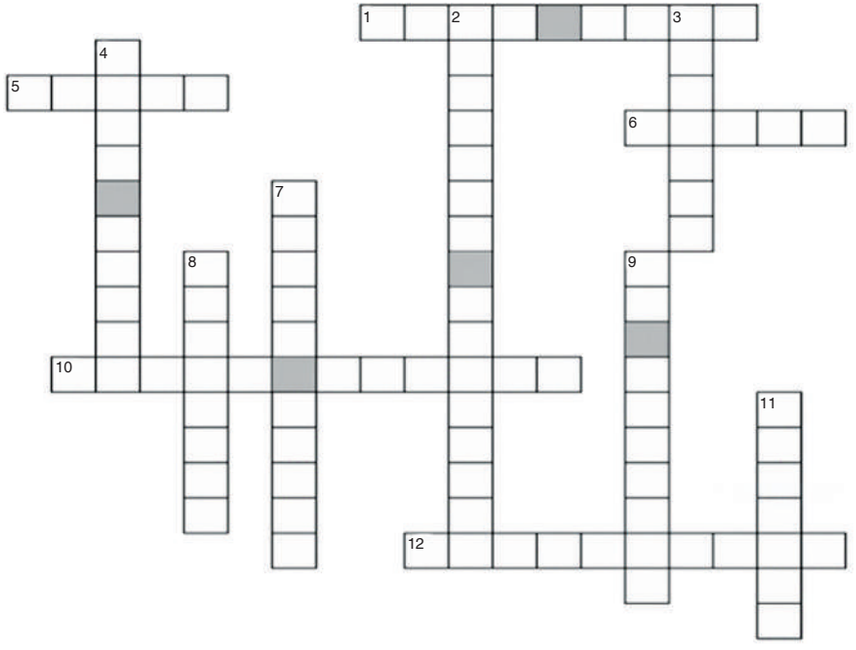
었다. 무대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 즈음, 힙동의 아버지 5기 서정훈, 김민철 선배님이 등장해 무대는 더욱 뜨거웠다. 특히 김민철 선배님이 곧 해사에 입대하신다고 하여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너도나도 사진에 손가락 끝이라도 걸려보겠다며 우르르 달려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서정훈 선배님이 이끄시는 힙합크루 Space Out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선배님들이 한 곡 멋지게 들려주지 못하고 떠나신 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축제는 어느덧 절정으로 치달아 마지막 무대인 밴드부 공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첫 두 곡은 잘 몰라도 즐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모두들 처음부터 흥에 취해 심하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이후, 밴드부의 살아있는 전설 5기 오성민, 김도형 선배님의 '바람기억'이 흘러나왔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다는 이 곡을 놀랍도록 소화해낸 두 분의 클라스에 모두 감탄했다. 마지막 세 곡은 전 학생 모두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 모아 떼창을 불렀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언제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인 '붉은 노을' 전주가 나올 때는 모두가 마지막까지 즐기려는 듯이 열창하고, 뛰고, 웃으며 축제를 마무리했다.

Haneul Academy Festival을 보면서 하늘인들은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정말 화끈하게 잘 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일 년에 단 한 번,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는 특별한 날인만큼,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면학실 옆 자리에서 담요를 뒤집어쓰고 공부하던 친구들도 모두 무대 위에선 멋진 주인공으로 빛났다. 이번 축제를 보며, 우리 모두가 하늘고를 나서며 보여줄 더욱 빛날 모습들을 잠시나마 그려 본다.

**글** · 김하연, 김영서

# Haneul high school Crossword



**DOWN**

2. Students have to get up at 6:20 to do this. Everyone hates it
3. Half-underground. 교무입학부 is stuck here in November trying to select new students for haneul
4. Teacher of English conversation and writing
7. Allows connection with the outside world. Many computers do not work
8. _____ Image Program (I.I.P)
9. Located in both 4th and 5th floor but the entrance is only in the fifth floor
11. School Motto : Dream & _____

**ACROSS**

1. Each students has one in the hallway (a.k.a. storage for snacks)
5. The space that connects 교과A and 교과B Purpose is unknown.
6. Good _____ check (G.N.C)
10. With SBS. 문과 pride!
12. Global _____center (G.L.C) : where we sleep

다른 이들 모두 태양을 향해
걷고 달리고 고꾸라져 기어도
당신만은 거기에 외롭게 머물러
당신만의 행성을 관측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나는 천천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모아
꽃다발을 엮어 당신의 발밑에 내려놓을 테니
당신의 행성을 발견했을 때 가지고 떠나라

김유진, '당신의 행성' 중

하늘고 2년차 선배들이 들려주는 좌충우돌

MONDAY TUESDAY WEDNESDAY

# SSULS'DAY FRIDAY

## # 여기... 사람 말고 다른 것도 사나요?

### ssul1 기쁘다 ㅇㅇ 오셨네

시험 기간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는 찬송가가 들리고, 화장실에서는 드르륵 소리가 반복된다. 너는 계속 공부할 수 있겠어?

### ssul2 너 누구야?

A호실은 복도 쪽에 있어서 밖에서도 다 보이는 곳이었어. 어느 날, 다른 방 친구가 A호실 앞을 지나가는데 침대에 어떤 애가 앉아 있길래 A호실에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쓰는 룸메 이름을 불렀는데 걔가 없었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다음 날에 복도에서 A호실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룸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실루엣이 완전 룸메랑 똑같아서 이름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정작 방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이후로도 아침마다 분명히 옷장 문을 닫고 등교하는데 체크표에는 매일 열려있다고 적혀 있다거나, 열려 있는 걸 본 룸메가 닫아주거나 그랬대.

또 어느 날 밤에는 룸메 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다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끼기기기직!' 엄청 오래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생활관에는 오래된 창고 같은 거 없는데.

### ssul3 핑크 후드티의 방문

자고 있었는데 자꾸 누군가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어. 눈을 떠보니 화장실 옆 사물함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핑크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온몸에 피를 묻히고 있었어. 끔찍한 생각이 들어 잠에서 깨 화장실로 갔는데 문이 끝까지 다 안 열리는 거야. 그 안 열리는 문틈 사이로 아까 봤던 핑크색 아이가 보였어.

그 날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나? 연달아 가위에까지 눌렸는데 눈조차도 못 뜨겠더라고. 몸을 움직여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드디어 몸이 조금 풀렸어. 오예. 일어나자마자 불을 켜고 룸메들을 깨우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ㅠㅠ 그런데 그때 친구 A가 일어나서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불을 켰어. 나는 이 내용들을 잊지 않으려고 적고 있었는데, 또 내 앞으로 핑크색 무언가가 지나쳐가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라.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친구 A는 내 룸메가 아니라는 거.

### ssul4 한밤중에 맞이하다

룸메가 자꾸 자다가 일어나서 벽에 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 ssul5 발 달린 가방

수학 시험 보기 전날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가방에서 자꾸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꼭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넘어지는 소리라기엔 너무 오랫동안 나는 거 있지.

## ssul6 그럼 나랑 바꾸자!

여름방학 때 일이야. 룸메 네 명 중 한 명이 비잔류인 틈을 타서 그 친구의 생활관 침대는 게스트 침대가 되었어. 여느 날과 다름없이 게스트 친구 A와 원래 룸메 3명 B, C, D는 담소를 나누다 잠을 자려고 누웠어. 그때, 평소 복도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버릇이 있던 게스트 친구 A가 자기 머리 위로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처음엔 B, C, D 모두 이 말을 무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C가 심한 악몽에 시달렸지. 악몽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C를 진정시키기 위해 B가 일어나 다가갔고, 게스트 친구 A는 분명히 머리 위로 누가 지나갔다고 소리치며 급히 불을 켰어. 하지만 그 방에는 룸메들 외엔 아무것도 없었지.

그들은 평소 자주 가위에 눌리던 C의 자리가 문제일 것이라는 불확실한 결론을 내렸고, 오지라퍼 A는 자신이 직접 C의 자리에서 잠을 청하고 이것이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대. A의 도전이 있던 날,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은 건투를 빌어줬어.

다음날, 태어나 단 한 번도 가위눌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A는 C의 자리에서 잔 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들려줬어. "C야, 꿈에 네가 나왔어. 내가 너랑 어릴 적에 하던 쎄쎄쎄를 하고 있지 뭐야? 그것도 한 시간씩이나 말이야... 그러다가 네가 문득 나에게 묻더라고. —A 너는 내가 부럽지 않냐고—" 그래서 A는 "C! 난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부러워 ㅎㅎ" 라고 답했대. 그러자 C가 쎄쎄쎄를 멈추더니 A의 팔을 잡고 "그럼 나랑 바꾸자! A야, 나 무서워"라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A는 팔을 뿌리치면서 잠에서 깼대. 과연 이 방은 어딜까? 신기한 건, 그날 이후 C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야. A에게 가끔 이상 현상이 보일 뿐이래.

## ssul7 모두들 하임으로...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룸메들이랑 불을 끄고 한 10분 정도 떠들다가 잠들었어. 그런데 난 운이 나쁘게도 가위에 눌리고 말았지. 눈은 떠있고 아까 잠든 자세 그대로 누워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되게 큰 남자가 침대 왼편 수건을 놓는 선반에서부터 옆으로 누워내 허벅지 위에서 날 쳐다보며 웃고 있는 거야. 다리의 형체는 없고 벽을 통과해서 상반신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 가위에 눌리면서도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려 노력하면 깰 수 있다' 고 들었던 것이 생각나, 그 남자랑은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내 모든 정신을 새끼손가락에 쏟았어. 열심히 움직인 탓인지 아침방송이 나올 때쯤엔 다행히 일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날 점심, 난 룸메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며, 밤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내 룸메도 어제 눈을 떴는데, 검은 다리 형체가 자기 배 위에 눌려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검은 물체가 침대 옆 선반에서부터 나와서 자기를 눌렀대. 아마도 우리가 누워 있던 침대 두 개를 가로질러 가로로 누워있었던 거겠지? 아, 그땐 진심 급식이고 뭐고... 식판 엎고 내가 아무리 불교라도 하임가고 싶더라.



## #오마니 없이 살아가다 생긴 '오마낫!' 이야기

### ssul1 과도한 옷장 장난, 벌점 5점?

생활관 방을 바꾸는 날, 친구 A와 C가 B를 놀라게 하기 위해 옷장에 숨어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 자동 잠금인 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옷장에 숨는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C가 문을 실수로 쳤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야. 어쩔 수 없이 예전 옷장 주인을 찾아갔는데도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전전 옷장 주인까지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까먹었대. ㅠㅠ 어쩌겠어? 선생님께서 마스터키로 열어주셨지... 그렇게 제대로 된 장난도 쳐보지 못하고 벌점만 5점이나 받았대. 오마낫!

### ssul2 앗, 뎨동합니다아!

3층에 혀 짧은 친구가 있었어. 4층으로 이사한 후로도 역시 잘 지내고 있었지. 어느 날, 일찍 씻고 자려고 면학이 끝나자마자 혼자 방으로 뛰어왔대.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평소와는 달리 이불은 침대 가운데 선반에 걸려 있고, 바람막이는 바닥에 널려 있고.. 완전 난장판 그 자체였대. 그런데 다 학년마다 더럽기로 유명한 애들 있잖아? ㅋㅋ 마찬가지로 더럽기로 소문난 친구가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방 이름표를 봤는데 동아리 부기장 오빠 이름이 있었대. 너무 놀라서 불도 못 끄고 뛰어나왔다는 ㅋㅋㅋ 다들 조심해, 오마낫!

### ssul3 거기 잠깐, 황민현?

한 친구가 아침에 황민현과 인사를 하면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려고 벽에 포스터를 붙여놨대. 어느 날 밤, 그 친구가 혼자 침대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실수로 놓친 손전등이 하필 황민현의 얼굴을 비추자,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대. 그 이후로 친구는 지금 포스터를 뗄까 심각하게 고민 중 ㅠㅠ 자신의 love라고 포스터를 붙여놓는 친구들이 많은데 밤에 보면 그저 무섭기만 할 뿐. 오마낫!

## ssul4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떤 친구가 호실 이동하는 날, 미처 짐을 다 챙기지 못했나봐. 자신의 주황이를 그만 서랍에 두고 가버렸지 뭐야. 역시 남자랑 여자랑 방을 바꾸는 층은 조심해야 돼. 바뀐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기를 넣으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오마낫!

## ssul5 내 신발은 너의 집이 아니야!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냈어. 신으려고 발을 넣었는데, 뭔가 물컹거리는 거야. 무서움 반 궁금증 반으로 손을 넣어 꺼내보니까... 무엇일까요?... 오마낫 !

## ssul6 내 심장을 뛰게 해줘서 고마워

어느 여름날 밤, 씻고 나와서 무념무상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보며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유리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얼굴이 점점 나타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발작을 일으키며 "뿌에에에ㅔㅔㅔㅔ엑!!" 소리를 질렀어. 진짜 이렇게 질렀어ㅋㅋㅋ 알고 보니 라면을 먹으러 베란다로 나간 내 룸메지 뭐야 ㅋㅋㅋ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짜릿해. 오마낫!

## ssul7 시간을 달려서

1학기 시험 기간에, 너무 졸려서 잠을 안 자면 면학 1타임을 죄다 날릴 것 같았던 날이 있었어. 그래서 석식 시간 시작하자마자 생활관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알람도 7시에 맞춰두고. 꿀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ㅇㅇ!" 하는 거야!!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내 눈 앞 선생님 실화? ㅋㅋㅋ 나는 7시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10시더라...ㅠㅠ 저녁 시간 생활관에서의 꿀잠은 위험해.
오마낫 !

# # 내 호실 속에 저장 !

### ☑ tip1 샤워 후 물이 뚝뚝 흐른다면?

새 수건을 바닥에 깔기보다는 한 번 사용했던 수건을 이용하라. 하늘나래를 읽고 있는 너! 지금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 그렇지만 막상 살다보면 깔아놓는 친구 한 명도 없음. '당신이'실천하세요!

### ☑ tip2 페브리즈는 공중에 뿌린다?

공중에 뿌리면 '멩? 저희 뭐 먹었어요ㅎㅎ'스러운 냄새가 나기 일쑤! 벽에다 뿌린다면 '아 저희는 지친 일상을 청정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위로받기 위해서 그저 한 번 공중에 뿌렸을 뿐이에요ㅎㅎ'스러운 냄새로 자연스러운 공기 상태를 만들 수 있음. 전투식량을 해치운 그곳에 가볍게 칙~ 뿌려준 후 화장실 쪽 벽에 뿌려보자! 빅*리아 시크릿 쉬어러브가 그렇게 좋다던데...쿨럭쿨럭

### ☑ tip3 생일선물 뭐주지?

룸메의 생일 선물을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식량을 가져오기엔 심장이 쫄깃쫄깃할 때라면, 빨래 종이는 최고의 선물! 나머지 룸메 세 명이서 빨래 페이퍼를 한 움큼 가져다준다면 생일인 친구는 편한 생활관 life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이것이야말로 ☆빨래 종이 만수르☆

### ☑ tip4 잘 정한 파티 날짜, 열 국수 안 부럽다.

호실 바꾸기 전날 또는 전전날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들의 룸메들과 함께 국수파티를 열곤 해. 이런 날은 생활관 말고 학교 매점 옆 정수기에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오는 게 좋아.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거든. 혹시 젓가락이 없다면 4층 세탁실 제일 안쪽 세탁기 옆에 가봐!

**글** · 박선, 이지호

HANEUL

# 학생회 활동을 돌아보며

안녕하십니까. 6대 학생회장 김지수입니다.
두근거림보다는 약간은 고통에 가까운 떨림 속에서 하늘고등학교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제가, 어느덧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돌아보는 글을 적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저라는 미완의 존재를 끊임없이 도와준 학생회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기에 5대 전교 부회장과 6대 전교 회장으로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만 가득했던 저를 이끌어주신 5대 학생회 회장단 김승일, 이주철 선배, 후배임에도 항상 존중해주시고 조언해주셨던 각 부서의 부장 선배님들. 서툴렀던 저의 말에도 항상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따라준 학생회 차장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저의 부족한 리더십 속에 정말 고생 많이 한 우리 6대 학생회 부회장 민우, 민수. 모든 행사의 총괄을 맡아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준 문화체육부 현진이, 성혁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같이 시설물을 점검하러 다닌 학교안전부 지훈이, 호성이.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게시판 관리부터 페이지 관리까지 해낸 학교홍보부 지용이, 재연이. 하늘머니 발행하느라 귀교일도 반납했던 기획재정부 유석이, 혜원이. 동아리부터 아나바다까지 모두 기획하고 관리해준 학생활동지원부 성현이, 예은이. 모두들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학생회 활동으로 가득한 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성장'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족했던 제가 학생회 임원들을 직접 구성하며 '공정성'을 배웠고, 체육대회와 학술제를 진행하면서 '책임감'과 '사람을 대하는 법'을, 할로윈 행사를 하면서 '일의 순서'를 알았기 때문이죠. 또, 등교 맞이 행사를 통해 '리더의 무게'를 알았고, 아나바다를 통해 '생각의 다양성'을 깨달았습니다. 활동 당시의 고된 발자취가 '성장'으로 변하니 앓던 소리를 하던 제 자신이 괜스레 부끄러워집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와 저희 6대 학생회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항상 학생회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마음껏 날개짓을 할 우리 8기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도약할 우리 6,7기 학생 여러분! 제가 어딘가에서 이러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옳은 선택은 없다.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하늘고등학교에 와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들 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성적과 친구 문제 때문에 지쳤었고, 무거운 책임감에 무너져 내렸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럴 때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후회 대신, 노력해나가는 품격 있는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이 됩시다!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성장하는 학생회장 김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지수

**학생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하나만 말해주세요.**

김지수 모든 학생들이 1년 동안 기다려온 '학술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학생회 친구들 모두 정말 수고 많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 고생 많았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ㅎㅎ

이민우 '하늘고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하늘 아카데미 페스티벌(학술제)을 준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 과정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힘들었지만, 우리 6기의 마지막 행사였던 만큼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했거든요.

이민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할로윈 이벤트였습니다! 학생회 활동 중 처음으로 1학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행사였거든요. 또, 약간의 의견 충돌이라도 서로 양보하며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졌고, 하늘고 학생 모두가 이벤트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생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추진했는데, 중점을 두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지수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지만, 언제나 제가 중요한 전제로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매개'가 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학생, 선생님, 학교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절충안을 찾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이민우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약을 이행'하고 '학생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는 정기적으로 대의원회의를 열고, 선생님들과 주요 안건에 대해 회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민수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활동은 역시 하늘고 활동의 꽃! 학술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옹골차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기도 했고, 또 이를 준비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분명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며 해결했는지 알려주세요.**

김지수 작년에도 부회장을 했지만, 회장으로서의 무게는 다른 것 같아요. 학생회 일을 하다보면 임원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무게가 힘들었지만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서 극복해낸 것 같아요.

이민우 특히 올해 학생회에 외적인 갈등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명확한 해명과 공지를 통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민수 활동 중간중간에 의견 충돌도 몇 번 있었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행사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절대! 좌절하면 안 되고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서로의 의견을 적절히 절충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이끌 다음 학생회에게 해줄 조언과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김지수 학생회는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항상 상의해서 결정할 것! 그리고, 하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항상 학생회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기 친구들도 응원해줄 거죠?

이민우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리저리 치이며 나름 중압감도 있었고, 특히 면학시간을 많이 뺏겨서 충분한 면학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었어요 ㅠㅠ 차기 학생회 임원이 되고 싶은 7,8기 학생들은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수 다음 학생회도 모두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보람찬 활동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학생회를 믿어주고, 행사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하늘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 · 하늘나래



# HANEUL PICK

## 논술 PICK!

도전하는 자는 많지만 좀처럼 합격자는 나오지 않는 대입 논술전형에서 당당하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재학생이 있어 하늘픽으로 선정했다. 3학년 김혜윤 학생은 매 학기 교내독서인증제 1급을 취득하며 여러 분야의 독서활동으로 독해력을 신장하고, 지속적인 글쓰기(3년간 최소 400자 분량의 독후감 200편 이상 작성, 영자신문동아리 기사 작성, 교내논술대회 수상)를 통해 점차 글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3학년이라면 논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에 꼭 대학 기출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라고도 조언했다.

그러나 논술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니기에 꾸준한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며, 입시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논술전형뿐 아니라 학종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김혜윤 학생처럼 말이다.

## 올해의사진

귀신 분장을 한답시고 턱밑에 플래시를 들이밀거나 빨간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는 초딩짓은 그만! 전문가의 할로윈 분장, 구경들 하시게...

미술 전공자 2학년 전소민 학생이 할로윈 이벤트로 분장했던 날 우리 모두 지림...

## 58쪽 영문 십자말풀이 정답

Answer Key
1. Home base
2. Morning Exercise
3. Seminar
4. John Cowie
5. Agora
6. Night
7. Media Space
8. Infinite
9. IT Library
10. Media Speech
11. Passion
12. Leadership

# Pros of the penalty system

**Pros of the penalty system**

We have a negative opinion of the penalty system leading up to the resignation. However, when viewed objectively, the penalty system must be a vital device in schools. Through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enalty system, which is buried in a number of negative views. First, penalty system keeps order in schools. The penalty system makes students keep in order by punishing deviant behavior. If the penalty system disappears, the teacher's control for the student will become more difficult. In fact, some school teachers in Incheon who abolished the penalty system replied, "Students behaviors become excessive and they seem to feel unstable." when asked questions about change of student's behavior after eliminating penalty points. Also, students themselves said, "Things don't work out, some started what should not be done as student's and there are lots of students who wear makeup." Second, you can reflect on yourself based on the rules of the objective penalty system. We are not mature enough as students, so we must look back on our mistakes based on objective standard, and it makes us mature. For example, let's say that students who eats food in a dormitory is getting scolded by teachers. If there is no penalty system, most immature students will be more likely to rationalize their mistakes than to look back on their mistakes. However, when we take responsibility for our behavior on food intake with us knowing the reasonable evidence on the penalty for eating food in dormitory, we can get a chance to face our own mistakes and look back upon ourselves. That means the penalty system is  what makes us mature as an objective yardstick for our mistakes.

VS

**Cons of penalty system**

The students of Haneul academy are struggling with penalties. This is because the standard of leaving the dormitory has dropped to 20 penalty points.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present some of the problems of the punishment system that is often mentioned among students and take time to think about this system together.

First, it is a fairness problem according to the demerit leader. This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many students sympathize with. As everyone knows, the penalty system is not so specific as a tutor, so subjective judgment of a penalist is very much involved. In other words, many students are dissatisfied with the fact that the punishment of the same behavior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teacher such as the teacher's fault and the teacher who follows the principle of principle. In particular, in Haneul academy, there are easily exposed to this unfairness because there are many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managing specific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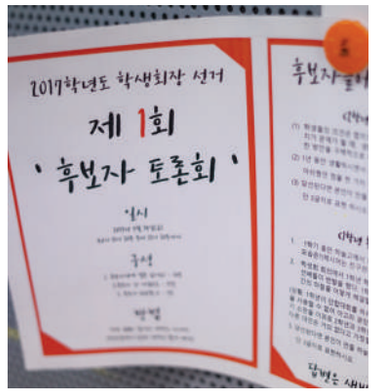
Second, there is limited opportunity to get a good point. A major way for many students to get a good points are Baekwoon Mountain Service, or flower garden that are official schedule.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participate in these activities is limited to half,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not evenly distributed to many students because the number is fill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In fact, we also failed to participate in Baekwoon mountain service due to fierce competition during the penalty period. In addition, activities such as finding lost property and helping a teacher are determined by chance, so many students do not get the opportunity to get a good points.

There are obviously various problems hidden in the Haneul academy punishment system that students feel, and we have to fix it to create such a school that makes us be humanly maturing and  accountable for the wrong behavior in a fair way.

글 · 박주영, 안성민

# Cons of penalty system

# 생방송 후보자 토론회,
# 그 생생했던 스트리밍의 현장



「ON AIR 하늘고 방송부」

"카운트다운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을 맡게 된 김민지입니다."
On Air의 정교한 장비와 기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도 빈틈없는 준비 과정,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자세. 카메라가 담아내는 토론회 현장은 그야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전국 최초', '개교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는 필요 없었다. 너무나도 전문적으로 진행됐던 전교학생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Youtube를 통해 전 학년 교실의 전자칠판에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을 담기까지의 과정은 숨막히게 바빴다. 선거관리위원회장 조성현 학생의 지휘 하에 위원회 학생들은 땀범벅이 되도록 뛰어다니며 선거를 준비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포스터를 붙이고, 미니토론회를 위한 질문을 수렴하는 일뿐 아니라, 토론회에 필요한 공통질문들을 반별로 모아 정리하고 선거유세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일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표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운이 좋으면 겨우 맨 마지막으로 급식을 먹고, 그렇지 못한 날엔 끼니를 거르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 바퀴처럼 열심히 굴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을 치열한 선거의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다.

7월 14일 4교시. 모든 리허설을 마치고 각 반 전자칠판을 점검하고 나서야, 마침내 후보자 토론회의 막이 올랐다. 1부에는 2학년 후보자 세 팀, 2부에는 1학년 후보자 다섯 명이 각각 자신의 역량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간단하고도 임팩트 있는 인사를 마친 후보자들을 위해 준비된 첫 번째 코너는 〈후보자에 질문 있어요!〉라는 10분간의 공통질문 시간이었다. 생활관과의 원활한 소통, 2학년과 1학년 선후배간의 관계 유지, 5대 학생회의 장점과 단점 등의 공통질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당차게 표현했다. 이어진 후보자간의 토론에서도 후보자들은 서로의 질문에 답하고 소통하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다. 치열한 후보 연설까지 마무리 되자, 투표가 이어지며 드라마 같았던 선거는 많은 학생들의 호응과 질서 속에서 막을 내렸다.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은 민주적인 선거에의 참여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투표 직전 선거관리위원회장의 전달 사항 속 한 마디처럼 우리는 '미래의 유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과 민주적인 의식이 빚어낸 이번 선거는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과정 모두를 전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로 전해준 후보자 토론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 장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글** ·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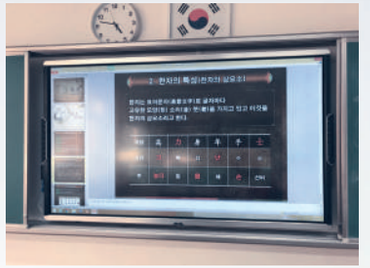
# EJ BOARD A to Z

'EJ BOARD' is an official product of 'PLUS', a Japanese company that made the first electronic classroom board. Our school, Haneul Academy, has been using them since the second semester. There are 10 kinds of electronic bulletin boards that the company makes, and what we are using is the 'EZLED-84'. It has many features. First, it has a home button, and turns on and off comfortably. It also has an Ez pen to write easily and has aluminum edges which makes the board look more modern. It uses the Android platform with high definition 4K images.

There are many purposes for the board but most of that is making circumstance to study using varied and good-natured data. It functions not just as a chalkboard but EJ BOARDS are used in class so that the quality of instruction is improved. That is the biggest merit for EJ BOARD.

Using this board, not only we can change board's color and pen's color, shape and thickness but also draw figures on squared paper, write notes on captured screens and save images. Let me introduce two functions that some students and some teachers may not know. The first is "Duo writing mode" which can touch on the same time on one screen. From now on, not waiting other student's notes but using duo writing mode. The second function can execute several skills 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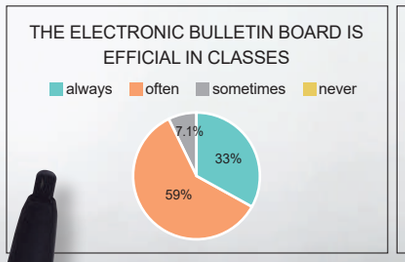
only two fingers. Spread two fingers and draw a square(□). Then the mouse that has many facilities. If you swipe right, the next page is came and if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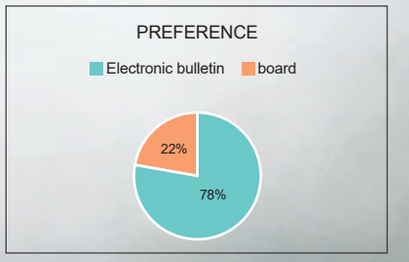


swipe up, the screen is changed before you did something. Besides, EJ BOARD has a modest capabilities. However, we wondered if this board that has useful functions help improve teaching quality or not. Thus, we made a survey to whole 1 and 2 grade students. First, 92 percent of people said it is helpful in classes. The other 8 percent of people said it is not helpful because it makes eye tiredness mostly, don't know functions and teachers are not using these functions. However. Most of the students preferred to use an electronic bulletin board.

A little dissatisfaction exists but it seems that most of students are satisfied with it. If we make use of the board's hidden functions, the reac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is hot.

글 · 김미성, 김한비



학교 탈출 프로젝트

# 꽃보다 컨퍼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 날, 컨퍼런스 데이!

컨퍼런스 데이 전날, 학생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컨퍼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

매번 컨퍼런스 데이마다 인기 코스로 이름을 올리는 곳으로는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학생들의 방문 빈도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홍대나, 컨퍼 날이면 하늘고 동창회를 방불케 한다는 부평역, 언제까지나 이곳만을 헤맬 수는 없다고 여기는 선구적인 영혼들이 선택하는 서울투어, 컨퍼의 기분만 살짝 느끼고 집에 가고 싶은 집순이들의 학교 근처 콧바람 쐬기 등이 자주 거론돼.

하늘고 학생들은 '꽃보다 사랑하는' 컨퍼런스 데이에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한 달에 한 번, 공식적으로 외박이 허락되는 컨퍼런스 데이가 돌아왔어! 손꼽아 기다린 그날이니, 친구랑 알차게 보내야지?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먼저, 홍대에서는 뭘 하지? 먹지! ㅋㅋㅋ 지금을 위해 아침을 굶었으니 애슐리 어때? 그 외에도 홍대엔 다양한 맛집들이 있지. 맛있는 볶음밥으로 유명한 '그 남자의 볶음밥', 치즈덕후들이 좋아할 '메이드 바이오즈', 줄 서서 먹는 떡볶이집 '홍대 마늘떡볶이'와 뭔가 다른 새우튀김이 있는 '미미네', 여러분 모두 다 좋아할 걸? '사모님 돈까스'도 사알짝 추천해볼게♡

홍대에는 또 홍대입구역 10초 거리에 카카오 프렌즈샵과 카카오 뮤지엄이 있어. (카카오뮤지엄은 2018년 5월 28까지 진행된다고 해) 20분이면 충분할 만큼 볼거리는 많은 건 아니지만 인생사진을 노려볼 수도 있으니, 7,8기 친구들!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여~ ㅎㅎ

사진 촬영 추천 장소 : 무드등 조명, 네온 사인, 거대 프로도, 라이언 풍선존

그리고 미뤄왔던 동아리를 비롯한 각종 소모임을 갖기도 하지. 학교 일과 시간만으로는 계획 활동을 하기에도 너무 벅차거든. 공식적으로 귀가한 컨퍼런스 데이에 시간을 내서 선후배가 다같이 친목 도모를 하니, 동아리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기숙사 방 친구들이나 각종 프로젝트에서 친해진 친구들, 그리고 썸남 썸녀들의 만남 등도 컨퍼 때 이루어지지.

여학생들은 우선 집으로 가서 새롭게 태어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홍대나 부평, 송도 등지에서 친구들을 만나주로 식사와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게 일반적인 코스야. 음.. 가끔은 사진을 찍기도 해. 사진을 찍는 날은 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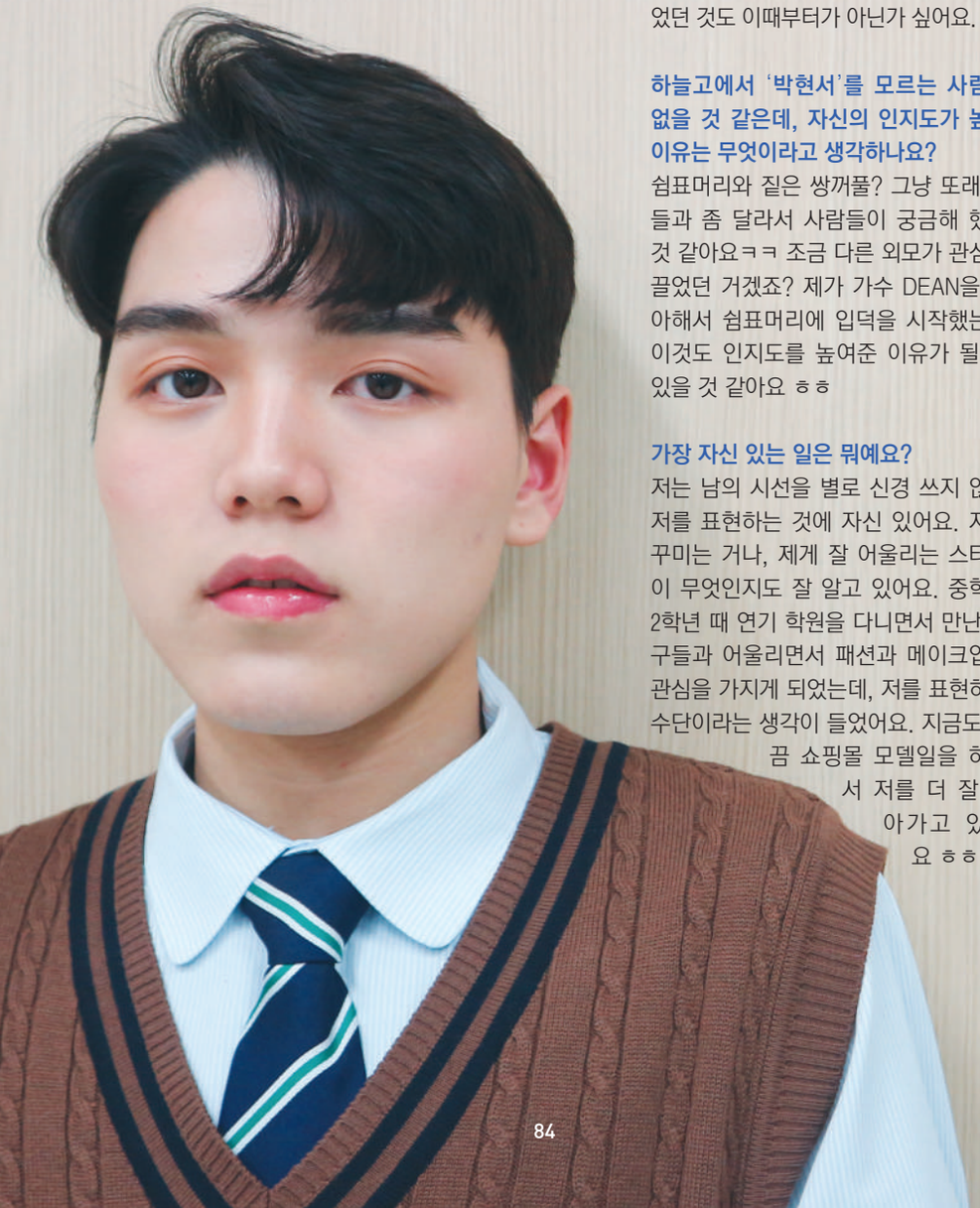
이스북의 프사/배사가 바뀌는 날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사회적 약속 '좋아요' 알지? ㅋㅋㅋ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 홍대 곳곳에 위치한 네 컷 사진도 추천해. 네 컷 사진은 홍대에서는 곳곳에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여학생들의 가장 핫한 쇼핑리스트는 당연히 패션템이지. 서로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은 액세서리를 우정템으로 맞추기도 하고... 시간가는 줄을 모르겠어.

남학생들은 뭘 하고 놀까? 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남학생들도 일단... 먹지 ㅋㅋㅋ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당구/볼링 등의 운동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거나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 ㅎㅎ

이렇게 컨퍼런스 데이를 보내고 나면 다시 아쉬움을 가득 안고 학교로 돌아오지. 더 놀거리가 없냐고? 방 탈출, 고양이 카페, 영화나 연극, 전시회 등 얼마든지 놀거리는 풍부해!
여기 소개한 곳 말고도 공연의 중심 대학로, 한복을 대여하고 예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경복궁, 이름만 들어도 신나는 롯데월드 등도 있어! 친구들, 선후배들과 같이 자주 만나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즐거운 학창시절의 추억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

**글** · 고은비

## 내 맘에 쏙 들어온
# 박현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나요?**

저는 사실 스스로 인기가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실 전 초등학교 시절 매우 비만이었고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이 컸기에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 16kg 정도를 감량하자 점차 SNS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학교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저를 알게 되었던 것도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하늘고에서 '박현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쉼표머리와 짙은 쌍꺼풀? 그냥 또래 애들과 좀 달라서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ㅋㅋ 조금 다른 외모가 관심을 끌었던 거겠죠? 제가 가수 DEAN을 좋아해서 쉼표머리에 입덕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인지도를 높여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가장 자신 있는 일은 뭐예요?**

저는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저를 표현하는 것에 자신 있어요. 저를 꾸미는 거나, 제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쇼핑몰 모델일을 하면서 저를 더 잘 알아가고 있어요 ㅎㅎ



**바른 생활하면 '문현아', '문현아'하면 바른 생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도 바른 생활인가요?**

당연히 저에게 이 타이틀은 너무 과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바른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에 저 역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장담하기 어렵네요. 그렇지만 나중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저부터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었나요?**

초등학생 때 선생님께 혼난 트라우마가 크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선생님께 혼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중학교 때도 선생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생활했어요. 중학교 때 조용히 지내던 모습이나 습관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현아 학생'처럼 모범적인 바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합니다.**

바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자체부터가 기특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맞추어 생활한다면 어느 순간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에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요?

## 항상 칭찬해
# 문현아

입덕주의보

# 조병교

**비트박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6학년 수련회 이후 비트박스를 연습했으니 곧 6년이 돼 가네요. 저는 수련회 장기자랑 때마다 '반에서 가장 까부는 친구 나오세요!' 이러면 끌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막춤을 추고 들어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대에서 멋있고 예쁜 춤을 추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저도 차별화된 장기를 가지고 싶어 고민해보다가 비트박스를 연습하게 된 거예요.

**비트박스 출전 경험을 들려주세요.**

중2 때까지는 혼자 비트박스를 연습하고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취미생활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실력이 늘고 자신감이 생기던 찰나, 중3 때 온라인 채팅프로그램 '토크온' 활동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온라인 비트박스 배틀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하기도 하자, 유명한 비트박스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왔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하늘고 오면 활동 자주 못하니까 스카우트 제의는 거절했어요 ^^V) 그러다가 비트박서 유튜버로 유명했던 릴마블과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나름 알려지게 됐죠ㅋㅋㅋ 영상을 찍기 위해선 먼저 1분 정도 비트박스 영상을 릴마블에게 보내야 하는데, 전국의 모든 도전자들의 영상과 경쟁해서 제가 1등으로 선발된 거죠 하하하. 그래서 영상도 찍고, 릴마블이 주최하는 온라인 비트박스 배틀에도 출연해보고, 오프라인 배틀에 나가서 비트박서들과 친분도 쌓고 인정도 받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했죠. 하늘고를 다니면서도 비트박스를 꾸준히 연습하며 컨퍼 때마다 대회나 정기모임 같은 데 참여하는 등 나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골든마이크

# 조성현

**학교 내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현재 학생회랑 학습동아리 3개, 전공연구와 대회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해내고 있다기보단 유능한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제 평소 시간 관리나 효율성과 관련해 드릴 수 있은 작은 팁이 있다면 아마 '몰입'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온전히 몰입해서 똑같은 일은 두 번 하지 않는 것. 지금 하는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몰입하는 것, 그게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결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비법을 전수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세상엔 정말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다만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는 표현이 나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익혀야 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깊이 생각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팁을 드리자면, 사회과학 계열의 책을 읽을 때 좋은 문장 몇 개는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곤 했어요. 책 속의 좋은 문장을 내면화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 문장 속 의미가 내 생각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 습관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유연한 언어 표현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편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나요?**

하늘고에 입학하고 방송부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ON AIR에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 동아리 HAM에 들어가게 됐어요. 선배들에게 실력을 검증받지 못해 떨어졌다고 생각해 HAM에서 디자인팀을 따로 만들어 그때부터 영상 편집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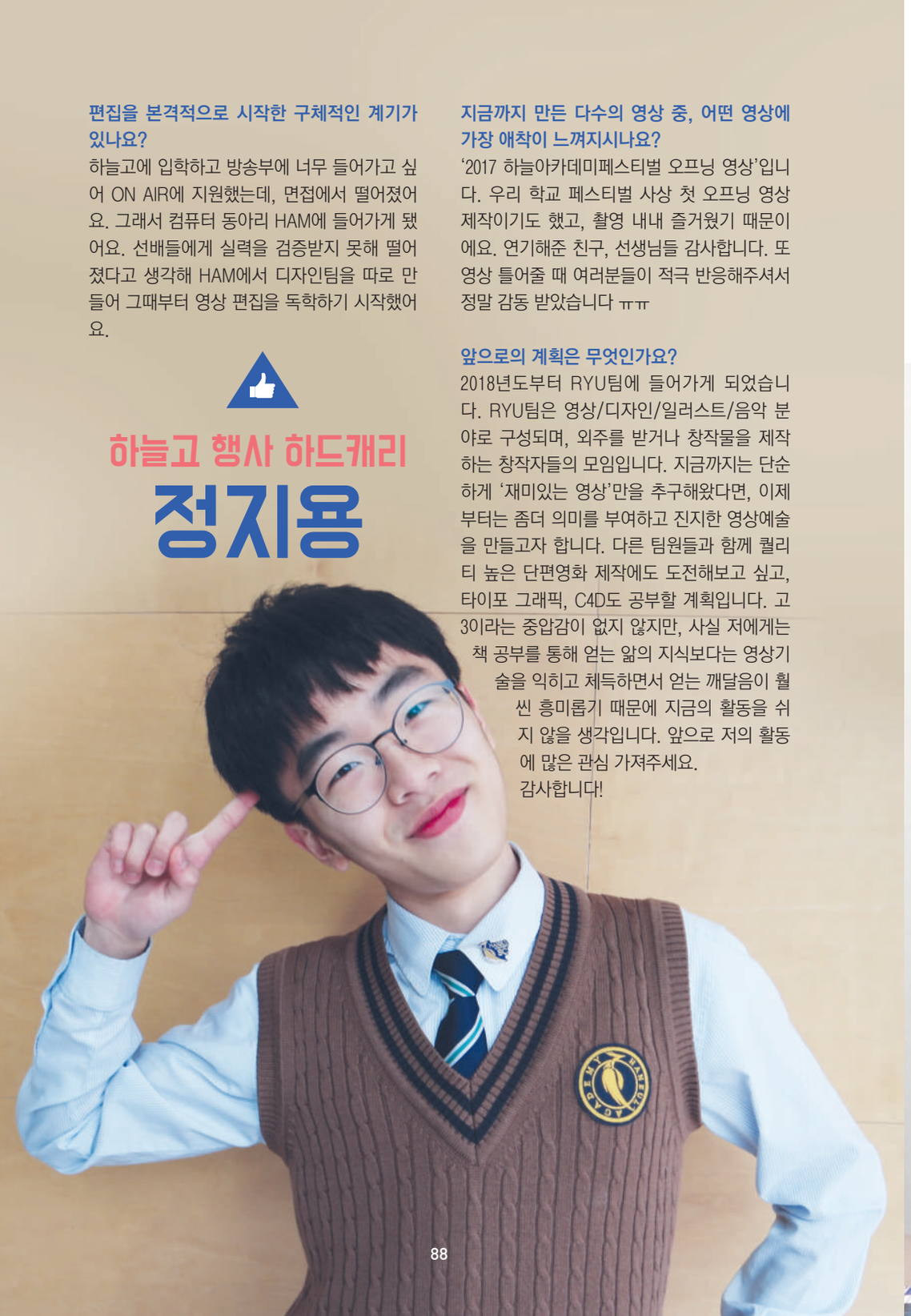
## 하늘고 행사 하드캐리
# 정지용

**지금까지 만든 다수의 영상 중, 어떤 영상에 가장 애착이 느껴지시나요?**

'2017 하늘아카데미페스티벌 오프닝 영상'입니다. 우리 학교 페스티벌 사상 첫 오프닝 영상 제작이기도 했고, 촬영 내내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연기해준 친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또 영상 틀어줄 때 여러분들이 적극 반응해주셔서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ㅠ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018년도부터 RYU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RYU팀은 영상/디자인/일러스트/음악 분야로 구성되며, 외주를 받거나 창작물을 제작하는 창작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재미있는 영상'만을 추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의미를 부여하고 진지한 영상예술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팀원들과 함께 퀄리티 높은 단편영화 제작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타이포 그래픽, C4D도 공부할 계획입니다. 고3이라는 중압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 저에게는 책 공부를 통해 얻는 앎의 지식보다는 영상기술을 익히고 체득하면서 얻는 깨달음이 훨씬 흥미롭기 때문에 지금의 활동을 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넘쳐 보이는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든 적은 없었나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부풀려진 소문과 루머, 오해로 생긴 친구와의 갈등,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등. 가벼운 일들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일로 절망하기엔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난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관종'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페이지도 있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하, 듣기 좋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니 그걸로 끝이죠. 친구들과 동물잠옷을 입고 홍대에 놀러 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도, 노래를 녹음해 SNS에 올리는 것도.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추억거리들이에요. '오관종'은 저의 즐겁고 활력 있는 삶을 대변해주는 평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작은 순간에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듯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로 성실하게 살다보면 결국은 성공할 거라 믿어요. 꼭 돈과 명예를 좇지 않더라도 제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딨겠어요? ㅎㅎ

## 활력왕
# 오성민

# I interviewed 사랑, the mascot of Haneul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I'm 사랑, I'm 3years old and I live at Haneul now.

**How is your life in Haneul?** Good. Sometimes I feel bored, but I enjoy my life at Haneul.

**What do you usually do here?** When the weather is nice, I take a walk around the school. Taking a walk, I can see many beautiful things, like flowers, trees and the sky. It helps me have a healthy body and mind.

**Good. Any others you like?** I like rainy days as well. I used to sit and watch the rain outside. Maybe you think it's boring, but the sound of rain makes me feel comfortable and relax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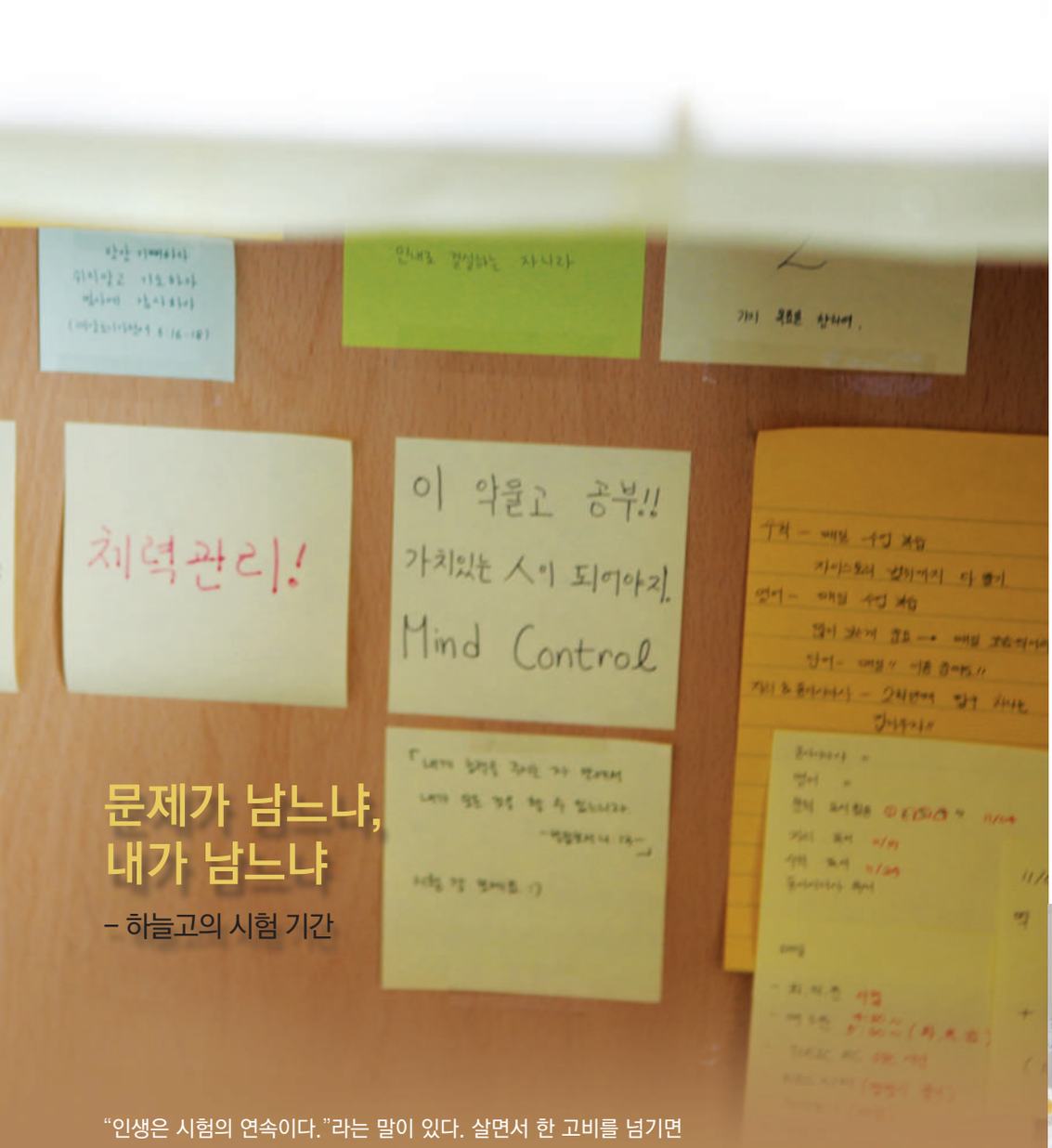
**Do you have any hobbies?** I like playing with a ball and looking for mice in =the school. You know there are many mice in here. So I catch them when I find them. It is pretty fun.

**That sounds cool. There are many things you like. Then what is something you don't like?**
Umm... I don't like taking a bath and having my snacks taken away. I hope everyone has the same feeling about this. (smiles)

**Lastly, what do you think is most your attractive?** Maybe my light brown hair? And my cleverness. (smile)

**I think your cuteness plays a role of your popularity. I'd like to wrap up the interview.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글 · 정소현




#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 – 하늘고의 시험 기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다. 살면서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을 시험의 연속이라고 한 것인데, 하늘고 학생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이란 문자 그대로 '시험'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정기고사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180도 변신하게 하고, 때로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시키거나, 혹은 학생들을 초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하늘고의 시험기간. 그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 또 다른 소설이 탄생하다, 하늘츠 카프카 – 변신

시험기간이 되면 방과후 수업이 종료되어 면학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연장 면학까지 신청하여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디하나 성한 데가 없다. 바야흐로 학생들이 갑갑한 정복을 집어 던지고 체육복과 생활복을 조합하여 최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도서관과 면학실에서는 흘러내리는 앞머리를 헤어 고정시트(햄과 김으로 불린다.)로 고정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말에 서점에 가면 하늘티와 생활복 바지를 입고 책을 고르는(!) 하늘고 학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받은 충격과 공포는 웃으면서 잊어버리자. 하늘고의 집단적인 꾀죄죄함은 시험기간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나면 홍대나 서울 등지에서 마법처럼 다시 태어난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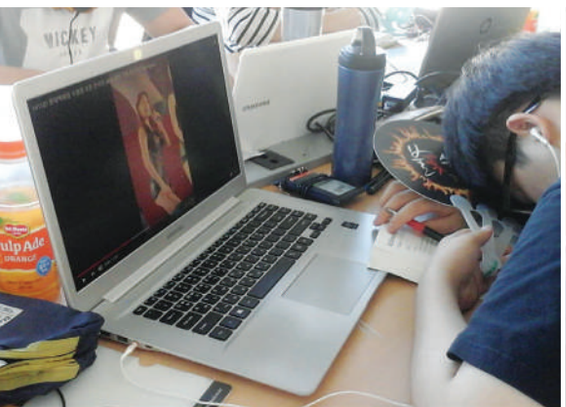
### 오늘도 수고했어. 토닥토닥

해야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시험기간은 시간이 빛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다. 시험이 성큼성큼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거나 헛소리를 하는 불안 증세를 보인다. 착한 하늘고 친구들은 응원의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면학이 끝난 뒤 "수고했어."라는 말로 소소한 감동을 준다.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우는 1학년 친구들이 많아지자, 어떤 학생은 1학년 여자 면학실에 응원의 편지를 손수 써서 붙이기도 했다. 당시 1학년 여학생들은 누군가의 응원과 격려로 인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 시험기간마다 울음바다인 면학실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

연장 면학까지 하고 와서 룸메들에게 묻는다. "영어 했냐?" 라는 물음에 "했겠냐?"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들은 일제히 잠에게 선전포고를 날린다. 잠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자들은 다양한 전투 무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건 치약이다. 치약을 눈 밑에 바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공부한다. 두 번째는 찬바람이다. 겨울에는 남극과 비슷한 온도의 화장실에서 덜덜 떨면서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베란다 문도 활짝 열어 젖힌다. 세 번째는 카페인이다. 하지만 카페인은 섭취하면 할수록 내성이 생기므로 그리 좋은 무기는 아니다. 잠과의 사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애초에 가지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또, 한 명이 자면 다 같이 자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수시로 룸메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피를 튀겨가며 잠과의 결투를 마친 하늘고 학생들은 이미, 초인이 아닐까.

**글** · 엄유선



# 너의 필통에도, 나의 필통에도 있는, 매력 뿜뿜 잇템

**GRAPH 1000 for pro 0.5 pentel (샤프)**

무겁고 본체가 얇은 편이라 그립감 좋음. 샤프심이 많이 들어가도 잘 부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음. 가성비 좋음.

**jet stream 0.38**

필기나 채점 등 어디서든 전천후로 활용되는 인기 만점의 멀티펜. 하늘고 학생들뿐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면, 아니 수험생들이라면 모두가 애용하는 펜. 어떤 종이에도 부드럽게 글씨가 써지고 펜촉도 잘 망가지지 않음.

**signo DX 0.28/0.38**

펜촉이 뾰족해 글씨를 가늘게 쓸 때 사용하는 펜. 깔끔하면서도 안정된 필기체를 보일 수 있음. 단, 떨어뜨리면 펜촉이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 요망. 잉크 용량도 많은 편이라 오랫동안 사용 가능.

**staedtler 0.5**

문방구에서 자주 보이는 샤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음. 손으로 잡는 부분이 거칠거칠한 것이 특징으로, 오래 쥐고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

**mild liner**

다양한 종류의 색을 보유한 형광펜으로 앞뒤에 굵기가 다른 촉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굵기의 밑줄을 그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잉크의 채도가 적당히 낮아 여러 군데 밑줄을 그어도 눈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장점.

# 펜 덕후가 추천하는 핫 아이템

## juice up 0.3/0.4

시그노를 좋아한다면 이 펜 역시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느다란 펜촉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혁명과도 같은 펜. 100점짜리 중성펜. A동 3층에 사는 펜 덕후가 모든 색을 다 모아놨을 정도로 강력추천 하는 펜.

## frixion

시험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펜. 뒤에 달려 있는 지우개가 달려 있어, 펜이지만 쓰고 지울 수 있음. 색깔도 다양한 편이라 필기할 때도 유용함.

## a gel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살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처방 샤프. 손으로 잡는 부분이 매우 말랑말랑한 젤리 같아서 오랫동안 써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음. 가격은 조금 비싼 편.

## faber castell

샤프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회사. 완벽한 필기감과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함. 펜계의 완벽템이 쥬스업이라면 샤프계의 완벽템은 파버 카스텔! 펜 덕후가 강력 추천한 샤프.

**글** · 엄유선



# 미안하다…몰라봐서

1번 John Cowie Teache, 10살
2번 김승호 선생님, 10살
3번 오대규 선생님, 10살
4번 김경훈 선생님, 19세
5번 정주원 선생님, 10살
6번 김민희 선생님, 18세
7번 김창재 선생님, 10살
8번 김민철 선생님, 17세
9번 최상규 선생님, 18세
10번 송남영 선생님, 7세
11번 전유림 선생님, 4세
12번 천도현 선생님, 4세
13번 이지현 선생님, 3세
14번 배성규 선생님, 10살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 남자 박중서

**선생님은 대체 언제 주무세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안 와요 ㅋㅋㅋㅋ

**취미활동으로는 무엇을 즐기시나요?**
아이들에게 타격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축구, 야구 등등) 즐기기도 하고요.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알고도 넘어가신 경우가 있으시죠?**
네. 치킨하고 족발을 시켜 수팽이골에서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족발과 치킨다리로 응징한 후, 저도 같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어요 ㅋㅋㅋ

**일과 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공부요 ㅎㅎ 매년 아이들과 약속한 대로 2015년도에는 분기별로 자격증을 땄고, 이번 17년도에는 대학교 학위를 따고, 내년에는 항공과 관련된 정비 자격증 취득 계획과 한국사능력시험 고급과정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하늘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 곧 왕이니, 나를 따르라!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 여자 박혜진

**선생님은 대체 언제 주무세요?**
오전 11시에 자서 오후 5시에 일어나요.

**취미활동으로는 무엇을 즐기시나요?**
수영을 원래 즐겨했지만, 일을 시작한 후로는 시간이 없네요. 지금은 잠만 자요. 하하 진짜 잠만 자는 집순이? ㅋㅋㅋ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알고도 넘어가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럼요. 예전에 아이들이 잘자고 있나 보러 갔는데, 옷장 문이 쓰윽 열리더니 어떤 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매우 깜짝 놀랐지만 "자라!" 그러고 나왔어요. 옷장 문에다가 절연테이프 붙여놓았는데 알아서 떼겠죠? ㅎㅎ

**일과 후에 댁에 가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집 청소를 하고 잡니다. 하늘고 연애 금지를 몸소 실천하는 중이라고나 할까요 (우울)

**하늘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먹지 마. 살 쪄!!

# 나 혼자 산다

## 가족과 함께 산다

## Teacher John Cowie

**Could you tell me your daily schedule when the school class is finish?**

On each night I have something to do with 수안 like I might have to help her with her math homework. On Fridays, game night at home, so we play board games.

**How do you play with your daughter?**

We usually play activitys and games and things.. like that. We like to play game called UNO(Card Game).

**Could you tell me, What is good for having family?**

Well, I mean like... there are people who always there for you, assistant your life. Family is the people that you love the most, and hate the most. The best thing is People there loving and support you anytime.

**What is your best memory with your family?**

We travel another countries. 수안 and I went to Disneyland. She told me that was the best day ever in her life.



나 혼자 산다

## 혼자 사는

# 남자 한재훈

**선생님의 평일 일과를 알려주세요!**

저에게 오차란 없기에 정확히 5시 18분에 기상해서 출근해요.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4시 15분쯤 퇴근을 할 때, 학생들이 칼퇴하냐고 물어보는데 칼퇴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거예요. 식사 후에는 학교 수업 때 사용하는 프린트를 만들거나 HSK를 공부를 하고 10시 30분에 잡니다.

**선생님의 주말 일과를 알려주세요!**

주말에는 늦게(9시, 10시)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영화를 보거나 레고 조립을 하는데 사실 먼지가 쌓일까봐 잘 안 해요. 시험기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카페에 가기도 해요. 비 오는 날에 머그잔에 고구마 라떼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러고는 노트북 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교무실 출입금지 포스터를 만들어요.

**혼자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경제권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요. 돈도 많이 모으고 있지만 그만큼 많이 쓰고 있어요. '잘' 즐기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 하세요.

# 알아두면 쓸데있는 하늘고 잡학사전

교문을 넘어서면 학교가 곧 집이 되는 이곳은, 그토록 오고 싶은 곳이었는데
왜 이렇게 외롭기만 할까?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학교생활을 견뎌내고
훌륭히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걸까 대단해보이기만 한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둔 하늘고의 최고참이자, 닮고 싶은 선배군단 여섯 명에게
〈알아두면 차암~ 쓸 데 있는 하늘고의 잡학지식들〉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하늘고 강아지들♥ 걱정 마, 선배가 간다!

김유빈

유세연

이륜경

임소현

정재훈

한동훈

**요즘 수능 끝나고 뭐하고 지내세요?**

**이륜경** 수면시간의 한계를 실험해보는 중이에요 ㅎㅎ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잘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김유빈** 빈둥대다가 연락 오면 놀러나가요 ㅎㅎ

**임소현** 화장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대학생 되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ㅋㅋㅋㅋ

**유세연** 여행도 가고 뮤지컬도 보고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집도 가고 행복해요.

**한동훈** 운전면허 따고, 여행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수행평가와 정기고사가 몰려올 때,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병행했던 노하우가 있나요?**

**임소현** 컨퍼 때마다 밤새더라도 주어진 수행은 마감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다 끝내고 학교 들어갔어요.

**한동훈** 날마다 시간 계획을 정했어요. 수행은 후딱 끝내는 게 좋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조심합시다 ㅎ

**이륜경, 김유빈** 최대한 수행평가는 빨리 끝내야 돼요. 공부를 미루면 나중에 큰일나요...

**유세연** 수행평가를 빨리 끝내고 면학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독서평가는 한가할 때 미리 써놓아요.

**선생님들께 예쁨 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재훈** 일단 전인교육부 불려갈 일 안하고, 수업시간 때 초롱초롱하면 싫어하실 선생님 안 계세요 ㅎㅎ

**김유빈** 평소에 꾸준히 착실하면 알아주실

거예요.

**유세연** 저는 과목에 애정을 갖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과 친한 것 같은데... 아닌가?ㅋㅋ

**한동훈** 수업시간에 리액션 잘하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아이컨텍 하고, 졸지 말고, 예의 바른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륜경** ㅋㅋ 예쁨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쌤과 친해지고 싶다면 그 쌤이 진행하시는 소수 인원의 방과후 수업을 들으면 좋아요!

**체력관리 방법과 수면 관리법 궁금합니다.**

**유세연** 홍삼, 종합비타민, 유산균! 이런 것들 꼭 챙겨 먹고 잠은 충분히 자요. 잠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한동훈** 꿀잠은 우리의 심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몸이 안 좋거나 피로가 쌓이면 주말에 날 잡고 자기도 했는데 리얼 만병통치약이에요.

**정재훈** 쉴 때는 걱정 없이 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야 체력 보충도 되고 잠도 깊이 자게 되거든요.

**이륜경** 체력관리로는 운동 추천해요! 수면 관리는 저도 잘 못했어요. 잠 총량 불변의 법칙 모르시나요?

**임소현**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체력관리 목적으로 따로 한 적은 없어요. 대신 피곤할 때, 비타민은 챙겨먹었어요!

**김유빈** 너무 늦은 밤까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몸 상해요.

**진심 궁금한 수학 학습법**

**정재훈** 주로 1학년 때는 유형을 익히기 위해 양치기 위주로 공부했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부턴 질 높은 문제를 찾아 학습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문제 위주로요.

**이륜경** 한 문제집이라도 두세 번 푸는 게 좋습니다!

**김유빈** 하늘고 수학 내신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푸는 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동훈** 수학으로 고민이 많던 제 수학 성적이 상승하는 데에 오답노트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3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륜경** 스트레스, 스스로 예민해지는 거요. 친구들을 끌고 나가서 산책하는 게 좋았어요 :)

**유세연**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요. 위로가 되는 노래 듣기 추천해요. 추천곡은 '괜찮아요/BTOB'

**김유빈** 수능이 연기된 거요(수능 전날을 두 번 겪었습니다 ㅠㅠ), 주변 친구들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겨우 버텼어요.

**정재훈** 자꾸만 낮아지는 자존감이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했죠.

**임소현** 친구와 갈등, 서운한 일 등을 잊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그때그때 해결했어요. 쉽진 않지만 그게 결국 이득^^

**기숙사 생활 중 친구와 다퉜던 적은 없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유세연**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요. 대화하면 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상황을 침착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정재훈** 싸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싸웠다면 담아두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이야기해서 풀어야죠.

**시험 긴장이 너무 심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한동훈** 저는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한 후에 일부러 여유 있는 척하면서 '잘보든 말든 후회 없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정재훈**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준비했으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져요.

**유세연** 저도 긴장을 많이 해서 항상 예비령이 울렸을 때 사탕을 먹었어요. 당 충전도 되고 덜 떨려요.

**김유빈** 저는 저만의 주문을 만들어서 믿었어요. 시험 직전, 발코니에 나가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면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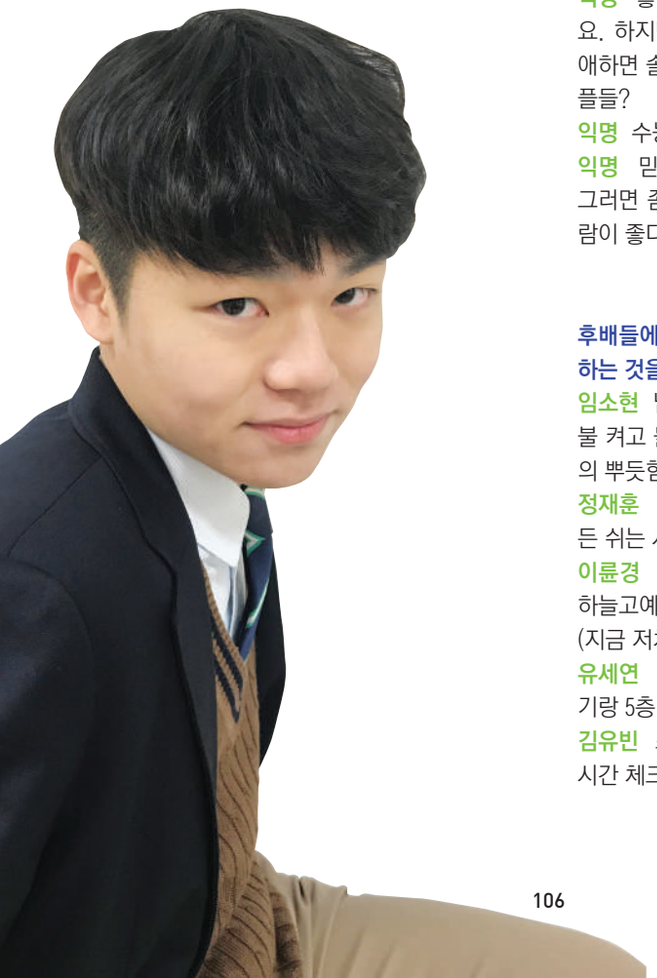
**이륜경** 전 긴장하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꼭 배를 담요 같은 걸로 감

싸고 시험을 봤어요 ㅋㅋ 저랑 비슷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색다른 내용으로 나만의 생기부를 만들고 싶은데, 소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유빈**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길로 흐르는 전공 관련 로드맵으로 생기부를 만들어보세요.

**한동훈** 신문을 잘 활용하면 꽤 쏠쏠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소재를 찾고, 보다 깊이 알아보세요.



**임소현** 진로의 윤곽이 대충 잡혔다면, 관련 잡지 같은 데서 소재를 얻어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재훈**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참신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륜경** 좋은 생기부 소재는 많은데 해놓고도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한 활동들 다 기록해 놓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익명** 개인성향 잘 파악하고 행동해야죠. 본인이 연애와 공부가 병행이 안 된다면 절대 시작하지 말자!

**익명**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사귈 거면 밖에서! 안에서 연애하면 솔로들이 슬퍼해요. 듣고 있나, 커플들?

**익명**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렸어.

**익명** 믿을 만한 친구한테 털어 놓아요. 그러면 좀 후련해져요. 졸업하고도 그 사람이 좋다면 고백해요.

**후배들에게 하늘고 재학 중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을 추천해주신다면요?**

**임소현** 남들 다 노는 일요일에, 면학실에 불 켜고 들어갔다가 불 끄고 나오기! 그때의 뿌듯함이란 ㅎㅎ

**정재훈** 친구랑 공부시간 내기하면서 모든 쉬는 시간 다 공부하기

**이륜경** 독서! 독서가 가장 즐거운 곳이 하늘고예요. 나가면 절대 안 읽습니다....(지금 저처럼)

**유세연** 운동장에서 밤하늘의 별 구경하기랑 5층 테라스에서 노을 감상하기요.

**김유빈** 스톱워치로 하루 동안 공부한 총 시간 체크하기



**하늘고에서 해본 최고의 일탈 경험은 무엇인가요?**

**정재훈** 지리올림피아드 대회 핑계로 외출 끊고 나가서, 대회 끝난 후 야구장 놀러간 거요 ㅎㅎ

**유세연** 앞 호실이랑 연합해서 파닭이랑 간장치킨 시켜먹은 일이요. 반입할 때 엄청 고생했어요.

**이륜경** 고3 때 주중에 꼭꼭 배달음식 먹은 거! (살을 얻었죠)

**한동훈** 제 홈베는 늘 외부음식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타방 취침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임소현** 겁이 워낙 많아서 딱 한 번 기숙사에 치킨 사가서 맘 졸이면서 먹었네요... 꿀맛 ㅋㅋ

**예비 고3, 고2, 고1에게 꼭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정재훈** 고1은 공부 습관 잡기, 고2는 교내활동 다양하게 참여하기, 고3은 후회 안 할 만큼 공부하기!

**임소현** 스포아츠 배우면서 한 가지 정도 취미생활로 만들면 좋아요. 학술제도 나가보면 진짜 추억거리!

**한동훈** 고3은 앉아 있는 습관을 미리 잡아 놓으시고, 고2는 어떤 활동과 대회를 준비할 것인지, 생기부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보세요. 고1에게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조금은 여유 있게 자신의 하늘고 생활을 그려보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김유빈** 고2에게는 2학년 때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자소서 쓸 때 느낄 거예요.

**방학 때는 잔류가 낫나요? 비잔류가 낫나요?**

**김유빈** 이건 진짜 케바케

**유세연** 잔류하면 책상에라도 앉아 있지, 비잔류하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정재훈** 저는 개인관리 할 자신 있다면 비잔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신 철저한 개인관리는 필수!

**이륜경** 자신 있게 잔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잔류는 공부 안 한다는 말이랑 같아요.

**한동훈** 저는 잔류파지만, 케바케인 것 같아요.

**임소현** 급하게 진도를 빼야 하거나, 본인이 친구들한테 끌려 다니는 타입이면 비잔류도 좋은 것 같아요.

**학종, 논술, 수능에 각각 얼만큼씩 비중을 두고 노력하셨나요?**

**정재훈** 저는 일찍이 논술을 포기하고 학종과 수능에 올인했어요. 5대5 정도로? 본인이 논술과 맞지 않는다면 일찍 접고 나머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임소현** 고3 막바지 기준으로, 논술0 학종60 수능40이요. 최저 있으면 수능 절대 놓지 마세요!

**한동훈** 학종 70% 수능 30% 학종이 편하고 좋았어요!

**김유빈** 학종 70% 수능 30%

**나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륜경** 막 쓰는 노트에 쌤이 들어주는 예시 위주로 다 적으려고 노력해요. 날려 쓰세요! 그리고 그 날 그걸 보면서 다시 노트정리를 합니다. 특히 탐구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ㅠ)

**임소현** 생명과학 O× 정리노트 강추! 개념이 워낙 많아서 수능 전날까지도 계속 헷갈리는 걸 추려 나갔어요!

**정재훈**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매일 수능 시간표처럼 국영수탐 모의고사 하나씩 시간 재고 푼 거?

**유세연** 사탐 과목은 노트 필기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손으로 쓴 필기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남들과는 구별된 '이런 점'이 대입에 유리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익명** 똑같은 내용도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빨? 면접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익명** 광범위한 비교과 활동이요. 문과임에도 과학 동아리에 남았고 역사, 경제, 관광, 철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한 흔적들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되었어요.

**익명** 정말 뚜렷하고 확실한 진로 및 전공 적합성이 저의 주무기라고 생각해요.

**익명** 높은 등급을 유지했던 수학 내신과 인문계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챙긴 과학 내신이요.

**익명** 좋아하는 과목 혹은 분야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 그러다보니 관련 과목 성적도 좋고 활동도 많더라고요.

**익명** 비교적 풍부한 수상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고 학생이라는 사실과 그로부터의 자부심이요.

**입시와 상관없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늘고에서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한동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매순간 소중했던 댄스부 활동, 그리고 사랑하는 2학년 1반과 체육대회 전야제를 준비한 거요!

**유세연** 전공연구 고전인문강독반이요! 한문 실력 함양 + 바른 인성 형성 + 상규쌤. 일석삼조!!

**임소현** 3년 내내 한 학습동아리에 워낙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학동과 함께한 논문 작성과 학술제 발표가 기억에 남아요.

**이륜경** 2학년 때 학습동아리 4개 한 거요.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ㅋㅋ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화냈던 거 같아요 ㅋㅋ

**정재훈** 저는 솔직히 댄스부랑 방송부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결과도 좋고 보람도 있었으니까요 ㅎㅎ

# HANEUL PICK

## 24시간이 모자라

모두가 충실하게 24시간을 보내는 하늘고에서도, 특별히 하루를 30시간처럼 살아가는 '부지러너'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았다. 남들은 하나만 해도 벅찬 교내 프로그램(RnE, 미디어스피치, 스콜라/창문 기장, 교내 대회)에다가 생기부와는 상관없는 교외활동(학술논문대회, 토론대회, 논문공모대회 등)까지 하고 있는 '논문공장' 박동주 학생이다. 그에게도 역시 내신과 모의고사는 예외가 아니기에, 이 많은 일을 위해서는 잠을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력 있게 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지만,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이기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한다. 입학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이과생이라고 생각해왔던 그가 토론과 철학, 시를 만나면서 꿈이 생겼고, 삶과 사회와 인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니, 멋진 인생, 소중한 매일을 살아가는 박동주 학생이 더욱 기대된다. 자신은 부지런하지 않다며 겸손해하던 동주 학생! 늘 지금처럼, 파이팅👍

## 구하도

조성현

다만 그렇게 흘러왔을 뿐이다.
당신은 물처럼 내게

사랑이라 함은 때론 세차게 달려
서로를 마음껏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동시에 때론 발맞춰 걸으며 천천히
쌓아둔 기억을 추억으로 덮어내는 것이다.

다만 당신은 물처럼 흘러들어 내게 왔기에
우리가 영원하지 않으리란 걸 알지만

그리도 세차고 때로는 애탔던 순간들이
조금씩 만들어 놓은 흔적은
아마 꽤나 오래
마음에 남으리란 걸.

네가 흘렀던 길은 네가 없는 이 순간에도
구하도로 남아 영영 사랑이다

언젠가 그 길을 걸으며 발에 치이는
자갈을 보면서
이리도 둥글었구나 우리
하게 되리란 걸
네가 남겨놓은 흔적을 따라 온 세상이
영영 사랑이다.



# bird savers

Unlike other schools, many parts of the building of Haneul Academy are made of glass. Have you noticed that? And have you ever wondered why many parts of the building are made of glass?

Here's why.

First, glass makes the building beautiful. Not only for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but also the inside of the building look beautiful thanks to the glass. Glass refracts the ligh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sun. And this makes the sunlight which comes through glass alluring. Sunlight that reflects differently by the glass makes the building stunning.

The second reason is that glass transmits light a lot. Glass transmits light much more than other building materials like concrete or timber. Glass transmits up to 90 % sunlight.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don't have time to play outside to enjoy the sunshine. Furthermore, the sunlight comes through window doesn't have harmful rays such as gamma rays, ultraviolet rays and so on. By basking in the sun we can improve our immune system, and prevent depression, diabetes, heart disease, and obesity.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are caused by glass. The outer walls made of glass can mislead the birds and make them fly into them. The glass windows fatal to birds. A lot of birds bump into them and lose their lives. To prevent this problem, bird-shaped stickers, bird-savers, are attached to the wind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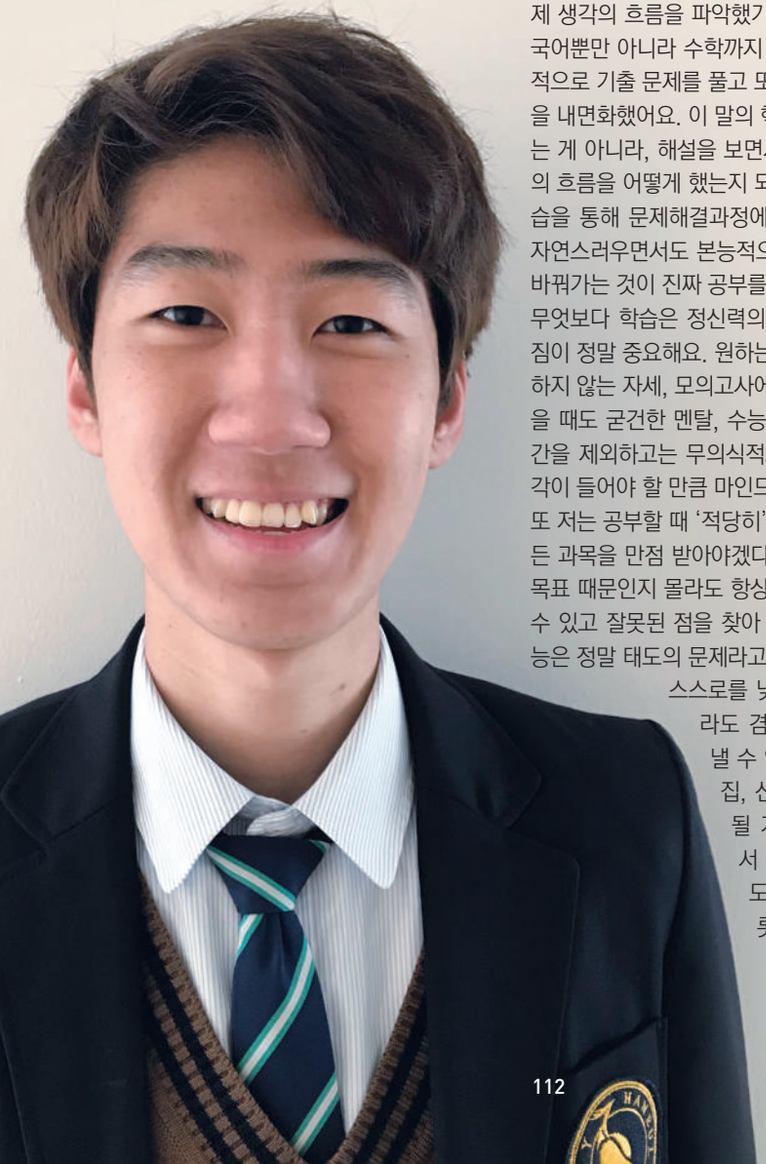
The building of Haneul Academy is a good building considering all beauty, health of students and the safety of the ecosystem.

Last, quiz! How many bird-savers are attached in Haneul Academy?

**글** · 손자영

대입
성공기

## 경찰대학교
## 홍성진



**선배님은 모의고사 점수부터 수능 때까지 항상 초고득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셨다고 들었어요. 선배님은 모의고사/수능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2학년 때까지 저는 스스로 국어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 제가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맞은 문제도 해설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리고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풀이로 적혀 있어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수능에서 국어영역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제 생각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해설을 전부 외울 만큼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고 또 풀면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내면화했어요. 이 말의 핵심은 풀이를 무작정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해설을 보면서 자신이 문제를 풀 때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했는지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본능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학습은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모의고사에서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았을 때도 굳건한 멘탈, 수능날까지 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만큼 마인드컨트롤은 중요해요.

또 저는 공부할 때 '적당히'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과목을 만점 받아야겠다는 목표로 공부했어요. 그런 목표 때문인지 몰라도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해나갈 수 있었어요. 수능은 정말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만하지 않고 늘 스스로를 낮추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도 겸손하게 자신의 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태도가 어떤 인강, 문제집,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될 거예요. 고1때 내신 5점대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정신력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대입
성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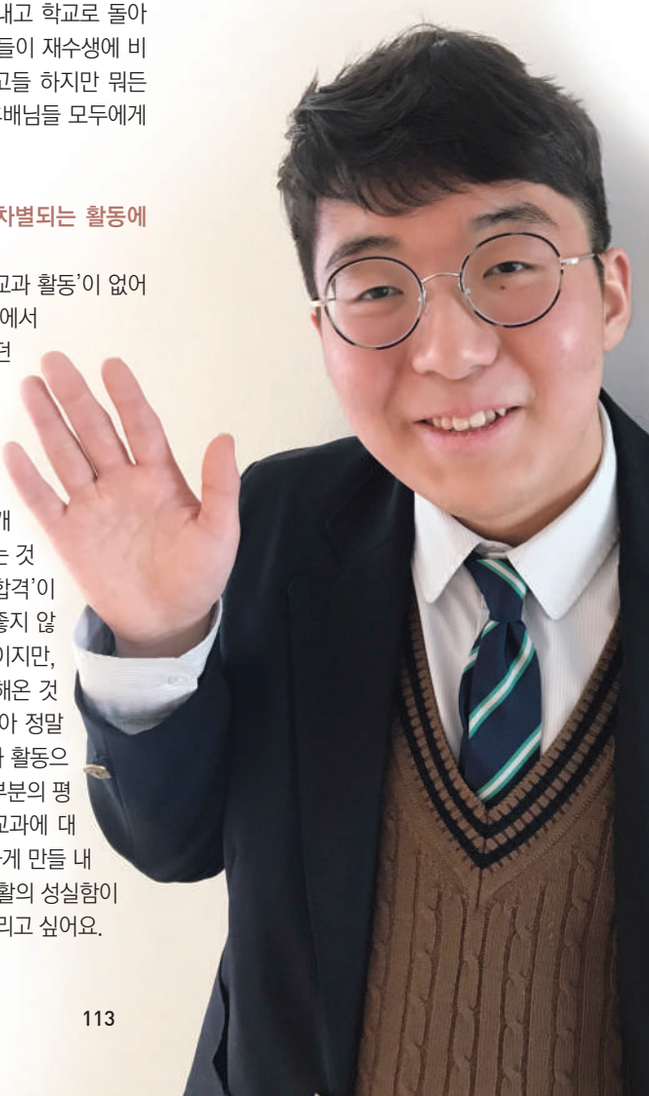
## 성균관대학교
## 인문과학계열
## 박준현

**선배님은 수시 합격뿐 아니라, 수능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선배님만의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던 것이 아마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늘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행평가 때나 체육대회, 학술제 같은 행사 기간엔 학교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때문에 그 기간에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공부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도 대부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저 역시 빡빡한 하늘고 라이프로 많이 고생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공부를 이어 가려고 노력한 점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귀가 날, 집에 가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모든 수행평가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뭐든지 자기하기 나름 아닐까요? 하늘고 후배님들 모두에게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남들과의 차별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하늘고에서 말하는 그 '특별한 비교과 활동'이 없어요. 그보다는, 제게 주어진 몇 개의 활동에서 최대한 성실하고 유의미하게 노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진로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RnE도, IIP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학습동아리를 두 개 만들어 그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어요. 물론 수시 기간에는 '합격'이 간절하여 다른 활동들도 많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정말 원했던 활동에 진지하게 임해온 것이 결과로 증명되니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는 특별한 비교과 활동으로 대학에 합격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비교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비교과를 무색하게 만들 내신과 여타 활동들에서 드러나는 학교생활의 성실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입 성공기

##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김선영**

**선배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수학이에요. 저는 1학년 때 수학 문제풀이 양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인 수학 공부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어요. 수학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저 스스로 면학시간 중 유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수학 문제풀이 시간을 정했고 이는 제게 수학 공부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주관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문제 번호 아래에 ○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표시를 했어요. ○의 개수를 0개에서부터 5개까지로 하여 어려운 문제일수록 ○를 많이 표시했죠. ○표시는 해당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하는 횟수와도 일치했고, 내신 시험 직전에는 ○가 4개 이상인 것들만 집중적으로 다시 풀어,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의고사 오답은 모의고사 당일 날 면학시간에 다시 풀어보고 해설을 확인한 후 오답노트에 문제만 옮겨 적어 놓았다가 문제 풀이를 다 잊을 때쯤에 오답노트를 보며 문제를 푸는 버릇을 들였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선배님만의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중간고사 직후에는 비교과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도 내신 공부에 소홀하지 않아야 기말고사에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을 잡기에 아주 좋은 소재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내신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수행평가를 동시에 하나의 비교과 활동으로 인식하여 수행평가 결과물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내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은 물론 생활기록부 기록에도 아주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록'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대입 성공기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이주철**

**선배님은 내신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들었어요.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저는 1학년 때 내신 5점으로 시작해서 3학년 때는 2점대(국수영 1.93)로 마무리했어요. 1학년 때 성적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총합으로 따지면 그리 높은 내신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과목 한두 개를 망쳤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못봤더라도 다음번에 더 잘 보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임했죠.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머리로는 냉철하게 실패를 분석하고 다음을 대비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1,2학년 내신이 낮다고 수시를 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3학년 때 성적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쟤, 미쳤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노력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신 성적을 올리는 건 정말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지 그만 고민하고, 그냥 바로 공부를 '시작'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엔 왕도가 없으니까요. 저에게 역시 그 '특별한' 공부법은 없어요. 다만 저는, 제가 남들보다도 늦게 시작했고,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니,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려요.**

특히 겨울방학을 열심히 보내세요. 겨울방학은 앞선 일 년의 실수를 보완하고 앞으로의 일 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특히 2학년 겨울방학이 고3 입시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2학년 겨울방학은 아주 중요해요. 일 년 뒤 입시가 다 끝난 후,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대입
성공기

# 서울대학교
# 컴퓨터공학부
# 주형진

**선배님은 모의고사 점수부터 수능 때까지 항상 초고득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셨다고 들었어요. 선배님만의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본게임은 정시에요. 내신과 비교과를 챙기다 보면, 잠깐은 수능에 소홀해질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길면 안 돼요. 논술이나, 학종 역시 안정된 수능 점수가 뒷받침되어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내신과 비교과를 해당 기간에만 챙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잊도록 노력했어요. 오래 붙잡는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일에 미련을 가져봐야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요. 모든 교과 활동은 수능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명심한다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수험생활 중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불확신이 가장 힘들었어요. 갑자기 6평 직전에 제 실력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하게 긴장하는 편도 아닌데 평가원 문제를 처음 봐서인지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과탐이 약하다 느꼈고, 그 원인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과탐을 풀 때 오래 걸린다는 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무조건 3분 이내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되, 확신이 없다면 별표를 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 해설을 보면서 별표 선지만 분석하고, 이를 백지에 따로 정리했죠. 앞면은 물1, 뒷면은 화2로 정해놓고 헷갈리는 선지들을 옮겨 적으며 해설도 저의 말로 풀어서 적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풀이법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 과탐 직전에 꺼내서 보고, 그 모의고사에서 헷갈리는 선지들 역시 또 그렇게 정리해요. 이런 식으로 체에 거르듯이 반복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선지가 아닌 이상 당황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자신의 실력에 대한 불확신은 독이에요. 실력을 쌓은 후에, 그 실력을 오롯이 시험지에 쏟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 필수예요. 보통 모의고사를 한 번 망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데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입
성공기

# 중앙대학교
# 의과대학 의학부
# 신주원

**선배님은 5기의 내신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배님의 내신 관리 비법 좀 공유해주세요.**

내신은 한 학기 농사와도 같아요. 하늘고에는 학기 중에도 많은 비교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기 중에 그런 활동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미리 방학을 이용해서 교과 내용을 숙지했어요. 그렇게 하면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비교과를 충실히 하면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면 예상 등급이 1등급인 친구들과 내 점수를 비교해, 기말고사엔 어느 점수 이상을 얻어야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수행평가 급간을 확인해 수행평가로 변별되는 과목도 미리 확인했어요. 그 외에도 학교 행사와 단위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기말고사 학습 계획을 미리 세워,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으로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많이 짜낸 것이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선배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늘고에서 가장 사랑했던 교과는 화학2였어요. 2주기 원자 홀전자수 1012321 등 암기해야 할 게 많았던 화1과 다르게 화2는 마치 내가 기체나 평형을 지배하는 느낌마저 들어, 가슴이 벅차고 설레서 수능 선택과목까지도 화2를 선택했죠. 하지만 산염기 중화적정처럼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단원과 다양한 화학적 상황, 엄청난 계산 등을 30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저 역시 막막했어요. 수능에서는 화2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까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누구에게라도 화2만은 지지 않기 위해 화2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공식을 개발해, 해설에 15분이 걸리는 묽은용액의 총괄성 문제 풀이를 20초로 줄여 계산과 시간 압박에 대처하고, PEET 일반화학 문제에도 도전하는 등 '모르는 화학 문제'라는 걸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된 건 화학 선생님께서 주신 화2 수업교재였어요. 제가 화학2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떳떳할 정도로 열정을 붓고 긍지를 가지며 결실을 쟁취했던 그 기쁨을 우리 하늘고 후배들도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화학은 진짜 막막했던 고교 생활의 불꽃이 될 만할 목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대입
성공기

# 고려대학교
# 수학교육과
# 오은미

**한결같이 지켜온 '수학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수학교육과'를 택하셨다고 들었어요.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려요.**

오랫동안 수학교사가 꿈이었지만 막상 두 대학에 모두 합격하고 나니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서울대를 선택하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일찍부터 대학에 가면 좋아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목표였기에 지금의 대학과 전공을 선택했어요. 어렵게 결정한 만큼, 대학에 가서도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제 꿈에 다가가 보려고 해요.

수능 수학의 경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답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3이 되면 많은 문제를 풀다보니 오답을 관리하기가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전 모의고사의 경우, 시험지에 직접 풀이를 써서 잘라 보관했어요. 문제집의 경우는 오답노트에 정리했고, 노트 맨 뒷장에는 단원별로 실수가 잦은 유형들과 주의사항을 메모해두었죠. 9월부터는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뒤에 적어둔 내용들을 매일 읽으며 실수를 줄여나갔어요. 그 결과 수능 수학에서 목표한 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중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그 누구보다 잠도 많고, 유혹도 많았지만, 절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확신 없는 수시'와 '주변의 기대로 인한 불안감'이었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수능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쩌지?', '수시가 다 떨어지면 어쩌지?'등의 걱정이 들 때면 무척이나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말한들 해결될 리 만무하고 주변 친구들 역시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고민을 쉽게 털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이들이 바로 룸메이트와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자신들도 힘들 텐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새벽까지도 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한바탕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곤 했어요. 룸메와의 대화는 고3 생활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후배님들도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응원하고 기대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선배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수학과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수학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학 성적은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컸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수학 성적 때문에 겪은 슬럼프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과학1은 3학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화학1을 지구과학1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공부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월 모평에서 4등급이 나오고 좌절했지만 개념을 탄탄히 하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수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겨울방학 때 과탐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R&E, IIP, 학동까지 교과와 비교과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비교과 활동량을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하나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신없이 생활하면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켜주었고 진정성 있는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을 주어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저만의 비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하늘고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입
성공기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학석사통합과정
# 이세령

대입
성공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이세령**

**선배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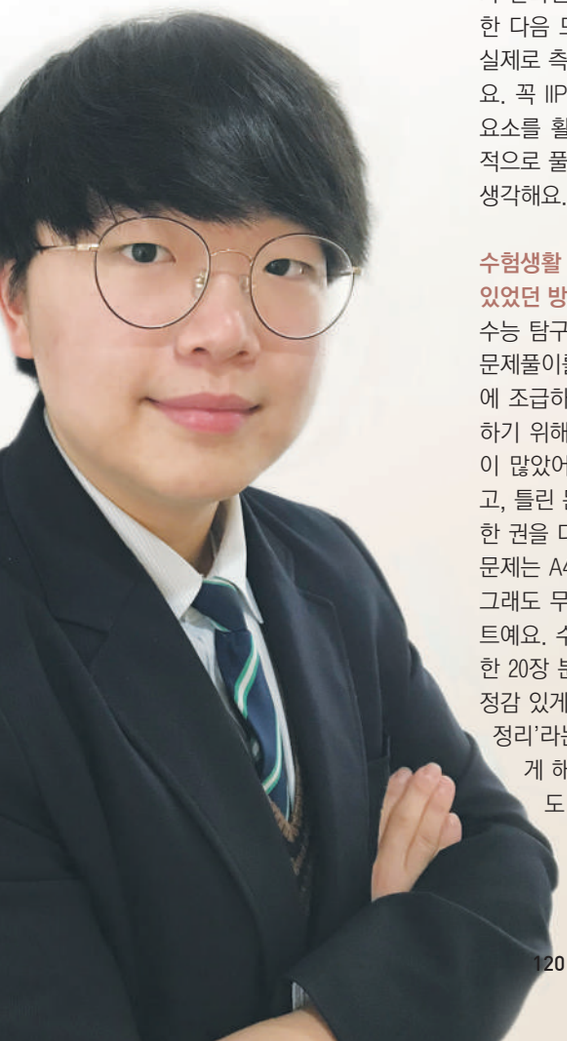
저는 수학과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수학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학 성적은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컸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수학 성적 때문에 겪은 슬럼프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과학1은 3학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화학1을 지구과학1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공부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월 모평에서 4등급이 나오고 좌절했지만 개념을 탄탄히 하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수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겨울방학 때 과탐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R&E, IIP, 학동까지 교과와 비교과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비교과 활동량을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하나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신없이 생활하면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켜주었고 진정성 있는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을 주어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저만의 비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하늘고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입
성공기

# 서울대학교
# 기계항공공학부
# **조형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남들과의 차별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내신에 비해 다소 상향했던 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비교과에 있다고 생각해요. 갈피를 못잡던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 때부터는 평소 관심을 갖던 '기계'에 맞춰 IIP 활동을 시작했고 거기서 3D프린터 조작과 모델링, 코딩 등 기술 모두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의수 제작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활동이 진행됐지만, 활동 내내 저는 이런 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IIP 이후의 기상관측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했던 것 같아요. IIP에서 배운 기술로 키트 제작에 필요한 모델링이나 3D프린터 조작을 제가 수행했기에, 지구과학을 잘 몰라도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죠. 한 번은 기상관측키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고도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후에는 키트를 소형화한 다음 드론에 부착해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상관측을 실제로 측정해보는 것까지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어요. 꼭 IIP나 RnE가 아니라도, 교과 내용이나 생활의 불편요소를 활동과 연결하여, 생각을 확장하고 궁금증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자신만의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험생활 중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수능 탐구로 생2를 결정했던 건 3학년 초였어요. 대부분은 문제풀이를 할 때쯤 저는 기본개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급하고 고민도 됐죠. 그 고민을 꼭 높은 점수로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과목보다도 특히 생2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기 중 매일 3시간씩은 생2 개념을 공부했고, 틀린 문제가 있는 페이지에는 포스트잇을 붙여,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면 표시된 페이지 문제들을 복습하고 어려운 문제는 A4 용지로 옮겨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저만의 오개념노트예요. 수능이 다가올 때까지 자주 헷갈리던 개념을 정리한 20장 분량의 개념노트는, 막판까지 흔들리던 개념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어 생2뿐 아니라 물리까지도 '오개념노트 정리'라는 방법으로 수능 전 마무리를 후회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었죠. 늦게 결정한 수능 과목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나만의 학습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배님을 보면서 자사고에서 한예종 실기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무슨 학과이고,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가 합격한 모집단위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각종 운송기기를 디자인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 운송디자인이에요. 2학년 말부터 약 1년간 주말을 이용해 실기 학원을 다니며 기초를 닦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곳은 3일간 교수님의 과제와 프레젠테이션을 소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원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혼자 준비해보고자 1차 실기 전에는 학원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 꾸준히 다양한 운송기기를 디자인해보고 좋은 자료는 카피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익혔어요. 2차에서는 해당 학과 선배의 도움을 받아 시험 전 마무리 작업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실기 3일째 프레젠테이션에서 교수님께서 제가 선을 시원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셨는데, 이는 한예종 준비와는 별개로 그동안 꾸준한 드로잉을 통해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님은 미술 준비를 하면서도 모의고사/수능 점수가 꾸준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가장 자신 있는 교과의 학습법에 대해 조언해주신다면요?**

상위권 미대는 성적이 높아, 공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영어 절대평가와 더불어,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는 미술 입시에서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과목은 국어였어요. 저는 수능 한두 달 전까지 문제를 꼼꼼하게 풀이하고 지문과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했고, 그 후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높이고자 했어요. 시중에 나온 문제는 모두 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평가원 기출과 각종 모의고사를 섞어 하루에 3회 이상, 한 회는 무조건 아침 6시 55분부터 65분간 시간 제한을 두고 풀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사탐과 국어에 올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확실히 시간 압박과 잠이 쏟아지는 조건 속에서도 정확히, 긴장감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수능 때 여유롭게 풀어낼 수 있었거든요.

대입
성공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 디자인과
# **박한이**

# 하늘고의
# Go Back

# 담임사용 설명서

part1. 1학년

## 1-1 김승호 선생님

• '김지호', '전찬웅' 언급 금지
• 탐슨처럼 팔굽혀펴기를 잘하면 편해요
• ※면학실 앞 승호조심※
• LG 우승 못한다고 말해주세요ㅎㅎ
• 생신 꼭 챙겨주세요 ㅠㅠ

## 1-2 김민철 선생님

• 하늘고 대표 꽃미남 검도 장인
• 가끔 노잼 드립도 웃어줘야 함(표정관리)
• 아침에 급식실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빵셔틀은 필수
• 하늘고의 진정한 명품선생님

## 1-3 최상규 선생님

• '금연', 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마시오.
• 하늘고 최고의 7할 타자!
• 앞에서 LG 욕을 하지 마시오
• 수요일은 상담, 질문 등 상규쌤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마시오.
• 무기력해 보이시오? 실은 이 시대 최고의 깔끔남이시오!

## 1-4 정주원 선생님

• JBJ, 우리의 영원한 부장님
• 벌점을 받는 순간 생각나는 그대의 포근한 얼굴
• 그가 끓인 라면, 당신은 먹어본 적 있나요
• 하늘고등학교 공식 Chef,
정식당 2시간 매진 실화?
• 맘스터치 쪽으로 정화 활동하러 가는



## 1-5 김민희 선생님

• "애기들~ (짝짝)", "졸래", "한 번만 설명한다, 잘 들어"
• 시험 기간마다 애인이 생긴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음
• 인간 디즈니, 졸귀♥
• 공부 안 하고 자면 승모근 발달시켜 드림
• 야외 수업과 국어 수업을 동시에 들을 수 있음 ★최상규 선생님★
• 제자 사랑이 넘치는 그녀, 언제나 당

## 1-6 김지연 선생님

• "끄지?"
• "재빠르게"(1학년 6반 체육대회 응원 구호였음ㅋㅋ)
• 하늘고 최강 츤데레
• 화나보여도 화난 거 아님(feat. 열일 미간)
• 인천하늘고 대표 early bird (부지런함

## 1-7 장예영 선생님

• 핑크 패딩 수학 여신
• 취식 중 보행을 하다 분홍색이 보이면…
도망쳐!
• 세상 모든 초콜릿♥ (단, 감초 초콜릿은 X)
• 손에 모터 달리신 듯. 엄청난 필기속도!

## 1-8 신미영 선생님

• 조심하세요, 화학 하는 여자예요
• "야 미쳤니??", "사부작 사부작"
• 예삐 콜렉터 ex)1반 박지호, 2반 권용호,
3반 최상규, 4반 최태웅
• 벌점은 거부한다
• 존니 예쁨♥

# 담임사용 설명서

part2. 2학년

## 2-1 이지현 선생님

- 감정변화 없는 차도남
- 잘생기고, 인기 많고, 노래까지 겸비한
  하늘고 최고 사기캐
- 선글라스 매니아
-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2대9 가르마 하고 다니심
- 한국지리에 소질 있어 보임

## 2-2 김민연 선생님

- '잘하자~', '옳지 못해', '휴↘↘' 등 수많은 유행어의 제조기
- 환기 마왕 (by 유재원)
- 하늘고 대표 쇼핑 호스트
- 상위 1% 골반의 소유자
- 쌤과 상담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은 자가 없다는 후문이...(밑에 2줄 더)

+ GO외출의 정의와 당위성 논합에서

## 2-3 전유림 선생님

- 이만큼 예쁜 국어쌤 본 적 있니
- 다들 미쳐쓰↗?
- 무심한 척 던져주시는 간식꾸러미.. 체고
- 전국에 수천만 예삐들 보유 예상 + 너도 될 수 있따
- 남친이 있는 듯 없는 듯. 과연 진실은?
- 유림선 타고 함께 했던 행복한 1년 여행!!

## 2-4 심주석 선생님

- 믹스커피와 담배의 조화
- "매개변수"
- 색분필과 함께하는 수학수업
- 하늘고 수학 동방신기 - 확통주석
- 100m 밖에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 후드집업
- 웃을 때 나오는 매력 넘치는 눈가 주름



## 2-5 이현주 선생님

- 현주쌤과 공부하면 전치사주
- 영어공부해듀오
- "니들이 안 되는 건 노오력을 안해서야!"
- 하늘고 존예보스 선생님 사랑해요
- 하지만 괜찮다. 말은 손보다 쎄니까
- 전교생 영어 캐리하신 킹갓제너럴판타스틱치즈시틱팝스틱립스틱포스틱 뱅

## 2-6 오대규 선생님

- "안녕하시게~~"
- 화나면 사라지는 푸근한 이미지
- 어마어마한 점수대의 볼링장인
- 좋은 노래 실력
- 어깨깡패
- 몸 좀 사리고 아프지 마시게 (6문항)

## 2-7 김혜민 선생님

- 하늘고 유일 지구과학 여신
-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 종례는 7교시 끝나고 1초 후
- 특기 : 지구과학 개념 머리에 때려 박기
- 2학년 7반의 제 2의 어머뉘!! 사랑함돠 )(

## 2-8 유철우 선생님

- 교사 중심 수업
- 내 맘 알지?/ 시펑피펑?!/ 낄끼빠빠!
-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름 운동 매니아 (배트민턴 부심 있음)
- 애창곡 : Bravo My Life
-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주말까지 이정도면 학교에 사시는 듯
- 툴툴대면서 막상 다 들어주시는 츤데레 style(6문항)

# 담임사용 설명서

part3. 3학년

## 3-1 배성규 선생님

- 옆머리에 항상 안경 눌린 자국이 있음
- 후문 경비실 앞에 자주 출몰
- 말달리자 잘 부름
- 의외로 귀여운 면이 있음
- 자리에 다 마신 믹스 커피잔이 쌓여있음

## 3-2 김경훈 선생님

- 지나, 라나 아부지 (밤에 잠을 못자서 다크서클이 심하니 조심)
- 드립천재 / 자소서를 낼 땐 자소서 말고 깨소서~
- 무려 3집 가수 / 마이크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왕이 됩니다(학부모 설명회에서도...?)
- 복도에서 걸어다니는 건 사치!! (feat. 날아라 슈퍼보드)
- 또 질~문!!

## 3-3 송남영 선생님

- 우리 남영쌤은.. 종례 마지막을 잘 못 끝내요...
- 다했다 싶으면 기립박수를 쳐 주세요...
- 우리 남영쌤은.. 귀여운 걸 좋아해요...
- 귀여운 걸 보면 남영쌤을 떠올리세요...
- 우리 남영쌤은.. 맛집.. 좋아해요...

## 3-4 김창재 선생님

- 학년 전체의 담임선생님 (feat. 전직 전인교육부장쌤)
- 전국 고3 전체의 담임선생님 (feat. EBS 스타강사)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하늘고 피카소(그래프, 원 등 판서 장인)
- 라면 진짜 자주 끓여주심 ㅎㅎ



## 3-5 김원석 선생님

- 절실한 눈빛만 있다면 손쉬운 control 가능ㅋ
- 상당한 업무효율! (전날 몰아치는 게 함정)
- 묵주 등 미신에 의지함 (스스로는 믿지 않는다 강조함)
- 독특한 컨셉 - 자신에 취한 척 (척이 아닐 수도 ㅋㅋ)
- 우리가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 웃다가 급정색, 발차기 등등
- ..... 없다 ㅠㅠ

## 3-6 이현영 선생님

- 한 번 알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 특유의 포스가 철철 넘치는 상남자
-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만 지킨다면 누구보다 자유로운 선생님
- 물주먹 푸딩펀치 애교딱밤의 대명사
- 일 년 동안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

## 3-7 이지혜 선생님

-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지만 마음만은 딸로 생각하는 츤츤美 넘치는 선생님
- 모의고사 당충전 걱정은 No! 코너 캔디샵 이지혜
- 안녀어~엉! 활기찬 인사로 밝은 하루를 열어주시는 선생님
- 모의면접의 끝판왕 이지혜
- 수업도, 미모도 언제나 최상위이신 꽃을 든 지혜쌤

## 3-8 김민경 선생님

- 연예인 뺨치는 미모와 몸매
- 조기성쌤 한정 츤데레 : 내 옆에 XY염색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 절대 멘탈을 해치지 않는 상담 전문가 "ㅇㅇㅇ아니면 누가 해"
- 조종례 때 갑자기 등장하는 화학드립, 유머 센스 갑!!
- 지덕체를 고루 갖추신 이 시대의 화학 여신님

〈교사앙케이트〉

#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 학창 시절의 '나'와 가장 닮은 학생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학년 3반 최정우 (우리 정우 놀리지 말고 왕따 시키지 말고, 잘해주세요!) –**최정우**

1학년 4반 정규채. 원리원칙 주의자처럼 보이는 푸근함, 답답함. – **정주원**

As a person, probably Jeong Jisung, since I identify with his strong sense of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As a student, I think I was somewhat like Jo Sang Hyeon, since he is kind, sincere and hard-working. I think I was kind of like that. – **John Cowie)**

3학년 1반에 저랑 닮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몇 번 구경도 갔는데, 서로 본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저보다 훨씬 더 멋져질 수 있어요...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건가'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하하 – **한재홍**

30102 권현수의 '능청' + 30109 김승일의 '오지랖' + 30119 신준호의 '진지' + 30130 진형건의 '순수' + 30116 서윤범의 '외모(?)' – **배성규**

너무 고분고분해서 눈 닦고 쳐다봐도 없음 (이현영)

축구 배성준, 언변 조예은, 리더십 최승완, 감수성 박신애, 목소리 최진혁, 이름 김순호, 조숙함 안현태 등등 – **김승호**

2학년 3반 수정이! 같은 진지충 – **전유림**

3학년 황정후 (교칙은 교칙일 뿐, 나는 나만의 규칙이 있다. 세상 아무 걱정이 없다.) – **이주호**

자발적으로 문학 동아리를 찾아갈 정도의 말랑말랑한 감성이 있다면♥ 거기에 같은 학년 모두와 인사하고 다니는 나대미라면 바로 고등학생 김민희입니다 ㅋㅋ – **김민희**

1학년 7반 정한나 학생들이 닮았다고 하는데 전... 글쎄? – **정아미**



### 선생님은 '덕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무엇에 깊이 빠지셨나요?

슬로우 라이프, 가족을 다룬 일본 영화(고레에다 히로카즈,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 영화들) – **최정우**

고등학교 때 게임과 애니에 잠깐... 롑업 하느라 하이얀 밤을 지새우며 엔딩 음악에 감격에 젖었던 그 날들 – **김경희**

달릴 수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음.

지금까지 구매한 것 : 전동 퀵보드, 퀵보드, 드래프트킹, 성인용 스카이 콩콩, 오토바이,

앞으로 구매하고 싶은 것 : 크루주 퀵보드, 시티코코 – **정주원**

When I was younger, I had a huge passion for a rock group called "The Cars". I liked them so much it became almost my identity in high school, since everything I had, my clothes, my books, everything was covered with Cars emblems and photos. – **John Cowie**

저는 픽사 영화를 좋아해 관련된 거라면 뭐든 다 챙겨보고, 관련된 것들을 삽니다! 그중 토이 스토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수 아이유 씨도 좋아해서 앨범이 나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장씩 사고, TV에 나오면 수고한다는 의미로 한 번씩 보고, 콘서트를 하면 수고하겠지?라는 의미로 한 번씩 가보는 그런 정도의 깊이인거 같습니다. – **한재홍**

책 많이 보는 덕질을 했었죠. 특히 판타지 소설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 하루에 4~5권씩 본거 같아요. – **김유한**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교환일기나 편지를 엄청 많이 썼어요. 담임선생님께는 1년 동안 있었던 학급의 에피소드를 노트에 기록해드리기도 했고요. – **정아미**

연극/영화 보러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 몰래 다녔던 극장들과 대학로 소극장에서 보았던 연극들에 대한 기억이 아련하네요. – **배성규**

초등학교 때 축구 기술을 익히려고 껌껌한 운동장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거 – **이현영**)

1. 시작은 이승환 : 초딩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콘서트 다님
2. 동방신기, JYJ : 일본 활동 영상 1테라 이상 보유, 뚜껑콘에 혼자 갔던 기억은 잊지 못함
3. 조승우 : 그의 뮤지컬은 모두 관람함 ㅋ 나의 티켓팅 실력을 올려준 분
4. 김연아 : 새벽에 일어나 경기 보고, 국내 경기, 갈라 모두 다 갔음
5. 정말 놀랍게도 임요환 : 이름은 알라나? 나 스타 오프 뛰던 여자야 ㅋㅋ
6. 디아블로 : 디아블로 게임 1,2,3에 확장판까지 다 있음 – **이지혜**

게임 덕후. 와우 상위 1프로 안에 드는 네임드 냥꾼으로서 다른 이들의 템 셋팅 상담자로 활약하기도 했지요...라고 쓰고 나서 지금 자리를 보니 라이언이 30여개... ㅋㅋ 지금은 라이언 덕후인가봐요. – **김승호**

① 운동화 + 농구화 모으기 (유명 농구선수 시그니처 슈즈, 나이키 한정판, 아디다스 등)

지금은 뭐.. 운동하기도 힘드네요 ㅠㅠ

② 펜 모으기(주로 샤프 : 한정판 혹은 조금 비싼 샤프들 모음. 집에 소장 중인 필통 속을 보면 조금 놀랄지도 ^^ㅎ) 수학 교사라 그런지 펜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샤프에 대한 애정도 남

다르고요. 아마 여러분이 쓰는 다수의 펜(특히 샤프)에 대한 정보는 좀 알고 있는 편입니다. – 김창재
덕질을 한 것은 딱히 없고, 10대말부터 변하지 않고 버닝한 건..... 술???? – 신미영
고등학교 LG특공대 활동. 가장 절정의 순간은 혈혈단신 혼자 LG깃발을 들고서 적진 두산응원단상에 꽂았던 순간 – 최상규
립 제품. 입술이 잘 건조해져서 립밤을 시작으로 모으다 보니 엄청난 개수에 이르렀다는...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위 사람들이 립 제품을 선물로 많이 줘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 – 송남영
최신가요 카세트 테이프 편집 및 복사 – 전민호
의외로 편지지 덕후입니다. 편지지의 질에 따라서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것도 있고, 겉은 예쁜데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는 저질 편지지도 있답니다. 제 방 왼쪽 서랍 세 번째 칸에 쌓여있어요. – 정진규
중학교 때 강동원을 너무 좋아해서, 강동원 다이어리, 강동원 필통 등 다양한 문구류 만들어 사용했어요 ㅋㅋ – 유은환

## 선생님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10년 전 외고에 있을 때. 한 달 보충으로 엄청난 액수를 벌었으나 돈 쓸 곳이 없었음 (하지만 비만을 얻고, 건강을 잃음) – 정주원
I'm sure it was the birth of my daughter. Everyone says that, but for me it was actually true. The feeling of meeting a person for the first time who is half you is an indescribable emotional and spiritual catharsis. – John Cowie
언제나 똑같은... 암흑기도 전성기도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 이지현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2017년도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요즘 같은 지대한 관심을 받아보겠습니까? 하하하하 장난이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기에 2017년을 나중에 늙어서라도 기억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한재홍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밴드를 했어요. 진짜 연습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연습하고 그랬죠. (지금은 물론 안 한지 꽤 돼서 못합니다 ㅎㅎ – 김유한
25살, 첫 번째 교직 경험을 했던 고등학교. 학교가 멀어 집에서 버스 첫차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교문을 지나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났었다 – 김민희
대학교 1,2학년 때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깨지고, 마시고, 울고, 그리고 끄적였던 기억들... – 배성규
글쎄... 언젠가는 오겠죠? – 정아미
항상 전성기. 무엇을 하든 간에 매순간 끝장을 보면서 즐김 – 이현영
대학교 시절. 조직폭식집단(조폭)인 '꽃반지파'를 결성하고, 그들과 방학마다 유럽, 일본, 홍콩 등등 여행 다니던 때. 넷이서 선배들에게 밥과 술을 사게 하고, 같은 과 남학생 집단 '쓰레



기파'와 조인하여 강릉으로 여행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름. 우리 멤버 쭈꾸미, 금순이, 뽈뽈이.. 우리 이번 주에 회합이나 한 번 할까? ㅋㅋ – 이지혜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 여학교에 팬클럽이 결성되어 있었고, 발렌타인데이 때 집 앞에 찾아온 여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야 누구나 있는 경험이니까요. – 김승호
지금 현재 – 전유림
고2 때요. 그 전까지 알아들을 수 없던 수업이 신기하게도 들렸기 때문이죠. "시험에도 나오고 다른 친구들도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공부했는데, 제 성적만 올라서 당황스럽고 공부가 정말 신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공부가 제일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그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농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좀 잘했었음. 영어 공부는... 고3이 전성기 – 김창재
1997년~2002년. 놀아도 놀아도 시간도 남고 체력도 남았던 그 시절 – 최상규
22살♥ 그때는 좀 귀여웠던 것 같....(퍽) 농담이고 3학년 3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2017★ 이런 아이들이면 담임을 계속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순간이 기쁨이었다 – 송남영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 이주호
대학교 3학년 – 전민호
의외로 제대하고 난 직후.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차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시점을 정하기보다 지금 현재를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 정진규
만2세~만4세까지의 약 3년 동안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대전 용문동이 낳은 대스타, 아주머니들의 워너비, 소유하고 싶은 꼬마 1위 등등, 많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5세에 접어들고 머리 사이즈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오대규
지금? 항상 현재가 최고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 유은환

## 다음 세상이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만은 절대 피하고 싶다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시 태어나도 교사, 피하고 싶은 다음 생은 최상규 (이유? 교사가 안 되면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 정주원
I would want to be rich in my next life, just to see what that would be like. I know I definitely would not want to be Korean, just because I would never want to have to take the Sunung. – John Cowie
저는 미국사람으로 태어나서 디즈니랜드 청소부가 되더라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게 꿈이라서 연예인도 되고 싶네요! 사람의 꿈은 끝이 없네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잘하는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수학 선생님도 하고 싶어요.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건 없어요! 만약 다시 태어나도 성격은 비슷할 테니, 뭐가 되었든 긍정적으로 살 것 같은데.. 아, 모기는 좀 싫을 것 같네요. 밥 먹으려면 다들 죽이잖아요. 배고픈데... – **한재홍**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극배우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 **배성규**

피해야할 거는 이현영 부인. 개고생함 – **이현영**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 피하고 싶은 것은 하늘고의 노린재 – **김민희**

태어나고 싶은 것은 김승호 Again or 황나리 / 피하고 싶은 것은 김지호 – 10105) – **김승호**

수학 교사가 안되었으면... 성우나 성악가가 되었을지도.... – **김창재**

내 친구 마누라! – 중앙지검 판사로,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집안도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가졌음) – **신미영**

인도여행 중 그 나라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걸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다시 태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 **정아미**

다시 태어나도 최상규 – **최상규**

딱히 '무엇'도 '그것'도 없다 – **이주호**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 vs 하루살이 – **전민호**

저는 인연설을 믿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지금 생에서 저와 잘 지냈던 사람과 다시 만나 더 잘 지내고 싶고, 제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가 원한이 되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 **김혜민**

다시 태어난다면 제주도 해변가의 야자수가 되고 싶어요. 매일 예쁜 바다를 보며 그 자리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건 없어요 ㅋㅋ – **유은환**

## 가장 짧게 만난 이성에 대한 기억, 왜 그만 만나셨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여학생 (집 앞에서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그랬는데 쿨하게 보내주어서 다음 날 헤어짐) – **정주원**

상대방이 새로운 이성에 반해 그 사실을 숨기고 구차한 변명을 하더니 헤어졌어요. – **정아미**

I was dating a girl in college, she was very pretty and I really had big hopes for her. One day we were walking and a homeless man asked for some money. She was really very mean to him and it changed my opinion of her so much that I could not be with her anymore. She stopped looking pretty to me after that. I have no patience for people who are unkind to others for no reason.

– John Cowie

미팅 대타로 나가 첫 만남 → 가슴이 뛰었음 → 데이트 시작함 → 같이 가슴이 뛰는 줄 알았음 → 그녀에겐 '영혼의 절반'이라고 불리는 '그'가 있었음 → 우리의 추억이 깃든 카페 'DINO'를 떠나 4호선 혜화역에서 그녀는 '상계'방면으로 나는 '사당'방면으로 반대 방향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헤어졌음 → 청첩장 날라 왔음 – **배성규**



우리 집사람. 언제 그만 만날까 ㅋㅋㅋ – **이현영**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 약 1시간을 같이 있었음. 자기는 집에서 조신하게 집안일 해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밥만 먹고 박차고 나옴 ㅋㅋㅋ – **이지혜**

대학 때 같이 수업 듣던 쿠로이시 마나미누나.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수업을 함께 들었어요. 누나는 한국어로 제게 편지를 써주고 저도 일본어 잘하는 형에게 부탁해 일본어로 편지를 쓰면서 친해졌는데, 결국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누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おげんきですか? わたしたちは、げんきです。 – **김승호**

95년도 3월에 했었던 4:4 소개팅. 한 번 만나고 안 만남 ㅠㅠ 그녀에겐 내가 별로였나 봄. (아..... 눈물 한 번 닦자.....) – **김창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난 이미연 닮은 그녀. 6시간을 기다려서 번호도 받고, 사귀게 되었음. 만난 지 3주. 닭갈비 먹으면서 껍질을 떼서 먹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음. 바로 잠수탐. 그 이후로 이성의 외모는 다 부질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 – **최상규**

현실적인 이유로 두 달 정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후회가 남는 사람인데,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감정을 누르고 헤어지는 게 현실적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상대방의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 **정진규**

욱하는 성격 때문에~ – **유은환**

입대 보름 전에 만나기 시작. 입대하고 100일 휴가 직전 헤어지자고 통보함. 옛날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으나, 내가 군대를 간다고 하니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여친이 돼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 먼저 이별을 통보함. (이별 통보 후, 이별의 감정까지 느끼게 해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써놓고 보내지 못했던 편지를 난도질해서 소포로 보내옴. 헤어지길 잘 했다고 생각하며 무서워서 모두 불태움) – **천도현**

'만났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최단 시간의 기록은, 한 3년 전에 소개팅에서 본 남자. 만나고 한 20분 만에 결혼하자고 해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 – **김민희**

## 교과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담당하시는 교과목을 의미 있게 소개해주세요.

영어는 다른 세계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능 때문에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지만, 원어로 된 다른 생각을 읽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 않나열? – **최정우**

지리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공부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 현상들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평생토록 계속 상기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일단 하고 나면 잘 까먹지 않는다. 그리고 해놓고 나면 대학 교양수업 때까지 오래오래 써먹을 수도 있다. 열심히 해보자! – **이지현**

영어는 많은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의 도구입니다. 영어로 구글링만 해봐도 국내 포털 한글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접할 수 있지요 – **김경희**

☞ 수학은 참으로 재미없는 과목으로 가르치는 나도 힘듦. 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과목이므로 비논리적인 인간들과 싸울 때 무척 유용함 – **정주원**

☞ We live in such a lucky time in which information is so easily available to us, and my biggest passion is just sitting on the internet and looking at recent discoveries and other science stuff. Once, when I was walking outside I saw a spider eating a bug, so I stopped to watch for like 30 minutes, because stuff like that is so profoundly interesting to me. Learning is a lifelong process that is not just confined to school – **John Cowie**

你好! 我是教你们汉语的韩在鸿老师! 中国很大! 有很多玩儿的地方和很多吃的东西。如果你要在中国吃着玩儿，得要学什么呢? 汉语!! 是吧? – **한재홍**

물리는 사랑입니다♡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예요. 익숙해지면 무엇보다 쉬운 것이 물리입니다~ – **김유한**

나는 난쏘공의 난장이가 왜 굴뚝에 올라갔을까를 생각했고, 객지의 노동자 동혁의 분노에 공감했으며, 기형도의 열무 삼십 단 이고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의 외로움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게 문학의 힘이다. 사회과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문학이 주는 공감의 힘에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효과적이며 강렬한 수단이 문학이다. 어떤 전공을 공부하든지 한 달에 한 편 이상은 소설을 읽는 제자들이 되거라 (배성규)

재미없어서 미안하다. 재미있는 거 하고 살자. 그런데 하나 포기하면 둘 포기하고 나중에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 – **이현영**

역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저도 역사를 잘 모르겠어요 ㅠㅠ – **김승호**

국어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답안지에 있는 답만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해답일 수 있으니, 무엇에도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 **전유림**

흥미 없으면 하지 마라, 난 강요하지 않는다! – **신미영**

주위를 둘러보면 물리에 관련한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물리 덕분이죠.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일단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한 번 파헤쳐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정아미**

고전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고전공부는 과거와 대화하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 **최상규**

체육은 몸과 마음을 두루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교과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체육을 잘할 필요는 없으나 즐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인생 종목을 꼭 찾고 이를 통해 윤택한 삶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 **김민철**

체육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나?! 태권도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 **이주호**

영어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과목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영어가 되는,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 수능 형태의 문제만 푸느라고 영어에 싫증을 느끼는 학생들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그 흥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민호**

미술에 재주가 없다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정도만 그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 **유은환**

재밌는 영화 선정 → 여러 번 감상 → 대사가 익숙해질 즈음 → 자막 없이 보기 – **황혜경**



## 선생님께서는 쉬는 시간, 혹은 쉬는 날에 무얼 주로 하시나요?

족욕 – **최정우**

가족과 함께 놀거나 다음 주 생존을 위한 집안일 – **김경희**

청소, 빨래, 설거지 그래도 남으면 운동 또는 음주 – **정주원**

Well, besides watching bugs, I like cooking because being an American in Korea there are a great many foods I miss sometimes, and living here has really helped my skills in the kitchen, as I am able to really cook some things pretty well now. – **John Cowie**

☞ 늦잠 자기, 친구 만나기, 카페 가기(신메뉴 시음, ♥고구마라떼♥), 영화 감상, 레고 조립, 독서 (한재홍)

☞ 잠을 잡니다. 혹은 요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김유한)

☞ 여유가 있으면 자전거를 끌고 10분쯤 달려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눈이 서늘해지는 푸른 빛깔 바닷물은 아니지만 서해의 흑회색 갯벌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배성규)

☞ 가족들이랑 놀러가기 (이현영)

☞ 걷기. (반포에서 잠실까지도 걷습니다) 혹은 청소. 집 청소, 차 청소, 창고 청소 등등. 특히 차 청소를 좋아하는데 왜 아저씨들이 차량 광택샵에 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저씨가 되어가나... (아련) (정진규)

☞ 수업 준비(진짜임.. 진짜라규... 수업준비, 강의준비 해야 돼), 아들과 레고 조립, 청라 호수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빨래 정리 등등 (김창재)

☞ 집에서 계속 쉬어요. 집순이 (유은환)

☞ 쉬는 날은 출근을 합니다. 쉬는 시간엔 면학실 지도를 하지요 ㅎㅎ 그래도 가끔 출근을 안 할 때(=아내와 시간이 맞을 때)는 맛집 탐방과 요리를 하고 조금 더 시간이 길게 나면 여행을 갑니다 (김승호)

☞ 세상 구경, 집에 붙어 있으면 더 좀이 쑤시는 성격임 (전유림)

☞ 먹기!! (냠냠!! 쩝쩝!!!) (신미영)

☞ 최근 웹툰을 보기 시작해서 섭렵하는 중.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ㅋㅋ 왜 학생들이 웹툰 보려고 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프리드로우' 라는 작품은 정말 존tothe잼ㅎㅎ(너무 늦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한 번에 100회까지 정주행. 토요일 기다리는 재미로 일주일을 삽니다) (송남영)

☞ 산책을 자주 합니다. 동네 공원 등을 가족과 함께 산책하다 보면 그간 쌓였던 감정도 해소할 수 있고 지난날을 회상할 수도 있어 좋습니다. 또 바쁜 일상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해줍니다 (김민철)

☞ 집에 있음 (전민호)

☞ 쉬는 시간에 반드시 하는 것은 요일마다의 웹툰 감상입니다. 네이버 목요 웹툰 '계룡 선녀전'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오대규)

☞ 여러분 빨래 구겨져 있는 거 봤나요? 그게 바로 주말의 접니다 (김민희)

☞ 담당 업무 처리, 독서, 여행, 요리, 청소 (주부의 삶... 흐흑) (정아미)

## 선생님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시는 문구나 명언, 짧은 글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진인사대천명.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걱정하지 말자. 되는 일이면 될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김경희)
☞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정주원)
☞ Hemingway said, "There i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en. True nobility lies in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I think this reminds me that life is a constant, fluid process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growth, and the jealousy and smallness which lies in comparing oneself to others. (John Cowie)
☞ 'Active Evil is better than Passive Good / 능동적인 악이 수동적인 선보다 낫다' 는 말인데, 다들 선함을 추구하지, 악을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것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한재홍)
☞ 진인사대천명. 고3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죠.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도울 거야." (김유한)
☞ Que Sera Sera(케세라 세라) 이루어질 일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배성규)
☞ 동서남북 사방팔방 언제든지 어디든지 날아가자 (이현영)
☞ 밤하늘이 무슨 색인지 아니? 지금은 비록 어두워 깜깜하게 보이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파란 하늘색이야. 지금 너희를 둘러싼 환경들이 어두워 보이더라도 너희는 늘 푸르게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렴~ 너희의 꿈을 항상 응원한단다 (김승호)
☞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박노해, 별은 너에게로) (전유림)
☞ It ain't over, till it's over (김창재)
☞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순간을 돌아본다. 그 순간이 지니는 의미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드는 생각.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와닿는 말.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 (이지현)
☞ 조금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흔히 그래. 조금 좋아해 놓고 사랑한다고 말해 버리지. 하지만, 조금 좋아하는 것이 절대 사랑일 수 없어.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마.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을 위해 아껴야 해 (어린왕자 중) (신미영)
☞ 싸이 챔피언 가사 중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이주호)
☞ 역지사지 (전민호)
☞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이상, '이런 詩' 중) : 볼 때마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무슨 의미일까... 하고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이상 작가가 겪은 일 자체에 주목해도 좋고,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되뇌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규)
☞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난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라. 좀 길지만 때때로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자주 생각하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유은환)
☞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황혜경)
☞ 너만 힘들게 세상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널 이해해... 라는 하상욱 시인의 글 (정아미)



## 선생님은 '하늘고 학생들'의 어떤 점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 (김민희)
☞ 좋은 선생님과 공부 환경 (최정우)
☞ 고등학생이라는 그 자체. 무언가에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 (정진규)
☞ 인성과 예의를 갖추고 사회적 지능이 높은 성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난 저 나이 때 천둥벌거숭이였지 (김경희)
☞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비하여 학생들 착하고 4가지가 있음 (가끔 없는 놈들도 있지만 참을 만함) (정주원)
☞ I think my life would be quite different if I ha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our students have. I understan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ppreciate it with the immense pressure they are under, but they truly are getting an education in the top 1% anywhere. (John Cowie)
☞ 지금 뭐든 할 수 있는 미래와 젊음 (정아미)
☞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부러워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 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을 알고 서로 인사하며 반갑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친구들과도 돈독해지고 즐거울 것 같아요! (한재홍)
☞ 다 예쁘고 잘생겼음 (배성규)
☞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머가 부럽노 하나도 안 부럽다. 죄수들이라서 그런지 착하고 말을 잘 들어 (이현영)
☞ 급식을 정량으로 받는 점. 교사가 되고 나니 맛있는 반찬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네요. 아, 학생들 부럽다 ㅋㅋㅋㅋㅋ (김승호)
☞ 스페셜 데이 (반 친구들과 단체로 1인 1닭을 해볼 기회가 없었음) 열정, 도전, 패기(결과에 상관없이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는 때는 지금뿐) (전유림)
☞ 1분도 안 되는 등하굣길. 진심 부러움 (김창재)
☞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는 점 (1학년과 3학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주호)
☞ 다양한 인간관계와 친밀도 (전민호)
☞ 매일 친구들과 먹고 자고 공부하며 추억을 많이 쌓는 것 (유은환)

## 선생님은 학창시절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나요? 어떤 선생님이셨으며 어떻게 하셨나요?

☞ 고2 담임선생님이자 수학 선생님. 나의 작은 일탈과 방황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음. 매번 수학 서술형 확인 때, 빈 답안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게 괴로워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음 (김경희)
☞ 중학교 2학년 때 청순가련 교생 선생님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침 현관 청소를 위해 일찍 등교함ㅋㅋ) (정주원)
☞ In university, I had a history professor named Doctor Fields. He specialized in Chinese history, and his lectures were so colorful and interesting, it was like he brought ancient China to life in my imagination, and it was so much more than just learning for a test, it was authentic intellectual growth. I took every course possible from him in my university years, and I am sure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my decision to live here in Korea, since we studied a lot of Joseon as well. (John Cowie)
☞ 고3 때 기벡 선생님. 좋으신 분이셨죠 ㅋㅋ 야자하고 있을 때, 3~4명 되는 애들 얼굴을 스케치해서 주셨어요. 한동안 간직하다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김유한)
☞ 중학교 때 팝송 가사를 인쇄해주시며 함께 팝송을 신나게 불렀던 김경숙 영어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배성규)
☞ 중학교 3학년 때 윤종태 담임선생님. 평소에는 매우 엄하신데 한 명 한 명 챙겨주시고 일과 후에는 음료수를 박스째 사놓고 축구하고 놀아주심 (이현영)
☞ 학창시절은 아닌데 교직에 나가서 좋아하는 선생님이 뒷자리에 앉아계셨지요. 그 다음해에는 대각선 뒷자리, 그리고 그 분이 지금은 항상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이랍니다 (김승호)
☞ 고3 담임선생님(한문 선생님). 대학 합격 소식에 같이 우셨음. 그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음 (전유림)
☞ 고등학교 때 전교생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던 사슴눈의 소유자, 지구과학과 우윳빛깔 김광수 선생님♥ 지구과학 시간이 되면 교탁 바로 앞자리 친구에게 자리 좀 바꿔달라고 부탁해서 안경 렌즈 위에 하트 포스트잇 두 개를 붙이고 선생님 맞이했던 거, 선생님이 집필하신 문제집 전교에서 일빠로 구매해 밤새서 다 풀어가 질문했던 거, 늦잠 자서 머리 안 감고 온 날 시간표가 바뀌어서 지구과학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대걸레 빠는데 가서 머리 감았던 거 ㅎㅎ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민희)
☞ 한문 선생님. 우리 반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 유일한 미스 샘이셨음. 상당히 명랑, 활달하셨으며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많으셨음. 그 샘 덕분에 한문은 거의 전교 1등이었음 (어쩌다 하나 틀리거나 다 맞음. 참고로 나 이과 ㅋㅋ) (김창재)
☞ 정승호 선생님^-^ 탤런트 최수종을 닮으셨던 화학 선생님! 잘생기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난 잘생긴 사람이 쪼아^^) (신미영)
☞ 초등학교 5학년 때 안국희 선생님. 우리학교로 처음 부임하신 거라, 우리랑 친구같이 지내셨다. 난 선생님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내 교사 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이다 (최상규)



☞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의 담임교사셨던 손종철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정년퇴임하시는 원로 교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김민철)
☞ 위트와 재치를 겸비한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 수학을 잘 가르쳐주셨는데 왜 제 점수는요? 이 모양이죠? (정아미)
☞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점심시간쯤 등교했는데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왔다고 칭찬해주셨다. 아마 그 이후로 최대한 학교는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주호)
☞ 영어, 음악, 수학 선생님. 모두 수업에 있어서 최고를 보여주신 선생님 (전민호)
☞ 도덕 선생님이 참 예뻐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쁨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6등급이 나와서 선생님이 "넌 도덕이랑은 안 맞는 거 같아"라고 하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진규)
☞ 고3 때 처음 학교에 부임하신 '50미터 송혜교' 영어 선생님을 사모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영어시간 시작 전마다 선생님께서 올라오시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떴다 버렸다 하기를 수십 번씩 했고, 종이 치고도 복도를 어슬렁거리다 선생님이 들고 오시는 카세트를 슬그머니 뺏어서 교실로 먼저 왔고, 1교시가 영어수업인 날이면 아침에 샤워가 아닌 목욕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가장 오래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연구하여 교무실에 남아 있는 사람 수가 가장 적은 시간을 골라 찾아가기를 고3 내내 반복했습니다 (오대규)
☞ 고등학교 때 미술선생님! 자유롭고 너그러우셨어요. 어떤 날엔 뛰어나가서 놀며 식물 잎사귀로 그림을 그리는 등 자유롭고 즐거운 수업이 인상적이었어요 (유은환)
☞ 학생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도 생각해보자." 하며 잠깐 칠판 앞을 서성이던 선생님. 그땐 '선생님이 답을 모르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내공의 선생님 (황혜경)
☞ 중학교 때의 역사 여 선생님. 키크고 날씬하고 코도 오똑한 여 선생님이었는데(수업은 1도 기억 안 남) 속으로만 조용히 좋아했었음. 그런데 방학 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방황했었음 (천도현)

# 인생극장: 선생님의 선택은?

### 과거 내가 찼던 이성이 전혀 다른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 나를 설레게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에잇! 어쩌겠어. 쿨한 척 내 가던 길 가야지 (그러나 속은 쓰리다...) (김경희)
☞ 내가 너 때문에 못산다면서 부인을 원망함 (정주원)
☞ 전혀 다른 멋진 모습이라도 제가 좋아했던 그 시절 그 모습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척대지 않고 설레지 않는 척하고 집에서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한재홍)
☞ 차여만 봐서 상상이 안 되네요(쥬륵) (김유한)
☞ 자녀들의 진학 상담 (배성규)
☞ 이번엔 전혀 다른 멋진 모습으로 찬다.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승호)
☞ 설레는 마음을 부여잡고 노상관. 전혀 다른 모습이어도 그놈은 여전히 그놈 (전유림)
☞ 좋았던 기억만 간직해야지... 추억은 추억일 뿐! 지금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자. (결코 찼던 이성이 없어서가 아님!) (김창재)
☞ 또 찬다 (신미영)
☞ 과거의 내 과오와 실수를 정중하게 사과한다 (최상규)
☞ 과거에 깠다면 이유가 있는 거야. 미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김민희)
☞ 미안해... 이미 난 유부녀야... 늦었어 ㅎㅎㅎ (정아미)
☞ 설렘은 한순간! 깠으면 다 이유가 있는 법 (이주호)
☞ 난 현실주의적인 사람. 설레게 될 일 없음 (전민호)
☞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얘기한 다음에 각자의 인생을 갈 것 같아요. 물론 헤어진 후에 달라져서 잘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헤어졌다면 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진규)
☞ 먼저 내가 누군가를 찼던 경험이 있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대규)



☞ 모르는 척 한다 (유은환)

### 선생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가장 비싼 값으로 매겨질 만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가족들에게 있어서 내 존재 자체. 왜냐하면 대체 불가니까. 다른 가족들이 나에게 있어 갖는 존재 가치 또한 그러하다 (김경희)
☞ 우리 부인 (내 인생에 가장 잘한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결혼이기 때문에) (정주원)
☞ 가장 비싼 값으로 매겨질 만한 것은 제 사진들이요! 누가 사겠냐마는,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제가 다시 제일 비싸게 살 것 같아요! (한재홍)
☞ 살면서 만난 인연들 (김유한)
☞ 나의 가족들과 제자들과의 추억 (배성규)
☞ 나에게서 찾는다면 열정!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열정으로 커버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 찾는다면 소중한 만남들!! 아내와의 만남, 주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학생들과의 만남 (김승호)
☞ 내 사람들(감사합니다♥) (전유림)
☞ 화폐 단위로 매겨질 것들 중에서 제일 비싼 건... 아마 집이겠죠? 억 단위일 테니... ^^ (가족이나 사명감, 인내심, 사랑 등등 무형적인 것들은 제외했음. 이런 것들은 환산이 불가능하니까) (김창재)
☞ 우리 신랑! (신미영)
☞ 차고 넘치는 창의력. 광고 회사에 들어갔으면, 장난 아니었을 거라고 종종 생각함 (최상규)
☞ 우리 아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이렇게 예쁘게 (?)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염. 엄마는 이 글을 보고 부디 삐치지 않기를... (송남영)
☞ 나. 내가 막 가치가 높다기보다 딱히 돈 될 게 없다 (이주호)
☞ 생명 (전민호)
☞ 지금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진규)
☞ 마음 (유은환)
☞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 mini's♥ (김민희)
☞ 연하 남편. 앞으로 헤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보다 더 오래 월급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친구와 동료들. 사람은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아미)

###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난다면 부탁하고 싶은 선생님의 넘버 원 소원은 무엇인가요?

# 1학년 1반

## 김승호 선생님

# 1학년 1반

## 인천하늘고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1. 강태영 처음으로 밤새서 공부해보기
2. 김남준 논문 쓰기, 화장실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기
3. 김민준 삭발하기, 혼자 살기
4. 김재영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보기
5. 김지호 매 쉬는 시간마다 웹툰 보는 친구(이성수) 컴퓨터 끄고 도망가기
6. 박나민 기숙사에서 유튜브 노래방으로 노래 부르기
7. 박승빈 화장실에서 숨죽이고 라면 먹어보기
8. 박지호 겨울에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운동장 다섯 바퀴 뛰기
9. 박태우 기숙사에서 레슬링 해보기, 삭발하기
10. 신윤섭 밤새 영화보고 다음날 저녁까지 자기
11. 양재혁 삭발하기
12. 유승원 공중전화로 전화하기
13. 유진우 화장실에서 이불 깔고 밤새면서 공부해보기, 제일규랑 한 침대에서 같이 자기
15. 이도현 다이어트하기
16. 이성수 삭발하기
17. 이종원 삭발하고 화장실에서 신문지 깔고 밤새 공부하며 치킨 먹기
18. 임재성 6시 30분에 기상하기
19. 전찬웅 기숙사에서 만찬을 즐기기
20. 정성훈 오전 5시에 일어나기
21. 정준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
22. 제일규 한 침대에서 남자랑(유진우) 자기, 시험공부 시험 날 아침에 처음하기
23. 최승완 라크로스♡, 논문 쓰기
24. 하준수 커피 먹고 밤새기
25. 한동엽 화장실에 신문지 깔고 12시간 동안 라면으로 의식주 모두 해결

# 1학년 2반
## 김민철 선생님

# 1학년 2반

## 기숙사에 살면서 본래의 내 모습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비슷해진 점은 무엇인가요?

1. 권용호 문을 열고 샤워하게 되었다.
2. 김민후 수건을 아껴 쓰게 되었다.
3. 김범수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샤워를 아침마다 하게 됨
4. 김승구 친구들의 가스 방출에 익숙해짐
5. 김재현 라면을 한 번에 3개 먹을 수 있게 됨(삼각김밥은 물론이고 ㅎ)
6. 김준희 기숙사 룸메들이 다 늦게 일어나서 나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 됨
7. 김태응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8. 노 설 내가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다
9. 류태하 친구들과 옷(팬티)을 공유하게 됨
10. 문준원 학기 중 일요일에는 12시 전에 못 일어남
11. 박건후 밤샘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12. 박현근 샤워할 때 가수처럼 노래 부르게 됨
13. 서주연 친구들에게 썰을 풀게 되었다
15. 윤성재 기숙사에서 열창하게 되었다.
16. 이한국 어쩔 수 없이 한 화장실 안에서 둘이 같이 샤워를 함
17. 장재연 노래가 늘었다 〉-〈
18. 전진택 아침 7시 전까지는 모든 소리를 못 듣게 되었다.
19. 전철우 병교와 함께 〈사랑과 전쟁〉을 찍게 되었다.
20. 진건영 대장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화기관의 병을 경험했다
21. 최우진 김승구의 트림에 익숙해짐
22. 최진혁 어그로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23. 한규완 일찍 일어나게 됨
24. 황인건 애들이랑 더 많이 이야기하고 쾌활해진 것 같다. 라면 먹으면서 감시망을 피하는 스킬이 는 것 같다
25. 고정원 이민수 비위를 맞추게 되었다

1학년 3반

최상규 선생님

# 1학년 3반

## 인천하늘고등학교 TMI

1. 권우인 커다란 알람이 필요해...
2. 김병찬 기숙사에서 먹는 라면은 타이밍이 생명!!!
3. 김상현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단다.
4. 김순호 하늘고는 친구관계가 생명
5. 김재욱 못할 것 같지? 다해~
7. 김태웅 시험 기간에 연장학습으로 무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2~3일 전에는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해!
8. 김태준 하늘고등학교 3대 금지어! 못생김. 얼굴. 얼평
9. 류경훈 건조할 때 화장실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5분 있다가 열면 방이 핫해져~
10. 박찬혁 생활관 쌤께 잘 보이면 점호 끝나고 쌤 돌아다니실 때 방에 안 들어오신다.
11. 송인규 이성교제는 무조건 비밀유지가 제일 중요해!!
12. 안현준 usb말고 클라우드 쓰기
13. 안현태 생활관 쌤이랑 친해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14. 이민준 학기 초에는 선비 컨셉이 중요하다. 자신의 불타오르는 욕망을 잠재워라
15. 이성혁 라크로스 하면 형처럼 된다~ (꼭해^^)
16. 이호성 주말엔 무언가 신호가 오면 서슴없이 1층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하렴~
17. 장형운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색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 친해지니까 걱정하지 말기
18. 정준석 좋아하는 애 어그로 끌리지마 경험상 충고^^
19. 조국호 학기 말에 할 일은 미리미리! 안 그러면 피똥 싼다 *^^*
20. 조주호 라크로스 절대 하지 마
21. 최원열 고민, 걱정 생기면 주변을 바라보기
22. 최재웅 하늘고 최고의 스포아츠는 뭐다? 당빠 라크로스지~!
23. 최정우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단다.
24. 최준명 시험기간에 스텐딩 책상은 필수지!
25. 안동철 초기에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게 중요할 거야!

# 1학년 4반
## 정주원 선생님

# 1학년 4반

##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1. 강동열 1년 내내 저희를 걱정하신 주원쌤.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2. 김기림 주원쌤이랑 봄날에 4반 모두 가서 사진 찍고 놀았던 것. 감사했습니다, 주원쌤!
3. 김유민 하루에 두 번씩 씻는 친구들의 청결함
4. 김진현 까고 까도 재미진 민수. 어깨가 좁아도 너무 좁아서 좋아♥
5. 김태명 아침에 머리 감으려고 샴푸 짜다가 변기에 면도기 빠뜨린 것
6. 박상규 정주원 선생님, 양예영 선생님, 최상규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천도현 선생님, 신미영 선생님과 정식당을 운영한 것
7. 박현서 댄스부에 갔다가 처음 오디션 볼 때 떨려서 덜덜 떨다가 나온 일
8. 봉한성 처음으로 체육대회 때 Not Today 공연했을 때
9. 윤지웅 1년 동안 저희를 항상 걱정하시고 잘 지도해 주신 주원 쌤... 1년 동안 말썽만 부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0. 이도엽 방 룸메 바꿀 때 친한 친구 돼 달라고 빌던 일
11. 이민수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잊을 수 없는 아침운동 나가는 순간
12. 이민재 똥 쌀 때 정주원 쌤이 물 뿌린 것
13. 이율민 건훈이와 승윤이를 데리고 노래 부를 때가 행복 했어요♥
14. 이은규 율민이가 나 과자 사먹으라고 일부러 동전 내기에서 5200원 준 날. 율파카 사랑해♥
15. 이형진 첫눈 왔을 때 다 같이 첫눈 오는 거 보고 운동장에 정주원 쌤 이름도 쓴 것!
16. 임지훈 시험기간 때 마다 정주원 쌤 따라 롯데리아나 맘스터치로 환경봉사(?) 간 것! 쌤 감사합니다ㅠㅠ
17. 정건훈 흑드립을 치는 4반 친구들♥
18. 정규채 4반 친구들과 처음 만난 순간! 사랑한다 4반 친구들아!
19. 정지훈 사이코패스인 나랑 어울려 준 4반 친구들
20. 조병교 이율민과 엽사 대결할 때. 사진 자료가 교지에 올라간다면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
21. 조상현 민수야 1년 동안 까이느라 수고했어. 너 덕분에 많이 웃었다♥
22. 최태웅 라크로스 대회 전국 6위 했을 때!
23. 하승윤 내 재미없는 농담을 받아준 4반 친구들!
24. 한규원 주원 쌤과 함께한 4반만의 맘스터치 정화활동♥

# 1학년 5반

## 김민희 선생님

# 1학년 5반

## 인천하늘고등학교 TMI

1. 김다인 멀티실 컴퓨터를 뒤져보면 휘황찬란한 검색기록을 엿볼 수 있음
3. 김소정 2시 이후 NO 효진! 알아서 잘 먹도록 ^-^
4. 김시아 연애, 노트북 등 몰래 하는 것은 모두 특기실에서 일어난다.
5. 김시현 룸메 바꿀 때 울고불고 하면, 나중에 또 룸메 돼서 상당히 민망해질 수 있음^o^
6. 김유민 기술사 라면은 1층에서 물 받기
7. 김지나 홍대와 부평은 하늘고 만남의 장소. 연남동과 서교동으로 위치를 옮겨라!
8. 김지인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생활관 바닥에서 자세여~ 담날 꼬리뼈 아작되지만 10분은 아파서 못 일어날 수 있어여!
9. 박예원 501호 빗자루 쓰지 마라. 돈벌레 잡으려고 뿌린 에프킬라+돈벌레의 잔해 다량 존재함 (+노린재)
10. 박주이 기숙사 화장실 환풍구는 돈벌레의 출입구…^^
11. 박채원 베란다에서 라면 먹으면 냄새 안 남 (벌레 많음 주의!)
12. 송수인 508호 베란다 왼쪽 난간에 부대찌개 라면 있음(치우러 갈게…)
13. 신은섭 침대 밑에 4기 세탁의뢰서 숨겨져 있음.
14. 신혜정 230호 D자리 침대 밑 대휘 있음. (대휘 포카 3출 대작전!)
15. 우하영 시험기간 친구의 밤샘 약속은 허언임.(분명히 밤을 샜다고 느꼈는데 2시부터 잤다고 함.)
16. 유주희 일요일 1-3시의 강당 ☞ 커튼 쪽 기둥 주변 커플천국임 ^^
17. 유태경 230호 화장실 천장 위에 제크 있음.
18. 이유진 기숙사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걸리는 것'이니라…
19. 이채연 연애는 최상규 결혼은 천도현 (하지만 나는 둘 다 도t♡)
20. 이하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서관으로 가보자. (아기자기한 이벤트가 기다릴 테니)
21. 이현채 겨울 홈베이스는 천연 냉장고
22. 장소영 별관은 쌤 들어오시는 모습 보이고, 소리 들림.
23. 장인아 기숙사에서 라면 먹고 냄새 없애려면 파스★
24. 전최희 매점 옆 화장실, 2층 멀티실 옆 화장실, 체육관 화장실은 우리학교 똥이 모두 모여 있다. 저번에는 8칸 중 6칸이 모두 똥이었다는…
25. 정민주 아침 등교는 7시 20분 전 (그 이후는 4층 등교 ㄱㄱ)
26. 조성아 호실 천장에 야광별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꿀잠은 따라오는 법!! 반짝이는 야광별 스티커에 호실의 밤은 맡기기로
27. 조승혜 얘들아 일요일 아침에 기숙사에서 과자 먹으면서 게임을 해보렴… 개꿀 ㅇㅈ
28. 조예은 면학실 옆 화장실에서는 서로의 기운을 느끼며 변을 볼 수 있다. #ㄱㅅㅎ #ㅈㅇㅇ #휴지 7번
29. 조효리 SDLP, YAP은 풀지 않아요.
30. 지민선 512호 화장실 샤워하면 물 안 내려가서 홍수남 (타일공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31. 차시윤 기숙사 취식 후 후처리가 가장 중요!
32. 최인아 컨퍼 후 등교는 후문으로.
33. 함주현 친구가 졸릴 때 내 옷을 빌려주지 마세요. 침 흘려요.

# 1학년 6반
## 김지연 선생님

# 1학년 6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1. 김나림 호실 이동하고 옷장에 숨기 ㅊ(안 걸림ㅎㅎ)
2. 김다윤 라면 종류별로 먹어보기
3. 김도희 등교 준비 15분 만에 끝냄 (씻기부터 옷 입기까지)
4. 김은아 잠 한숨도 자지 않고 시험보기, 전교생의 이름을 모두 타자로 쳐봄
5. 김한비 돈벌레와 동거하기
6. 김현지 벌레랑 손잡기
7. 명성윤 룸메 한 명과 추운 겨울에 베란다 바닥에 앉아 1시에 라면 먹기(알고 보니 우리가 깔고 앉은 바닥은 노린재 시체 더미가 득실)
8. 박세은 변기 위에서 치킨 먹기(치킨 뼈 처리를 안 해서 벌점 받을 뻔)
9. 박신애 베란다에서 룸메들이랑 달이랑 별보면서 라면 먹기
10. 박재연 7기 공식 벌점왕에 등극해보기 / 실신해서 애들 울리기(얘들아 사랑해♥)
12. 박지연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친구랑 호실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둘이 불 끄고 쪼그리고 앉아서 두시 반까지 쌤 가는 거 기다리기
13. 손예지 수행 때문에 하루 종일(16시간) 노트북 하기
14. 손자영 맨손으로 벌레 잡기 (특히 거미)
15. 송현지 밤에 생활관 들어갈 때 나방이랑 뽑호하기 (털이 느껴짐;;)
16. 심주영 시험 전날 룸메들이랑 같이 미소등으로 벌점 받고 밤샘공부^^ (룸메들이 비타민제도 챙겨줌ㅠㅜㅠㅜ)
17. 안주영 라면 먹을 때 나무젓가락 안 가져와서 구운 감자로 라면 먹기
18. 윤가영 새벽 2시에 별구경 하기! / 한 시간 동안 친구 고민 들어주기
19. 윤연수 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부끄^^) / 6겹 껴입고 감기 쫓아내기♥
20. 윤정연 시험 일주일 전에 함박눈 와서 친구랑 연장 전에 베란다에서 눈 맞은 거, 생활관 쌤께 혼난 건 덤.
21. 이소은 아빠, 동생 아닌 XY염색체한테 편지쓰기, 승호쌤과 6반 친구들 앞에서 never 춤추기♥
22. 이여원 혼밥
23. 이인희 불 꺼진 생활관 복도에서 불빛 반지 끼고 춤춰봄 (feat.심X영)
24. 임도현 화장실에서 위생개념 없이 음식 먹기(라면 4개에 젓가락 2개, 변기 위에 두고 먹기)
25. 임소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에서 룸메랑 시계 불빛에 의지해서 과자 까먹기♥
26. 정윤아 자기 전에 라면 먹으려고 물 부었는데 물이 미지근해서 안 익어서 젓가락으로 부셔먹기, 베란다 밖에 내놨는데 라면 국물이 꽁꽁 얼어버림ㅋ
27. 조미성 라면 먹으려다가 손에 화상입기, 베란다에서 별보며 라면 먹기
28. 진하늘 과자 먹으며 점호하기
29. 최민정 5분 안에 생활관 5층 끝에서 운동장 두 바퀴 완주하기
30. 추지원 미지근한 물에 라면 억지로 뿌셔서라도 섭취(아까운 라면.. 소중한 라면이니..)
31. 한예민 2분 안에 생활관에서 아침 체크하기, 시험기간에 신문지 깔고 화장실에서 밤새기, 머리 감기 3분 컷
32. 한예원 내 자리(기숙사)에서 벌레 8마리 나옴 ㅠㅜㅠ
33. 남민정 인터넷 옷 쇼핑 해서 택배 받아서 컨퍼날 입음

# 1학년 7반

## 양예영 선생님

# 1학년 7반

## 기숙사에 살면서 본래의 내 모습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비슷해진 점은 무엇인가요?

1. 권채은 룸메랑 매일 같이 잔 이후에 뭘 껴안고 자야 된다ㅠㅠ
3. 김민주 룸메들 알람 소리에 익숙해져서 이제 알람에는 안 깨고 내 이름을 불러줘야 일어날 수 있다.
4. 김민지 혼잣말 하는 룸메랑 맨날 노래 부르고 댕기는 룸메를 만나서 혼잣말이 늘었다…(가끔 지나다니면서 노래도 부름 밍ㅠ)
5. 김세희 이제 기상 방송도 겨우 듣고, 알람 소리는 1도 안 들림ㅋㅋ (들으려면 아주 빨리 자야 함), 야식의 일상화
6. 김소정 난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내가 씻으러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오는데 친구들도 나랑 살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안 입는다.
7. 김시연 룸메들이 불 켜고 머리 말리고 알람 울리고 샤워하고 뭘 하든 잘 잘 수 있게 되었다.
8. 김유진 야식이 일상이 됐다 ㅠㅅㅠ
9. 김윤아 이미지 전부 포기+라면충 됨…
10. 김제이 하향화된 나의 얼굴 ㅠㅅㅠ
12. 노승지 초대형 알람시계도 안 들림 ㅠㅅㅠ
14. 배서연 7시 30분에 일어나서 5분 만에 준비하고 나갈 때가 많아짐
15. 서예진 룸메랑 매일 같이 자다 보니 이제 잘 때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이 안 온다ㅜㅜ
16. 신혜원 모든 물건을 곳곳에 숨기는 습관이 생겨서 깨끗해 보이게 되었고, 방안에서 점호 전에 치킨 먹고 냄새 빼는 스킬을 친구들에게 넘겨주었다.
17. 안수연 원래 규칙을 어길 생각이 없었는데, 애들과 지내면서 다같이 어기고 벌점을 받는다.
18. 오나영 룸메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외롭다.(얘들아 사랑해!!!)
19. 오승연 하루에 양치를 다섯 번 하게 되었다.(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20. 오하빈 침대 위로 절대 외출복을 입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물들어서 양말까지 신고 올라간다.(더러워졌다ㅠㅠ…)
21. 윤무영 룸메들이 일찍 기상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남
22. 이다영 처음에 너무 깔끔쟁이 룸메를 만나버려서 우리 방의 '엄마'가 되어버렸다!
23. 이세민 컵라면 1분 만에 익히고 2분컷 & 3분 냄새 빼기 bb
24. 이시원 기상시간이 비슷해진다… (8시 → 6시)
25. 이지윤 샤워 15분컷. 기적이다.
26. 임우리 원래 깨끗했는데 룸메들 따라서 더러워짐 더러미 ㅎㅎ
27. 장혜림 샤워를 아침에 한다!!
28. 정 민 야식에 눈을 떴다 (특히 육포!!)
29. 정지윤 애정이 넘치는 징징이가 되었다.
30. 정한나 말할 때 항상 표정과 행동을 생생하게 한다. 드라마 주인공도 따라하고 욕도 너무 늘었다 ㅜ^ㅜ
31. 최여진 면학 2타임이 끝나고 기숙사 방에 들어오면 배고픔의 증상이 똑같다!!
32. 황유나 집에 침대가 없었는데 방에 침대가 생기니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침대에 눕기가 되어버렸다 ㅋㅋ + 노래 들으면서 잠들 수 있다.
33. 김채연 잠버릇이 약해졌다 ㅎㅎ 특히 몸부림 치는 거
34. 성주연 원래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운동 없으면 무조건 7시 10분에 일어난다.

# 1학년 8반

## 신미영 선생님

# 1학년 8반

##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1. 곽한이 재원이랑 매일 귤 먹으러 갈 때
2. 권선영 함박눈이 내리는데 영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처럼 엄청 예쁘게 많이 내렸던 날
3. 김도연 한국사 시험 전날 밤샘 공부
5. 김성은 효령이, 다율이, 혜은이랑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
6. 김수현 2016년 겨울 하늘고 면접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서 열심히 생기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새하얀 눈이 날리던 장면
7. 김재원 12월 겨울 그날 온풍기 앞 따스한 공기 속에 잠듦.
8. 김주은 첫 룸메들과 방에서 컵라면 파티를 열었던 그날 컵라면의 그 맛!
9. 김혜은 시험날 생일이라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 난 날
10. 나윤서 231호 3월 31일 (노트북, 취식, 벌점파티, 호실이동, 한방에 7점)
11. 나해윤 눈이 엄청 쌓였을 때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겼던 날
12. 박세은 2017년 9월 28일 18시 35분 학교 뒤편에서
14. 백다율 첫눈 오던 날 애들이랑 다 같이 뛰어나가서 사진 찍은 때
15. 송다혜 밤새도록 기숙사에서 파티
16. 신다영 하늘고에서 몰래 했던 모든 금지 행동들!
17. 신서영 눈 오던 날 지은이와 함께 운동장에 첫 발을 내딛어 본 일♡
18. 안예진 김재원 웃을 때 (삐에로 웃음ㅋ)
20. 엄유선 유빈이와 운동장에 누워서 봤던 별똥별 그리고 밤하늘
21. 왕아현 엄유선 놀리기, 운동장 캐치볼♡
22. 유채연 한 손으로, 선글라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23. 윤을리 애들이 인정한 공식 노잼이 된 것
24. 이서연 기숙사 취식♥ + 영화 보기 + 떠들기 + 잠자기♡
25. 이유빈 유선이와 운동장에 누워서 봤던 별똥별 그리고 밤하늘
26. 이지은 첫눈 오던 날 운동장에서 8반 친구들이랑 놀던 일♡
27. 이지혜 윤을리가 내 마니또라는 걸 밝히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데 내가 김주은 마니또라는 걸 들켰을 때
28. 이희원 홍대 간 것(With 혜은, 성은, 다율, 한이, 을리, 다혜, 선영)
29. 임효령 11시 30분
30. 정소현 기숙사 화장실에서 룸메들이랑 라면 먹은 거
31. 정의현 첫 룸메들과 방 바꾸는 날을 착각해서 3일 연속 파티한 날
32. 허예진 체육복을 잃어버림 ㅠ
33. 안수빈 제2의 231, 500호(2인실 맞지?), 첫눈 오던 날 우리 반끼리 나가서 사진 찍은 거 ♥

2학년 1반

이지현 선생님

# 2학년 1반

## 중학교 때와는 너~무 다른 하늘고등학교만의 특징을 하나만 꼽아본다면?

1. 김민선 김민재 개늙어짐
2. 김민재 김범준 방귀 그만 좀;;
3. 김범준 김재윤 노잼
4. 김재윤 당연히 기숙사 생활ㅋ
5. 김준혁 킴치훈 주녀어어억~~ 그거 그만 좀.. 사랑해♡ 힛!
6. 김지훈 저 밑에 약간 허언 있어 보이는 '변'씨를 만난 것
7. 김진석 김찬양 같은 정시충, 인강충 개많음~
8. 김찬양 김한밀 팔꿈치 그만 탐내~!!
10. 김한밀 시몬스보다는 에이스가 더 좋아요
11. 류승권 논문과 연애하는 박동주♡
13. 박동주 여기는 도지사상을 안 준다.
14. 박재환 애들이 점점 또라이가 됨.
15. 박현민 나 빼고 다 비정상
16. 변정환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다...
18. 유동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함.
19. 이지훈 얘들아 2년 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
20. 장세윤 반 애들이 이상하다.
21. 정지성 피곤
22. 정지용 애들이 질문이해를 못하는 듯
23. 조상현 잘하면 한 친구를 24시간 동안 볼 수 있음
24. 최대명 박동주가 포악하다
25. 한남경 낮과 밤의 일들이 너무 달라짐. 하늘고 계획대로 살아야 됨
26. 홍지우 피부 색 회복하려고 젊은 피만 노림
27. 백지웅 애들이 모르는 문제 나한테 안 물어봄;;
28. 이동규 K리그 유망주 황경남!!
29. 황경남 김한밀?!♡

## 2학년 2반
## 김민연 선생님

# 2학년 2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1. 강지영 자다가 친구들이 갑자기 화내서 일어났더니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들이밀며 파티를 열어줌 (feat. 재원, 유진, 주윤)
2. 김 강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가을날 오후, 음악실에서 서임이의 가야금 연주를 들었던 것,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3. 김명화 면학시간에 축구 보러 안 갔다가 평생 후회한 일
4. 김서연 생활관에서 12시 10분 넘어서 떠드는 것 ㅋㅋ
5. 김서진 기숙사에서 잠이 안와서 새벽 2시까지 지뢰 찾기를 한 것
6. 김승연 그냥 매일 면학실 끝나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기숙사 가는 거! 너무 좋다♡
7. 김영서 스트레스 받는 날에 떡볶이 사와서 저녁에 기숙사에서 먹던 것 ㅋㅋㅋ (feat. 김하연과 미니언들)
8. 김예인 면학시간 중에 반 애들이랑 북한 라디오 들은 일! 주파수 안 잡힌다고 손들고 있다가 면학 지도 쌤이 보시고 놀라셨다. (feat. 트럼프 대가리를~)
9. 김하연 동아시아사, 일본어 시험 보는 전날에 유진X2들과 세탁실가서 밤새며 공부한 일 (feat. 예민한 지윤 씨)
10. 노유진 생활관에서 학년 이동해서 논 것
11. 박지혜 인생의 친구를 만나서 매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했던 기억
12. 박채린 시험 끝나고 면학실에서 몇 시간이라도 자는 것
13. 박현문 매일 아침 교실 환기 하던 거!
14. 소가현 2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보기 전 새벽 4시까지 방에 불 켜놓고 공부하다 집에 가면 뭐할지 얘기했던 것
15. 손동아 룸메들과 한 침대에 모여 영화 본 것과 연지의 호로록
16. 신혜주 가을에 생활관 발코니에서 별 보면서 라면 먹은 것
17. 우상원 아침 먹으러 친구랑 매일 만난 것
18. 유재원 생활관에서 컵라면을 몰래 먹는데 젓가락이 없어서 빨대로 먹은 일
19. 유한나 시험 보고 면학실 맨바닥에서 3시간동안 잔 일
20. 이예진 2016년 세훈이 생일날 세훈이 사진 앞에 두고 케이크 먹으면서 하늘고 EXO-L 셋이 처음 모인 날♡
21. 이유진 룸메들이랑 방에서 거짓말탐지기로 놀았던 것!
22. 이주현 일요일 점심 먹은 후 2시까지 노래를 들으며 면학실에서 편안히 앉아 읽고 싶었던 소설을 읽으며 과자를 먹었던 일
23. 이현주 1학년 겨울방학 때 생활관 옆 백운산 올라가는 길 쪽에서 잔류 친구들과 눈썰매를 탄 일 ㅋㅋ
24. 정다은 제주도 수학여행 중 202 버스 노래방!! 가는 길이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불태웠어..☆
25. 조성현 어디서 날아온 꽃가루 덕분인지, 기숙사 테라스에 꽃이 핀 적이 있었다. 이런 데에서도 꽃이 필 수 있구나 했다.
26. 최서임 여름에도 밤에도 5층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별을 본 일♡ 그때 본 별똥별은 평생 못잊을 것 같다 )(
27. 표민주 룸메(이유진)가 알람 6개를 머리맡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잔 일
28. 고해인 룸메끼리 거의 밤새도록 떠든 일(첫 룸메여서 더 의미 있고 즐거웠다)
29. 김윤지 룸메들과 이틀연속 떡볶이, 닭발, 머핀, 치킨, 라면 먹은 일!
30. 김지수 일요일 아침 10시까지 룸메들이랑 자다가 일어나서 벚꽃나무 핀 운동장에서 누워서 수다 떤 일

# 2학년 3반

## 전유림 선생님

# 2학년 3반

## 인천하늘고등학교 TMI
## (too much information)

1. 가예림 우리 학교에는 숨겨진 장소가 많아요!
2. 고민정 4층에서 기숙사 가는 길을 걷다보면 별똥별도 가끔 떨어지고 별도 예쁘다.
3. 고은비 하늘고에서 겨울나기 (feat. 털슬리퍼, 겨울담요)
4. 곽선진 수상하고 싶다면 아름다운 제목을 동반해야 함
5. 김서연 한겨울에 변기물이 언다 (얼마나 추웠으면..)
6. 김수연 노린재가 바닥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떨어진다. 가끔씩 쥐덫에 걸려버린 아기 쥐를 볼 수 있다.
7. 김유진 여름밤 기숙사로 돌아와 보면 가끔 지친 나를 위해 시커먼 날벌레 시체들이 침대 시트를 데코레이션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음.
8. 김윤하 기숙사에서 호실 이동할 때 침대 위에 종이 한 장을 놓고 가세요 '호실이동× 곧 돌아와요!' 들키면 많이 혼나요.
9. 김채현 점심, 저녁 시간, 매점에 사람이 많다면 : 급식이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 날이다.
10. 박나현 하늘고에서 지내다보면 사소한 것에 행복해지게 된다. (휴강, 일요일 아침으로 나오는 라면, 좋은 날씨, 삽겹살, 토스트 등)
11. 박 선 하늘고에서 느는 것 Ver1. 욕, 뱃살, 두터운 YOUR 허벅지
12. 박채령 소지품 검사받기 귀찮으면 그냥 일찍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면학2 시작 전까지만 오면 OK~) 근데 혼날 수도 있어요 ㅎㅎ ).<
13. 방상희 라면 냄새 없애는 방법은 아주아주 향기로운 샴푸와 바디샴푸만 있으면 됩니다 ^^ feat.429
14. 서영주 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꽤나 많습니다. (ex 눈아새, 세계민담전집)
15. 송하영 기숙사 학교라서 외출이 전혀 불가할 거라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음.
16. 이가영 하늘고에서 느는 것 Ver2. ID:student PW:student123, 급식메뉴판 암기력
17. 이수정 기숙사에서 파티할 땐 첫 점호와 소등 사이! 먹자마자 앞뒷문 열고 페브리즈 도배 필수~
18. 이영채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을 줍는 열정은 NO! 안 푼 니 문제집에 양보하세요 (진짜 다 쓰레기 됨)
19. 임연지 하늘고에서 느는 것 Ver3. 인사, 날짜와 날씨의 무감각함 (하늘고에서 패딩 입을 때 외부에서는 안 입고 있을 수도..)
20. 임채원 늘고에 있다면 노트북이든 탭이든 와이파이가 만땅이어도 인터넷 안 되는 Magic Show
21. 장혜린 학교에서만 갇혀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
22. 전소민 사실 하늘고에는 숲 속 요정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임ㅋ
23. 정영신 기숙사 파티(feat.라면)는 잘 정리해서 화장실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방문
24. 조은진 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生스릴러를 맛볼 수 있음.
25. 최시몽 매점을 아무 생각없이 가면 한 달 안에 군것질에만 10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몸무게 앞자리가 바뀐다.
26. 한지희 하늘고 친구들은 칭찬을 하면 화를 낸다.
27. 황유진 하늘고에서 우산은 희귀템이며,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를 때가 많다!
28. 이지호 기숙사에서 룸메 파티 할 때 망원경 가리기는 필수!
29. 허건민 1학년 2학기라도 전학, 자퇴, 유학 늦지 않았어! 심지어 겨울방학까지도!
30. 편수민 심심하다면 일요일 자유시간에 보건실 쪽 계단을 가보세요. 재밌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하늘고 학생들은 사계절 내내 바람막이를 입어요. 계절 감각이 사라진답니다^^!!

## 2학년 4반
## 심주석 선생님

# 2학년 4반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1. 김대규 김보근의 어두운 세계의 지식들, 태훈이의 귀여운 볼살, 5층 2학년 면학실 앞 복도
2. 김보근 남자 면학실에서의 온갖 crazy한 일들, 주석쌤의 "매개변수!"
3. 김사랑 주석쌤의 목소리
4. 김승준 1학기 기말 영어 등수
5. 김태훈 김보근의 숨겨진 이면, 아침운동
6. 박단일 강당(하임, 힘들 때마다 내려가 시간을 보낸 것), 하늘고 하늘 (바쁠 때마다 평정심을 선물해준 것)
7. 이무근 일주일 내내 아침운동 뛰어나갔던 일, 심주석T
8. 이민재 근육게이, 세레모니, 1학기 중간 수학 성적
9. 이상민 용기사단 활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랑 라면 끓여먹은 거
10. 이영훈 심주석쌤♡ 김보근의 (302 모습 feat 어둠의 지식), 김사랑
11. 정우현 생활관 가서 매일 뺏어먹은 승준이의 물병, 아침에 머리를 안 감았지만 귀여웠다.
12. 최동휘 학교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친구를 보내며 울었던 밤
13. 홍승민 주석쌤, 우리 반 아이들의 본모습
14. 강지혜 에이스를 위해 달밤에 매트리스 나르기! 305 312 535 432 430♡
15. 김보선 2-4 돼지들♡ (조직 급식단), 꿀잼 학동, 빠꾸~♡
16. 김세연 생일 선물로 개 인형, 개 목줄, 개 입마개, 개껌을 준 나의 아름다운 친구들
17. 김수연 주석쌤과의 수많은 상담, 태국 간다고 난리 쳤을 때 울어준 주변 친구들. 함께 울고 웃던 우리 반 친구들♥ (+ 우리 조직급식단!!)
18. 문현아 우리 교봉♡, 1학년 때 롤모델 주석쌤과 처음 말한 날, 그리고 주석쌤과 2-4 반이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20. 박지원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 생활관에서 치킨 먹기, 빠꾸~♡
21. 박지윤 528호 생활관 룸메들, 2-4 친구들, 주석T
22. 박현비 눈이 엄청 많이 내렸던 겨울, TV에서만 보던 걸 직접 봐서 신기했다.
23. 윤예은 2-4 미래의 조직폭식배♡ 530 마지막 밤의 파티, 주석 아빠, 짜이찡♡
24. 이해온 내 생일날 김세연의 전자칠판 생일편지(!) 그리고 개껌을 고른 나의 완벽한 판단
25. 전예은 사랑스러운 나의 룸메들♡
26. 정재경 주석쌤, 하늘고에서의 첫날, 체육대회 응원전, 2-4 조급♡, 알쓸신잡♡
28. 안서현 536호, 주석T

2학년 5반

이현주 선생님

# 2학년 5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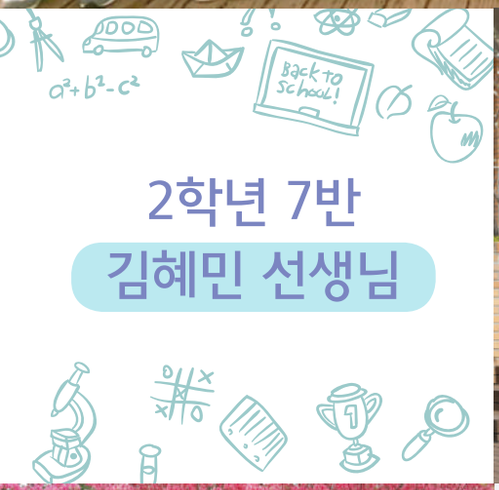
1. 강석훈 301호 방 바꾸기 전날 밤 치즈참치 컵라면 파티
2. 권종현 일요일 11시 기상 → 40분 샤워 → 점심 → 농구 → 영화감상 → 숙면
3. 김강민 친구들과 함께 축구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
4. 김기주 일요일 아침 8시~11시 농구 → 라면, 햄버거 먹고 → 외출
5. 김민기 절권도 할 때 중언쌤이 때려주었을 때
6. 김윤서 친구 전학가기 전날 밤 40명이서 방 세 개로 나눈 후 라면파티
7. 김조현 호실 친구들하고 다른 호실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논거,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거, 게임하는 거
9. 박성우 335 & 336, 그 외 여러 가지
10. 박주영 쉬는 시간마다 뜻밖의 핫스팟
11. 배경민 생활관에서 라면 7개, 순대, 참치캔 2개, 사이다, 자몽 선키스트, 김밥 한 줄을 먹은 거
12. 서원규 점심, 저녁, 간식 시간마다 농구한 것, 생활관 다른 호실 놀러가서 논 것
13. 안병현 친구들과 생활관에서 게임하다가 파티하고 잠들었던 일
14. 안성민 수학여행의 위험한 도전
15. 양동석 친구들이랑 모여서 라면 먹은 것
16. 여동기 현주쌤한테 팔찌랑 빼빼로 드렸는데 고맙다고 해주셨을 때♡♡
17. 우정민 민기한테 맞았을 때
18. 윤호상 수학여행 전날 밤 약 12명 정도 모여서 피자, 치킨, 햄버거, 떡볶이, 튀김, 순대, 음료수 등등 다 먹고 4시까지 떠들다가 1시간 자고 수학여행 출발
19. 이민수 뽀글이 끓여서 락앤락에 쏟아서 넷이 몰래 봉지라면 먹은 거, 306의 mp3♡
20. 이민우 주호띠♡랑 밖에서 밥 먹은 일
21. 이병국 113호에서 한곳에 모여 몰래 닭강정이랑 햄버거 먹던 날
23. 이정빈 딴 방 가서 침대 매트리스 뒤집기
24. 이주헌 처음 외출 나갔을 때 ^^
25. 이현우 338호에서 민우랑 맞다이 뜨다가 용출 쌤한테 걸린 거♡ 방에서 치킨, 라면, 도넛, 과자 먹은 거
26. 임준하 스포아츠 전날 밤에 수업 걱정 없이 떠든 것
27. 전영익 농구장에서 치킨
29. 조현욱 면학시간 중간에 몰래 나가서 먹다가 용출 쌤께 걸린 거
30. 한민규 5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 2학년 6반
## 오대규 선생님

# 2학년 6반

**중학교 때와는 너~무 다른 하늘고등학교만의 특징을 하나만 꼽아본다면?**

1. 강지혁 게임하러 PC방에 안가도 된다.
2. 경 훈 맛없는 급식
3. 권혁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4. 김기현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은데 하는 양은 같다.
6. 김준영 잠을 많이 잔다.
7. 김현진 모르겠다!
8. 박기철 일규
9. 박기혁 환상적인 인성!
10. 박도영 잘생긴 혁진이를 매일 볼 수 있다! 〉ㅇ〈
11. 박형빈 일규가 반장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3. 유래형 모든 곳이 숙면에 최적화 되어있다. 지금까지 최고기록은 하루 18시간
14. 유병현 복도에도 여자, 같은 층에 여자, 하다못해 같은 호실 층에 여자, 중학교 전공이던 야한 드립이 차단되었다.
15. 유상혁 키가 큼.
16. 윤훈휘 왠지 몰라도 어느 샌가 시간이 사라진다♥
17. 이규헌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ㅋㅋㅋ
19. 이동우 일상적이었던 하굣길이 소중해진다.
20. 이두현 가족 같은 분위기
21. 이은석 프로게이머 육성 장소가 이곳인 듯하다. 물론 나는 BJ를 꿈꾸고 있다.
22. 이일규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
24. 이정후 노트북이 생겨서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25. 정유석 핸드폰이 없어요...
26. 하승찬 도영이와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당 〉〈
27. 한지원 병국이가 더 강해졌다!! (GOD 당하중)




2학년 7반

김혜민 선생님

# 2학년 7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1. 강나연 수업 끝나는 종치자마자 갔던 매점
2. 김나연 A동하고 B동 연결하는 통로! 밤에 오면 완전 상쾌하고 좋음!
3. 김다미 5면학실 앞 의자! & 5면학실 옆 테라스 : 친구와 고민상담 많이 하던 곳!
4. 김민서 5면학실 옆 발코니. 나영이랑 커피 홀짝거리며 별 본 날이 너무 좋았다♡♡
5. 김민지 436 김정은 침대 = 식탁
6. 김소연 3층 일본어실 앞 야외. 겨울에 아무도 안 밟은 눈을 밟으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당..☆
7. 김이제 기숙사 화장실. 밤에 불 꺼놓고 혼자 노트북으로 숙제하던 추억
8. 김정은 3층 구석진 곳에 있는 베란다. 힘들 때 저 먼 지평선과 빛나는 star을 보며 힐링했던 기억이♡ (인생룸메 436 사랑한다♡)
9. 김주연 5층 문 잠긴 옥상. 화재경보기 울릴 때만 갈 수 있는 곳! 별도 볼 수 있는 곳!
10. 김한나 301호 앞 베란다. 시험이 끝나면 라면과 삼각김밥, 요구르트 새코미를 사들고 지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달래던 곳이다.
11. 김혜나 436호 유재원 침대 = 김정은, 김민지, 유재원과 함께 한 침대에서 밤늦게까지 떠들고 다같이 아침운동 및 지각 벌점 받음. 사랑해 436♡
12. 문채원 역시 2-7반 교실♡ 교실이 제일 잼잼 〉_〈
13. 박기빈 급식실! 난 역시 밥이 좋아ㅎ
14. 박도영 2층 이과동 미스ㅠㅠ (컴퓨터 고장 나서 추운 날 덜덜 떨면서 컴퓨터 했던 기억이 ㅠㅠ..)
15. 박소현 2학년 7반 교실 ㅠㅠ 그리울 거야
16. 서연우 나의 첫 생활관 436. 서영이랑 울고 웃고 먹고 혼나고 1학년 1학기 때의 귀여운 추억이 새록새록 )(
17. 송예슬 3층 IIP실 앞 베란다. 보윤이랑 고민 상담하면서 쥐포 먹다가 다리에 쥐남. 도서관 자리 잡으려고 치열하게 전투하던 그 곳. 이제 그만 치열했으면
18. 심채현 438호 베란다. 추운 겨울날, 감자튀김이 너무 심하게 먹고 싶어서 힘들게 감자튀김을 공수한 후 꽁꽁 언 감튀를 신문지 깔아놓고 우적우적 먹은 추억이 떠오른다..☆
19. 안진경 2-7 덕후들이 돌아가면서 전자칠판으로 자기 가수 영업함
20. 이나영 5면학실 옆 발코니. 민서랑 커피 홀짝거리며 별 본 날이 너무 좋았다♡♡
21. 임서라 연우다.. 연우랑 어색한 사이일 때 복숭아 와그작거리면서 하늘을 봤던 운동장♡
22. 임채민 연장이 끝난 후 별을 보면 가던 4층 생활관 통로
23. 정아영 밥 먹고 생활관 앞 오두막에서 친구랑 나란히 누우면 짱짱!
24. 최보윤 5층 남자 면학실 앞 테라스. 커플이 아니라서 못 지나다님..ㅠ..☆★ (보윤아, 어른 되면 솔탈 프로젝트 진행하자. -채현)
25. 최해인 424호♥ 룸메들과 party 하면서 먹은 닭발, 치킨, 레드키위, 다코야끼, 라면♡ 쌓인 스트레스가 풀렸던 공간이다.
27. 한서영 나의 첫 방 436호 베란다. 연우가 새벽공부하고 라면 먹다 걸리고 336 선배들과 라면, 과자도 나눠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소중한 장소!

# 2학년 8반

## 유철우 선생님

# 2학년 8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1. 강윤서 겨울방학 때 잔류 친구들이랑 휠체어 타고 놀았던 것
2. 고다인 주말에 친구들이랑 외출 가서 빙수 먹고 온 것
3. 김나연 생활관에서 찜질방 같다고 룸메들과 바닥에 누워있을 때랑 라면 먹고 영화 본 것(428♥)
4. 김미성 비연장하고 들어가서 룸메랑 영화 본 것
5. 김민서 하루 17시간 자기 달성해본 것
6. 김예린 기숙사에서 몰래 룸메들과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었던 것
10. 김태은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먹고 놀 계획 세운 것 (431♡)
11. 문주윤 일요일에 늦잠자고 급식실에 점심 먹으러 등교한 것
12. 오예린 기숙사에서 몰래 룸메들과 컵라면 먹고 로맨스 영화 본 것
13. 유승민 금요일에 등교 지도 없어서 아침 먹을 수 있을 때랑 시험 끝나고 방에서 룸메들이랑 영화 볼 때♡
14. 유지희 룸메들과 한 침대에서 모여서 닭강정 먹으면서 킹스맨2 본 것 (feat. 백설공주와 난쟁이)
15. 윤성현 생활관 베란다에서 여름밤 하늘을 보며 친구랑 수다 떨기 & 라면 필수♡
16. 윤지완 주말에 늦잠자서 친구들과 매점 파티 하는 것
17. 이은결 저녁시간에 생활관에 룸메들이랑 모여서 밥이랑 라면 등등 만찬을 즐긴 것 (524♡)
18. 이은지 아침에 준비 끝내고 잠꾸러기 룸메들과 친구들 깨우러 다닌 것 :)
19. 이주미 집순이던 내가 룸메들과 새벽까지 놀 계획 세우고(431♥) 반 친구들이랑 생전 처음 이미지 사진 찍으러 홍대 간 거
20. 이지연 선배, 후배, 친구들에게 고민하면서 손편지 쓸 때
22. 임혜민 생활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먹어본 거! (535, 537 miss you ㅠㅠ)
23. 전한결 생활관에서 몰래 라면, 피자, 떡볶이 먹은 것
24. 정유진 친구들과 빨래 찾고 바로 저녁 먹으러 가는 것
25. 채지윤 기숙사 온풍기 앞에 누워서 룸메들이랑 과자 먹으면서 수다 떨었던 것♡
26. 한동화 친구들과 컴퍼날 전 뭐할지 계획 세울 때 :)
27. 한서희 매점 가는 거
28. 조서희 저녁에 5층 면학실 앞 테라스에서 하늘보고 멍 때리던 것

# 3학년 1반

##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1. 공준혁 '하면 된다'라는 걸 느낀 1학년 겨울 방학. 그리고 2년 동안의 문작토 활동, 류대곤 선생님
2. 권현수 2학년 6반 아이들과의 태권무!
3. 김기정 시험기간에 밤새면서 공부했던 것. 학교홍보동영상 촬영했던 것
4. 김남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5. 김도윤 친구들끼리 연습해서 학술제 때 '지존도윤123'공연했던 것
6. 김동성 2학년 체육대회 때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이 나였을 때. (비록 결과는 졌지만)
7. 김민철 하늘고 마지막 학기를 같이 보낸 409
8. 김민철 난생 처음 해본 무대 공연과 10월 18일!
9. 김승일 조커 분장을 하고 영종도를 배회한 10월 29일 할로윈 행사
10. 김주영 3년을 함께한 세븐 일레븐
11. 김준석 영어 내신 시험 전날에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놀면서 공부하다가 밤새서, 시험 때 졸아 20점 맞은 거
12. 김찬혁 생활관에서 일요일 오전마다 영화관 오픈했던 2학년 때. (스폰서 : 이동이, 진형건)
13. 도 솔 인생의 전환점
14. 박준현 온갖 병 걸려가면서 개고생 한 거
15. 부효석 각종 생활관 야식과 수많은 발각
16. 서윤범 주말 아침의 농구, 라크로스
17. 서정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해준 하늘고의 모든 것
18. 신승언 2017년 316호. 날이 오져서, 날이 오지지 않아서, 너네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지렸다. 권현수, 김선혁, 김도형 사랑한다♡
19. 신준호 친구들의 관심
20. 오형석 처음 나갔던 농구대회, 그리고 체육대회 전야제 1등
21. 이동이 먹고 자고 떠들고... 2년 넘게 나의 휴식처가 되어준 애플망고. 난 너를 잊지 못할 거야 + 그런데 애플망고두유가 그렇게 맛있냐, 유찬아?
22. 이동호 하늘고의 3학년을 함께한 310.5호 (310호+311호)
23. 이용호 하늘고의 산책로를 친구와 걷던 기억과 분위기
24. 이주철 라크로스와 전교임원선거 연설, 그리고 2년간 함께 했던 우리 반 친구들
25. 이한세 학술제준비위원회에 이은 R&E A팀 과제 작품의 노예 체험(R&E 무박 6일♡)
26. 이홍준 체육대회 전 주에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던 춤 연습과 사랑하는 문과 친구들♡
27. 정원무 체육대회 때 공부한 것
28. 정재훈 방송실 SD카드 포맷해버렸던 날. 난 그때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9. 정준호 샤워보다 많이 했던 농구
30. 진형건 환경봉사대
31. 한동훈 치열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얻은 게 훨씬 더 많았던 나날들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들
32. 홍성진 나와 내 인생을 바꿔준 3년간의 모든 값진 경험들과 하늘고에서 함께 했던 다양한 사람들
33. 홍장원 생활관 관장님과의 치킨 추격전
34. 황 현 1년간의 동아리 찐따 생활을 탈출한 그때

# 3학년 2반

## 김경훈 선생님

# 3학년 2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1. 강서진 기숙사 방에서 문 잠그고 라면(치볶+불닭♥)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허겁지겁 창밖으로 던진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치웠던 것 (알고보니 자윤이었음)
2. 강지영 5층 테라스에서 노을지는 하늘을 봤던 일♡
3. 김명주 기숙사 테라스에서 별 보다 방충망 고장낸 거 (다시 고쳤어요! 405호♥)
4. 김윤영 405호에 워너원 브로마이드 붙이려고 네 명이서 색종이 접고 각종 접착제 공수해 왔던 것 (8장 붙였는데 다 떨어지고 한 장 남음)
5. 김하은 점심시간에 5층 테라스 가서 은아랑 세라랑 하늘 봤던 거 (힘들 때 갖는 여유♥)
6. 김혜원 기숙사에서 광광 얼어있는 투게더 큰 통 나무젓가락으로 5분 안에 먹었던 것 (젓가락 다 부러짐 ㅠㅠ... 405호♡)
7. 김혜윤 1학년 2학기 수학 기말고사를 본 날, 3층 어학실 옆 테라스에 신문 깔고 앉아 룸메와 함께 노래를 들으며 비 내리는 것을 구경했던 일
8. 박세라 10대의 마지막 생일에 룸메들이 미역국과 떡볶이를 준비해서 12시에 깜짝파티 해준 거♡ 414호 윤희, 건희♡
9. 박주영 간식시간에 담요 두르고 운동장 한 가운데 누워 야경 즐기기 (with 서현, 주희)♡
10. 박주은 도서관 면학 끝나고 간식시간에 야경 볼 때, 친구들이 생일파티 해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혼난 일.. ㅎㅎ
11. 박준희 연장 끝나고 룸메랑 다른 룸메 놀래주려고 방에 불 끄고 귀신 분장했는데 실패한 일
12. 배성연 룸메랑 일주일에 영화 한 편씩 본 것 ^~^ ( + 아침에 늦잠 자기♥)
13. 변자윤 저녁 먹고 급식실 옆 테라스에 누워서 노을 지는 하늘 본 날♥
14. 송나현 318호에서 라면 먹으면서 영화 본 거 (최예린, 이세령, 조율이 + 320호 두 명)
15. 신혜인 컨퍼날 룸메들끼리 홍대 간 거
16. 이윤서 추석 때 잔류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먹는 게 최고..♡
17. 이현빈 기숙사 테라스에서 비오는 날 담요 깔고 라면 먹다가 걸린 거
18. 임다희 생일선물로 래쉬가드 받아서 입어봤는데 팔에 쥐날 뻔한 것 (맞을 때까지 곰돌이가 대신 입기로...)
19. 전서은 기숙사에서 사람은 네 명인데 라면 8개? 사다놓고 보온병 8개 가져와서 뷔페처럼 골라먹음
20. 전유진 기숙사에서 짜파게티랑 불닭 네 개 비벼먹은 거♥
21. 정예진 생일날 면학실 책상 위에 선물 쌓여 있는 거 봤을 때♥
22. 정윤희 하늘고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야경보고 별 봤던 기억
23. 정은수 추석 때 잔류하면서 차례 지내려고 각종 전, 병풍... 등을 준비했다♥ 재미있었다 ㅋ #319
24. 조영진 밤에 운동장 산책하고 토끼한테 밥 주던 거
25. 조은아 9명이서 수능 100일 자축파티한 날♡
26. 최정주 친구들이 생일날 해피버스데이 풍선으로 방 꾸미고 축하해준 일♡
27. 최정화 일요일마다 아침 먹는 거 실패하고 주영이랑 기숙사에서 숨겨둔 라면 꺼내 먹은 거 ㅎㅎ
28. 한예지 비오는 컨퍼날 운서역까지 걸어간 일♡ 누구랑 신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거웠다...ㅎㅎ
29. 허건희 크리스마스 때 학교에 갇혀서 컵라면 먹은 것♡

# 3학년 3반

## 송남영 선생님

# 3학년 3반

## 인천하늘고 TMI

1. 강주희 하늘고 3대 목소리(A동에서 수업하시면 B동까지 들린다)는 대곤쌤, 창재쌤, 민연쌤이다.
2. 김나예 창재쌤은 도형, 그래프를 그리실 때 완벽을 추구하신다.
3. 김선영 기숙사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아래층에서 답가를 불러준다.
4. 김성연 옛날에는 기모후드집업이 카키색이었다.
5. 김영민 배성규 선생님의 오랜 꿈은 배우이다.
6. 김제아 기숙사 3층 엘리베이터 왼쪽 라인은 여름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방향제 필수)
7. 김지윤 경훈쌤은 남영쌤의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셨다.
8. 김태연 현영쌤 딸 주하는 최악수(최고로 악한 사람들의 수첩)를 만들었고, 첫 번째로 쓴 것은 '이현영'이었다.
9. 마지혜 지혜쌤은 티켓팅을 잘하신다.
10. 박서정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11. 박신형 토스트는 아침에 일찍 끊긴다.
12. 박이슬 민경쌤은 태교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셨다.
13. 박한이 밤에, 미스 창문에 노트북 화면 다 비친다.
14. 백누리 급식에 뚝배기가 나온 날은 달려가야 한다.
15. 송혜연 북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곳은 3학년 여자 화장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이다. (은비야, 보고 있어?)
16. 안수진 이영종 교감선생님께서는 5기의 한국사 선생님이셨다.
17. 오서린 5층 테라스는 늘고의 photo zone이다. (누구랑 찍는지는 비밀)
18. 유세연 상규쌤께 자기 이름 아냐고 여쭤보면 안 된다. (이름 대신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다)
19. 유정선 원석쌤께서 "잠깐 쉬었다 갈까"라고 말씀하시면 그날 수업은 끝이라고 봐도 좋다.
20. 이륜경 예영쌤께 취식보행 걸리면 3대 맞는다. (뼛속까지 아픔 주의)
21. 이죠이 라면 냄새를 없애고자 한다면 페브리즈가 답이다.
22. 이지현 지현쌤은 최전방 연천에서 군복무를 하셨고, 지금 인생 최고로 활발하시다.
23. 장유정 여름에는 전기 파리채가 필수이다.
24. 조은진 옛날에는 토끼장에 거위랑 닭도 있었다.
25. 최서연 민희쌤은 전지현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26. 한서연 ♡우리 반은 남영쌤을 너무 좋아한다♡
27. 허세영 ♡남영쌤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 3학년 4반

## 김창재 선생님

# 3학년 4반

##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1. 김기웅 기상관측과 옥상. 주말엔 체육관. 멱학실에선 독서. 모든 곳, 그리고 너.
2. 김도형 학술제 무대를 위해 연습했던 밴드부실
3. 김민겸 첫방에서의 가위바위보
4. 김선혁 뒷문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준 IIP실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종선쌤의 방은 참 좋았다.
5. 김수현 지옥 같았던 아침운동
6. 김유빈 자그마한 일에도 그저 즐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곁에 있던 친구들
7. 김일환 사랑하는 생명과학 & 노트정리
8. 노현우 교육의 본질을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9. 박정도 병원갈 때 자주 애용했던 보건실
10. 배성준 화학동아리에서의 추억들과 동아리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체육관
11. 송영승 하늘고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선생님들과 내가 변화하도록 도와준 친구들과 항상 응원해준 동생 두 명!
12. 신병수 사랑했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추억
13. 신주원 가질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지도.
14. 안재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15. 이진규 너무 고마운 친구들과 동아리 선후배들, 그리고 4층 테라스에서 본 가을의 해가 지는 풍경
16. 조형근 고3 추석 때 친구들과 한 시간 동안 바라보며 소원 빌던 보름달. 보름달 볼 때마다 생각날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너.
18. 최승민 기숙사 룸메들과의 추억들과 각종 사건 사고들
19. 최종인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꿈을 가득 담았던 하늘고의 밤하늘
20. 최철은 3년간 룸메이트들과 힘들 때 잠시 쉴 수 있었던 산책로
21. 황태련 날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실패한 총 12명의 방 친구들

## 3학년 5반

## 김원석 선생님

# 3학년 5반

**지난 3년간의 하늘고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기억(순간, 사람, 장소 등등)이 있다면?**

1. 곽민찬 개, 고양이, 쥐, 말벌, 토끼, 고라니, 새의 사체. 손보다 큰 거미 등등을 보았던 날들 (하늘고는 자연의 보고인 듯)
2. 김동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하늘고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가족 같았다.
3. 김상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했던 기억 밖에 안 난다. 대학 가서는 수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4. 김성재 우연히 미스를 지나가던 중 설현 직캠을 보다 잠든 형근이를 본 순간
5. 박정웅 2학년 4반 친구들과 수학여행 밤 숙소에서 밤새도록 게임했을 때! ㅎㅎ
6. 박 진 급식 테일즈런너와의 명승부. 존경합니다! ㅎㅎ
7. 박형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매순간 ㅎㅎ
8. 윤성현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었을 때
9. 윤재웅 최고의 선택이 최악의 순간으로 바뀐 일들이 많았던 2학년 생활... 인생에 있어서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10. 윤형준 노래를 좋아하는 룸메이트와 방에서 마음껏 지르던(?) 날들
11. 이규범 기숙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밤새 떠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12. 이민석 공부를 위해 입학한 학교에서, 공부와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힘이 되어준 친구와 옆에서 함께 의지해온 친구들을 만나게 된 순간들
13. 이병학 입학 2일차, 룸메에게 한 이야기가 다음날 어떻게 되었는지 잊을 수가 없다.
14. 이재희 좋은 친구들과 함께 1년 중 가장 밝은 달을 보았던 날
15. 이진섭 자소서 쓰며 지새우던 밤, 5층 테라스에서 보았던 새벽하늘의 별
16. 이태구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잊기 싫은,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찬 3년이었다.
17. 이태훈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에 샤워할 때의 상쾌함. 이루 말할 수 없다.
18. 이현규 공부가 안 될 때 친구들과 2층 교무실 앞에서 한 산책!
19. 정지우 '고3'이라는 진부한 타이틀 속에서 철없이 울고 웃던 많은 추억
20. 주형진 선배들의 수능 전날에 룸메랑 떠들다가 걸리고, 룸메가 춤추다가 한 번 더 걸렸을 때
21. 탁경헌 2017년 1월 20일 아침. 하룻밤 사이에 학교 곳곳에 내린 눈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설경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두 손이 빨개지고 감기가 악화될 만큼 돌아다녔던 기억. 그때의 사진은 저의 페북에서 확인 가능 ㅎㅎ
22. 황정후 기숙사에서 방 친구들과 컵라면과 치킨을 먹던 것

## 3학년 6반

## 이현영 선생님

# 3학년 6반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남기고 싶은 당신만의 명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김상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노력'하라.
2. 김세헌 잘 살아라! 이게 최고의 복수다.
3. 김재형 실수를 깨달았을 때가 고치기 적기이다. 바로 행해라.
4. 김종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라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5. 남건우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후회되는 과거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
6. 문수현 고1때부터 공부해서 수시로 가라.
7. 박주성 동생아, 3년 동안 고생해라 ㅋ 나는 먼저 탈출한다!
8. 서준호 하늘고 소문을 믿지 마라!
9. 심규성 나를 믿어주고 믿게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자. 내 가장 큰 자산은 '내 사람들'이다.
10. 오성민 인생은 물과 같다. 현실에 낙담하고 고여 있으면 썩는다. 흐르자, 물처럼!
11. 유지훈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고, 이후부터가 진짜 노력이더라.
12. 윤민재 조용히 있다가 안 될 줄 알았지.
13. 이관명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후회할 시간에 더 나은 미래를 꿈꿔라.
14. 이민규 눈앞의 행복을 좇아 미래를 팔지 말기를.
15. 이우진 Simple is the best.
16. 이현우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에 행복한 수간들이 있기에 견디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17. 임채환 결국 가장 영원한 것은 거창하기보단 사소한 것이다.
18. 조원형 입시는 재미가 없다.
19. 최검기 일희일비 하지 말자.
20. 최재웅 원리전도몽상 (遠離顚倒夢想)
21. 함석현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더 높은 것을 찾게 하소서.
22. 허원영 내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이중언 선생님처럼 살 것이다. 내가 만약 연인이 된다면 김민희 선생님처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만약 나중에 커서 가장이 된다면 이현영 선생님처럼 될 것이다.

# 3학년 7반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1. 강지수 밤마다 라면 먹기. 간식 시간에 했던 배드민턴
2. 권윤정 간식시간에 산책하다가 토끼장에서 탈출한 토끼를 세령이랑 토끼장 쪽으로 몰아놓은 것
3. 김규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4. 김규원 눈 많이 쌓인 날, 썰매 타고 구르고~
5. 김나현 면학시간에 산 커피우유는 정말 꿀맛이었다 ^-^
6. 김시영 생일자 삼겹살 및 라면파티 403♥
7. 김아현 팡스타는 나의 행복한 추억
8. 박예은 구름다리에서 케이크 먹은 것. 면학시간에 몰래 나가 야경 봤던 것
9. 박지연 토요일 밤에 일찍 자서 일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 부족했던 수면시간 채웠던 거?
10. 박효인 면학실 테라스에서 노을 본 것! 언제 봐도 예뻤다 ).(
11. 석현수 생활관 선생님과의 스탠드 빨리 끄기 한 판 승부, 기숙사에서의 잊지 못할 많은 사건과 음식
12. 성세현 집에 갈 때. 내 이름은 성춘향. 몽룡이 찾아요!
13. 손명진 룸메들과 즐겼던 초성퀴즈!
14. 양은진 밤에 룸메랑 영화 봤던 기억
15. 오은미 3학년, 주말마다 역정내며 했던 꿀잼 마피아 게임 ^-^
16. 원다희 종종 방에서 즐겼던 광란의 파티... 내 흑역사는 김나윤 탭 속에..^^
17. 윤영화 짜장면으로 알게 된 창재쌤의 인자한 성품♥
18. 이민영 집 가는 날이 즐거웠다.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19. 이성지 화법과 작문 시험 전날, 화법 공부를 위해 제19대 대선 후보 토론 시청
20. 이세령 여유로운 일요일 아침과 밤의 라면파티ㅎ
21. 이수연 간식시간, 기숙사에서 챙겼던 미니 추석
22. 이하늘 하늘고 주인공은 하늘이 나야 나~!!!
23. 임소현 외출을 다녀온 후 가방에 숨겨 와서 먹은 신전떡볶이 ㅎㅎ
24. 정희원 간식시간에 종종 했던 음료수 쟁탈전
25. 조현주 친구 생일날 기숙사에서 몰래 먹던 치킨
26. 하유진 무용실에서 랩 했던 소소한 추억
27. 한민서 컨퍼런스날 아침에 눈 떴을 때. 매점에서 1+1 행사 많이 할 때 (강레오 만두 개이득)
28. 현수연 힘들 때면 맛있는 거 사다주시는 선배들이 있어 행복했다ㅎ 특히 길고 길었던 추석 잔류 때 사오신 싸이버거 ^-^
29. 홍현정 키 187 미만 필요 없음! (아빠 제외) 내 사랑 사마귀♡ 긴 다리와 미모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30. 황정민 쌩쌩 부는 바람마저 즐거웠던 먹방투어 수학여행. 뀨♥

# 3학년 8반

## 김민경 선생님

# 3학년 8반

## 지난 3년간의 하늘고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기억(순간, 사람, 장소 등등)이 있다면?

1. 강세빈 2학년 때 학술제에서 우리 반 아이들의 댄스 공연, D-50 뷔페, 그리고 2학년 미술수업 너무 즐거웠당! 한 학기만 들었던 게 아쉬워 ㅠㅠ
2. 강지은 뮤지컬 제작, 전야제, 하늘고 3년의 추억을 적기엔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도 네 글자로 줄인다면 2016 학술제의 블.랙.피.그.
3. 공의진 하늘고 위로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과 햇살이 반짝이는 운동장, 매일이 아름답던 시간들
4. 구예림 수민쌤과의 마지막 날 & 저녁시간에 했던 운동장 산책
5. 권재민 수능 D-50일날 먹었던 뷔페
6. 김나윤 하늘고에서 만난 두 번째 아빠 경훈쌤♡
7. 김시현 밤에 하던 산책. 야경이 정말 예쁘다. 특이 밤하늘은 꼭 한 번 올려다 볼 것을 추천!
8. 김연정 산책로, 테라스, 곳곳의 풍경, 하늘, 전야제, 학술제, 사랑이, 선생님들, 룸메들, 반 친구들, 마라톤, 수학여행, 체육대회... 너무 많다. 못적겠다.
9. 김호정 물리실!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가끔 나의 면학의 도피처가 되어 주었던...ㅋㅋ (물리쌤 죄송해요. 그래도 뒷정리는 매번 잘하고 갔습니다)
10. 박은지 앞머리 내리고 처음 온 날, 아이들의 환호소리와 나를 돌아보던 시선들... 잊지 못할 거야♡ #9월 컨퍼 끝나고
11. 박혜련 옥상이 딱 하루 열린 적이 있었는데, 야경이 진짜 예뻤음. 잊지 못함 ㅠㅠ
12. 박혜민 저녁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산책했던 거
13. 서지민 3층 테라스에서 보던 야경♡ 별 하나에 꿈과, 별 하나에 친구들과, 별 하나에 선생님들
14. 성현아 #음악실에서의 나홀로 피아노 #간식시간 배드민턴팸 #정신적지주 또라이팸 #노래방팸
15. 심재은 졸업사진 찍던 날 & 2016년 2월 #홍대에서 #5기 1학년 6반♥
16. 안지현 박보검과의 대화! (with 지수)
17. 오유리 106, 207, 308과 함께 했던 시간과 장소들, 방송부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 + A동에서 본 야경
18. 원유빈 기숙사 테라스에서 별을 보면서 위층 친구들과 대화한 날 〉_〈
19. 이미선 3년간 했던 다양한 이벤트 & 수민쌤과의 마지막 날
20. 이소희 룸메들, 민연T, 지연T, 민경T, 동아리&프로젝트 친구들 : 너무 고맙고 고마웠던 사람들
21. 이승미 3년 동안 하늘고에서 지낸 모든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룸메들 #107, 207, 308
22. 전민지 간식시간에 자주 하던 산책
23. 전아영 6평 전날 기숙사 들어갈 때 선생님들의 응원
24. 정경빈 면학 후 올려다 본 밤하늘. 친구들과 일부러 샛길로 돌아 별을 보던 시간이 가장 그리울 것 같다.
25. 정은비 노혜정쌤, 김지연쌤, 김민경쌤
26. 조서현 일팔이팔삼팔 친구들과 함께 한 모든 순간♡ + 룸메들과의 party time~
27. 조율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2학년 수행 뮤지컬 제목이다... 그리워ㅠㅠ)
28. 최예린 하늘고의 모든 추억들을 잊을쏘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공부들, 잊지 못한다ㅠ 주여... 3년간 나는 로봇이 아닌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9. 최한빛 #동생이 플래시몹 응원해준 날 #1학년 면학실에서 친구들과의 추억 #SCICO #내 사랑 바보들

# STAFF

**지도교사** 이중언
김민희
John Cowie

**2학년** 교지편집장 고은비
영자신문부장 김미성
신혜주
박 선
정지용
소가현
이정빈
박도영
김보근
황유진
박기철
권혁진
배경민
김수연
윤예은
강지혜
김영서
김하연
이지호
김민지
박주영
안성민

**1학년** 엄유선
이은규
김혜은
박신애
이다영
유진우
황인건
조미성
조예은
손자영
송다혜
김한비
정소현
이희원
윤무영

눈부신 햇살에 온몸을 적셔보지도 못한 채
내리는 빗방울에 아파해보지 못한 채
꿋꿋이 삶을 붙들고 있는 저 감흥 없는 잎들을 보며
네 삶이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였음을 알리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숭자는 떠나라

장혜림, '너른 잎을 가진 나무' 중